

고구려발해학회 ·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국내학술회의

渤海 中京時期의 歷史와 文化

2010.05.

- 일시: 2010년 5월 7일(금) 09:30-18:00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
- 주최: 고구려발해학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날을 맞아 발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근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비롯한 동북지방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기 위해 ‘東北工程’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민족의 正體性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발해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西古城』과 『渤海上京城』을 비롯한 寧安의 『虹鱒魚場』 발굴보고서 등이 출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해사 재해석 작업의 일환으로 발해사를 ‘구국시기’, ‘중경시기’, ‘1차 상경시기’, ‘동경시기’, 그리고 ‘2차 상경시기’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渤海 中京時期的 歷史와 文化>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건국의 땅인 구국을 떠나 오늘날 길림성 화룡 일대로의 천도와 중경에서의 시기는 발해사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본 학회는 발해 중경시기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아울러 중국 내 발해유적의 유적 발굴 및 조사가 어떠한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측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발해학회 회장 한규철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소장 신종원

학술대회 일정

◇ **등록 및 개회식** : 사회 : 양은경 (부산대학교)

09:30~10:00

개회사 : 학회 회장

◇ **1부 발표** : 사회 : 윤재운 (대구대학교)

1. <10:00~10:50> 서고성터 궁궐유적 검토

발표 : 양정석 (수원대학교) / 토론 :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2. <10:50~11:40> 발해 도성조영과 중경 서고성

발표 : 김진광 (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 김동우(국립중앙박물관)

▣ 11:40~12:40 : 점심

◇ **2부 발표** : 사회 : 구난희(한국학중앙연구원)

3. <12:40~13:30> 중국의 발해유적 정비현황과 문제점

발표 : 이병건 (동원대학) / 토론 : 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4. <13:30~14:20> 발해왕도 현주와 서고성

발표 :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 토론 : 김기섭(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

휴식: 14:20~14:30

◇ **3부 발표** : 사회 : 박아림(숙명여자대학교)

5. <14: 30~15:20> 渤海 貞孝公主墓誌의 書體 研究

발표 :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 토론 : 정현숙(이천시립월전미술관)

6. <15:20~16:10> 발해사에서 '중경시기'의 의미

발표 : 한규철 (경성대학교) / 토론 : 김종복(성균관대학교)

휴식 : 16:10~16: 30

■ 16:30~18:00 종합토론

사회 :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渤海 西古城 宮殿遺構에 대한 檢討 / 양정석(수원대학교)	1
I. 머리말	1
II. 西古城과 上京城 類似建築群의 檢討	1
III. 西古城 2號 宮殿址의 系譜	5
IV. 渤海 5京制에서 西古城의 位階	10
V. 맺음말	12
“渤海 西古城 宮殿遺構에 대한 檢討” 토론문 /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13
발해 도성건설과 중경 서고성 /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15
I. 머리말	15
II. 연구현황검토	16
III. 서고성 발굴과정과 궁전구조	18
IV. 도성제 변화에 대한 비판	22
V. 맺음말	26
“발해 도성건설과 중경서고성” 토론문 / 김동우(국립중앙박물관)	29
중국의 발해유적 정비현황과 문제점-건축유적을 중심으로- / 이병건(동원대학)	31
I. 머리말	31
II. 중국내 발해유적 현황 및 건축적 특징	32
III. 중국의 발해유적 조사 및 정비사업	37
IV. 정비에 따른 문제점 검토	42
“중국의 발해유적 정비현황과 문제점” 토론문 / 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45
발해의 왕도 顯州와 西古城 /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47

I. 머리말	47
II. 발해의 王都 현주	47
III. 中京의 치소, 서고성	50
IV. 맺는말	55
“발해의 왕도 顯州와 西古城” 토론문 / 김기섭(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	57
渤海 貞孝公主墓誌의 書體 研究 /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59
I. 서론	59
II. 자형의 분석과 판독	59
III. 서체의 특징	64
IV. 정효공주묘지 서체의 의의	68
V. 결론-향후 보완	72
“渤海 貞孝公主墓誌의 書體 研究” 토론문 / 정현숙(이천시립월전미술관)	73
발해 ‘중경’의 의미 / 한규철(경성대학교)	75
I. 머리말	75
II. 발해 5경의 설치와 ‘중경’	76
III. 자주적이었고 고구려계승적이었던 중경	77
IV.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중경	79
V. 중경지역 발굴성과를 보는 시각과 과제	79
“발해 ‘중경’의 의미” 토론문 / 김종복(성균관대학교 박물관)	81

渤海 西古城 宮殿遺構에 대한 檢討

양정석(수원대학교 사학과)

-----<목 차>-----

- I. 머리말
- II. 西古城과 上京城 類似建築群의 檢討
- III. 西古城 2號 宮殿址의 系譜
- IV. 渤海 5京制에서 西古城의 位階
- 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연이어 발간된 서고성(2007)과 상경성(2009)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는 중국학계의 발해 궁궐에 대한 인식이 일단락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서고성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상경성의 1, 2호 궁전과 3, 4호 궁전의 계보를 나누어 3,4호 궁전이 원래 발해의 궁전 인식하에 만들어진 초기 모습이고, 1, 2호 궁전은 당의 영향을 받아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당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궁전의 규모나 궁성의 양상에도 위계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를 경우 상경성 궁성의 구조 전체가 당의 영향으로 기존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되며, 서고성은 단순히 초기 상경성의 원형으로만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고구려의 안학궁과 상경성의 유사점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도성제에서 궁궐구조의 계보가 차지하는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별 궁전유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건축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서고성 궁전의 계보와 발해 5경제하에서의 위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西古城과 上京城 類似建築群의 檢討

서고성의 북반부 중앙에 위치한 내성은 남쪽에서 동쪽으로 10° 치우친 종방향의 장방형 격벽으로 외성과 구분되어 있다. 북벽 길이는 187m, 남벽 길이는 187.9m, 동벽의 길이는 311.1m, 서벽의 길이는 306.8m로서 이를 합하면 992.8m에 이른다. 이 내성의 남쪽 구역에는 회랑으로 연결된 모두 4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평면구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상경성 궁성 3호, 4호 궁전지를 포함한 구역과 유사하다. 이를 바탕으로 상경성의 발굴 조사를 담당하였던 연구자들은 발해 상경성 궁궐의 최초 형태와 규모를 상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건축군 중 서고성 내성 1호와 2호 궁전유구와 상경성 3호와 4호 궁전유구의 구조를 비교하여 왜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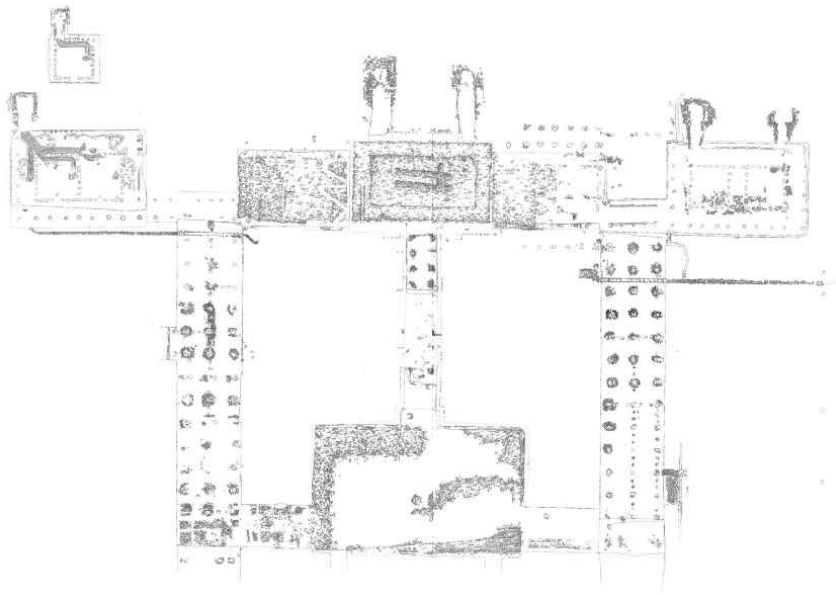


그림 1 서고성 내성 남구 건축 유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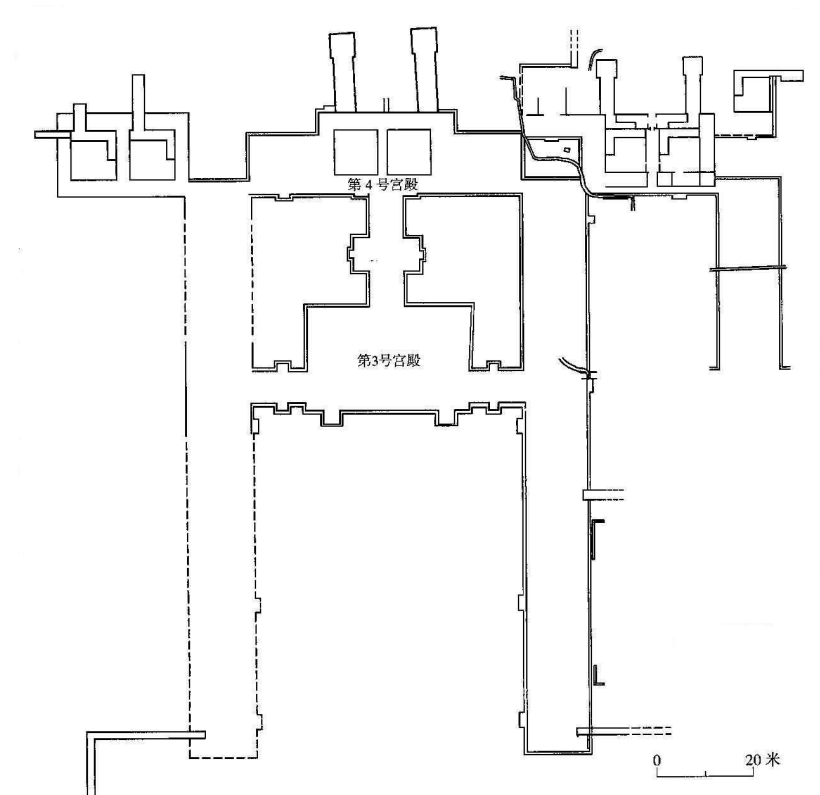


그림 2 상경성 제3, 4호 궁전 건축군 평면 복원도

1) 서고성 1호 궁전과 상경성 3호 궁전과의 비교

서고성의 1호 궁전지 중심건물이 위치한 곳은 내성에서 지세가 비교적 높은 구역으로 1937년 鳥山喜一の 서고성 조사에서도 그 중요성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적인 발굴조사는 200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1호 궁전지는 내성의 남쪽 구역이며 서고성 전체의 남북 중추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 구조는 일종의 복합식 건축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배치는 1호 궁전지인 중심건축 및 그 동서 양쪽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회랑을 포함하고 있다.

궁전지의 기단부는 횡방향의 장방형으로 동서길이는 41m, 남북너비는 22~25m이며, 남쪽에서 가장 높은 곳의 잔존 높이는 1m 전부이다. 굴광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기단부 구성을 위한 판축층은 6층의 사질점토층과 5층의 자갈층이 번갈아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단부가 위치한 곳이 북쪽이 높은 관계로 건물의 안정적 배치를 고려해 남쪽이 높고 북쪽이 이 낮은 형태로 조성하였음도 알게 되었다. 기단 상면은 1975년에 훼손이 이루어져 주초석이 대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에 초석의 위치를 바탕으로 규모와 배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궁전으로 통하는 門址(계단지?)는 남쪽에 동서 양측으로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중앙에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북쪽의 문지는 2호 궁전으로 통하는 회랑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1호 궁전지 기단의 동서 양측으로 각각 길이 14, 15m, 너비 약 8.8m에 달하는 회랑이 연결되어 있다.

한편 상경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유구가 존재하는데 제3궁전지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단의 규모는 동서 32.75m, 남북 21m, 그리고 높이 1.6m인데, 주위의 낙수시설까지 고려할 경우 동서 35.25m, 남북 23.3m에 이른다. 그런데 규모만을 본다면 서고성 1호 궁전이 상경성 3호 궁전에 비해 상당히 큰 것이 된다. 이는 보고서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상경성의 3호 궁전이 확대되기 이전 상경성의 초기 正殿이라고 한다면, 서고성에서 상경성으로 천도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든 것이 된다. 이는 당시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양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상경성 3호 궁전은 기단 상면에서 확인된 초석을 통해 7칸×4칸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다. 초석은 현무암 또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상면에 기둥을 세워 삽입했던 것도 있다. 또한 초석 위에 녹유를 시유한 토제 장식인 覆盆(根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기단의 상반부는 현무암의 괴석을 사용하여 축조하고, 그 틈을 흙으로 메웠다. 그 위에는 황토를 깔고 다시 그 위를 백회로 마감하였다. 가단을 둘러싼 마감돌과 그 외측의 배수시설은 남아 있지 않았으나, 기단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에 의해 기단 주변이 장대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단 측면의 앞부분에 서고성 1호 궁전지와 마찬가지로 좌우로 연결된 단랑의 존재, 더불어 기단의 앞면, 즉 남면의 좌우에 하나씩 계단을 설치했음을 확인되었다.

2) 서고성 2호 궁전과 상경성 4호 궁전과의 비교

서고성의 2호 궁전지는 1호 궁전지의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1930년대 일본에 의해 조사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초석 등 상면유구가 완전히 훼손되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전과 더불어 동서 양쪽의 배전이 확인되어 그 평면구조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우선 주전의 중심건축은 평면이 횡장방형을 이루고 있는 기단에 축조되었는데, 조사된 잔존 기단은 동서 길이 약 27~27.5m, 남북 너비 약 15~15.5m, 기단의 잔존높이는 약 0.15~0.3m 이다. 기단의 조성은 향토판축층·강자갈층을 교대로 하여 축조하였다.

현재 건물기단 상면의 초석이 모두 유실되어 건축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 일본에 의

해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복원은 가능하다.(鳥山喜一, 1937) 여기에 의하면 2호 궁전의 설계는 궁전의 중앙을 步廊이 남북을 관통하고 있으며, 좌우로 양측에 별도의 동일한 규모의 室이 2개가 확인되는데, 전체의 평면 형태는 정면 9칸, 측면 5칸의 구조로 이해하였다.

기단부의 북측에는 돌출된 형태의 시설물이 2개 설치되어 있으며, 기단부의 남북 양측 바깥쪽에 낙수 시설이 남아 있다.

한편 2호 궁전지의 동서 양측에 배전이 설치되어 있다. 배전은 모두 장방형으로 주전에 비해 남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는데, 높이는 주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서측 배전의 동서길이는 22m, 잔존 남북 길이는 14m, 잔고는 0.2m로, 건물구조는 정면 6칸, 측면 4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측배전은 내부에서 9개의 초석이 확인되어 대략의 평면구조 밖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규모는 동서길이가 22.5m, 남북 너비가 13.5m, 잔고 0.21m로서 서측 배전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구조와 유사한 건물지가 상경성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제4호 궁전과 좌우의 배전이 그것이다. 제4호 궁전지는 상경성의 제3호 궁전지의 북쪽으로 약 25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우선 제4호 궁전의 주전 기단의 규모는 동서 약 28m, 남북 17.4m, 잔고 약 0.3m로, 서고성의 제2호 궁전의 평면보다 약간 넓다. 그러나 동측 배전의 기단평면이 동서 14.6m, 남북 12.6, 잔고 약 0.3m이며, 서측 배전의 기단평면이 동서 14.6m, 남북 12.3m, 잔존 고 약 0.3m라는 점을 보면 오히려 서고성이 반대로 더 넓다. 상경성 제4호 궁전의 주전은 정면 9칸, 측면 5칸의 구조가 서고성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완전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그 좌우로 3×3칸의 건물이 부속되어 있었는데, 이는 서고성의 경우 정면 6칸, 측면 4칸과는 차이가 큰 것이다. 주전의 경우 본체 정중앙에 폭이 주칸 한칸 크기의 복도가 있으며, 그 좌우에 3×3칸의 방형 측실이 각기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방형의 측실은 줄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남쪽 문을 제외하고는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더불어 동측실의 동벽과 서측실의 서벽에 붙어 온돌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서고성 2호 궁전지와 상경성의 4호 궁전지는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건축의 구성양식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들 건축물은 궁성의 일반적인 다른 건물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田村晁一, 2008)

첫 번째로, 다른 궁전에서 보이는 높은 기단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건물 내부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 세 번째는 난방 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특히 난방시설은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왕의 사적인 일상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서고성 내성구조를 중국 고대 궁궐의 前朝後寢의 예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상경성 3호와 4호 궁전에서 확인되므로 이 역시 남쪽에 정무를 보는 外朝인 正殿이 위치하고, 그 북쪽에 後宮이 조영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나아가 발해 상경 궁성의 계획은 서고성 내성의 구조에 대한 복제라고 할 수 있으며, 상경의 궁성은 서고성 내성의 건축양식에 의거하여 그것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서고성 2호 궁전과 상경성 4호 궁전이 중국 고대 궁궐에서 논의되는 寢殿이 맞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들어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유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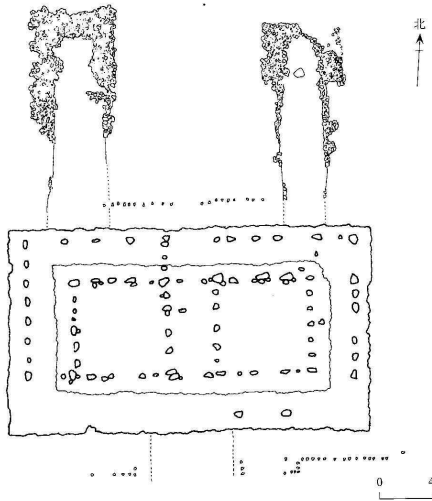


그림 3 서고성 제2호 궁전 평면합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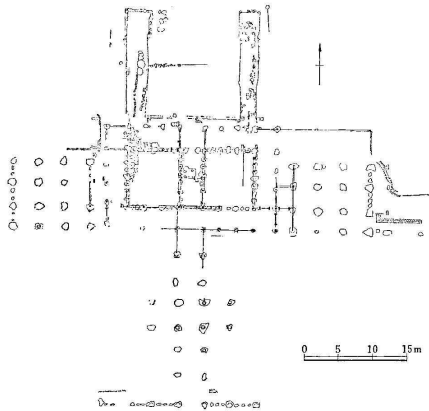


그림 4 상경성 제4호 궁전 평면도

Ⅲ. 西古城 2號 宮殿址의 系譜

東臺子遺蹟은 국내성 동쪽 500m의 동대자 대지에 동서로 세장한 대지가 있는데, 그 위에 오래 전부터 적색외편이 산포되어 있었고, 1958년에 吉林省博物館이 발굴을 통해 전후 부속 건물터와 함께 한 동의 집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이 장방형이고 동남향을 하고 있었다. 기단 위에 세워진 건물지는 동서 2개의 실과 그 사이에 남북으로 가로놓인 좁은 통로로 구성되었고, 2개의 방 外周에도 外陣柱의 績心石이 배열되어 퇴칸집의 평면과 유사하다. 건물지 평면의 동서 길이는 35m이고 남북의 길이는 15m이며, 또 방의 크기는 동서쪽 방이 다같이 15m×11m 정도가 된다. 동쪽 방의 벽체는 줄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서쪽 방의 벽은 일정한 간격의 독립 기초 위에 세워졌다. 양쪽 방에는 각각 한 개씩 ㄱ자형 온돌을 놓았는데, 동쪽 방의 것은 외고래 구들이고 서쪽 방의 것은 두고래의 구들이었다.

동쪽 방의 중앙부에는 바닥에 1.5m~2.0m의 폭으로 강돌과 진흙을 30~50cm 두께로 다져 깔았고, 실내중앙에는 중형 0.8m, 0.6m에 높이 1m의 臺石이 있는데, 지표아래 0.4m, 상부로 0.6m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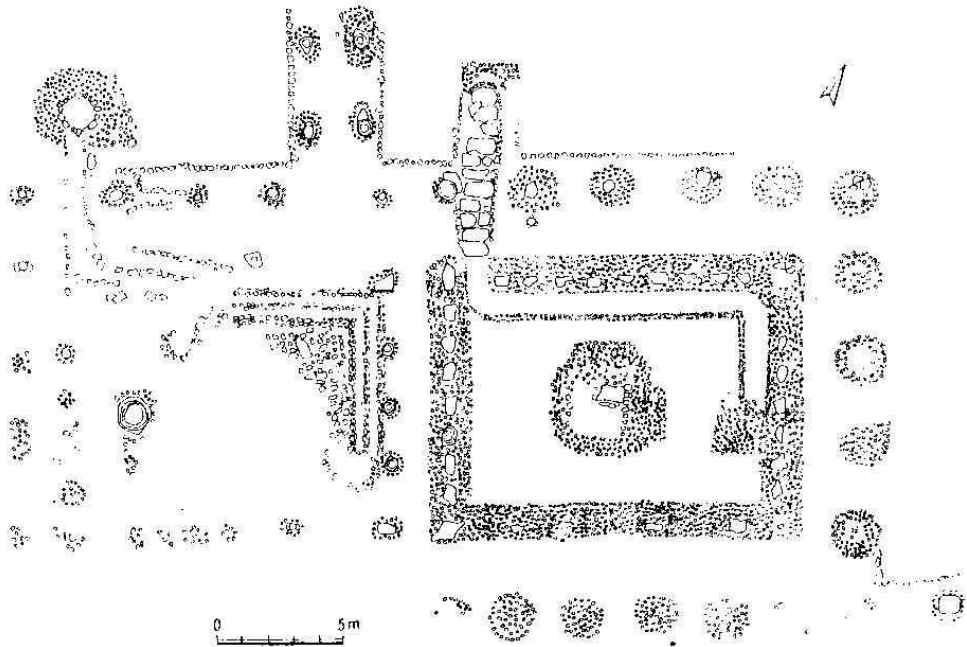


그림 5 집안 동대자 유적 평면도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건축물이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사비지역에서도 확인되어 주목된다.

백제 능산리사지의 강당지는 절터의 북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지는 화재와 관련된 퇴적층 아래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구는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이 강당지의 좌우에 각각 공방지와 불명건물지로 명명한 건물지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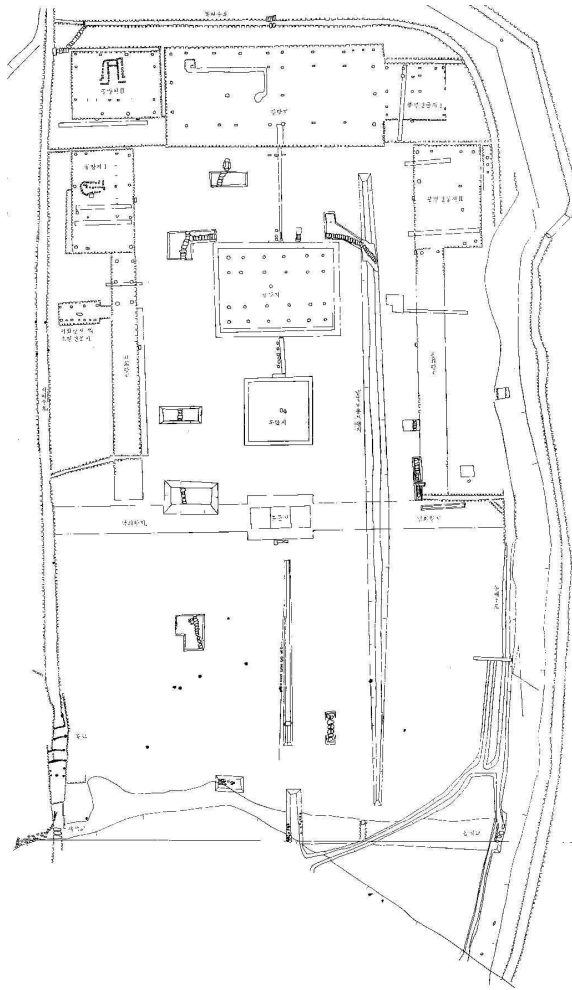


그림 6 백제 능산리사지 평면도

강당지는 동서 37.4m, 남북 18m 규모로 밝혀졌는데, 그 평면구조가 다른 사원과는 달리 동일 지붕 아래 두 개의 室을 두고 있는 형태로 확인이 되었다.

우선 西室은 동서 14.3m, 남북 9.7m의 규모로, 줄기초 하부 초석위에서는 불에 타다만 지름 18cm의 원형 기둥이 일부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부 동벽 중앙부에 아궁이를 둔 외고래의 온돌이 서실 내부 북벽과 동벽을 따라 만들어져 있었다. 벽체를 통과하는 배연구는 40cm 규모이나, 외부에서는 100cm 로 넓어진다.

한편 東室은 서실과의 사이에 통로를 두고 나란히 조영되었는데, 동서 15.75m, 남북 9.7m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초석은 원형과 방형으로 모두 70cm 내외이며, 초석간 거리는 남북 485cm, 동서 525cm 이다. 내부에는 초석이 배치되지 않은 평면으로 별다른 시설은 없으며 동, 서벽에 줄기초가 되어 벽체를 이루고 있다.

강당지에는 남, 북, 서쪽에 퇴칸을 달았던 흔적이 확인되며, 동쪽에는 퇴칸이 없다. 퇴칸 초석만으로 계산하면 8칸 구조로서 서퇴칸과 중앙통로를 감안하면 동서실은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 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방을 구획하는 225cm 너비의 통로가 있어 강당 앞에서 바로 강당 뒤편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강당의 평면구조와 온돌 유구는 조사 당시부터 고구려의 건축, 특히 앞에서 살펴 본 집안 동대

자 건축유적과의 연관성이 주목되었다. 게다가 강당의 서실의 내부에는 그 중심에 104×112cm, 높이 70cm의 대형 방형 화강암이 놓여 있는데, 상면은 평평하게 다듬었고 방바닥에서 5cm 가량 높게 나오도록 하였다. 이 방형 화강석재의 정확한 용도는 알기 어렵지만 일반 주거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더불어 동대자유적은 이러한 臺石이 동실에 있어 동실과 서실의 구조가 능산리 강당지와 반대라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 거의 유사하다.

이 대석에 대하여 『周禮』鄭玄注, 『呂氏春秋』『淮南子』 등 중국고전문헌에서, 社의 神主로서 돌을 사용하였다는 예와 江蘇省 銅山丘灣의 社址로 보이는 유적과도 비교를 통해 社主인 것으로 생각한 견해가 제기되었다.(方起東, 1982) 나아가 이 견해에서는 I 실을 地母로서의 社에 제사하는 곳이고, 인접한 II 실을 農神인 稷에 제사하는 곳으로 추정하고, 출토 와당의 연대관을 가지고, 4세기말 고국양왕 9년에 세웠다는 ‘國社’로 이해하였다.

능산리사지의 강당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동대자유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삼국지 고구려조의 제사 기록과 연결하여 백제의 신궁 또는 제당이었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장경호, 1996) 이후 신궁 또는 제당실을 약간 변용하여, 능산리사지를 祖王神의 제사, 聖王의 殯殿, 陵寺 등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신광섭, 2006) ‘祠堂’ 또는 ‘神宮’으로 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이병호, 2008)

이와는 달리 사직시설에 온돌이 설치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보다는 제사시에 降臨한 祖神을 따뜻하게 모신다는 배려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김길식, 2008) 이와는 별도로 두 개의 실을 『儀禮』土禮의 ‘동당은 신에게 바치는 진설물을 보관하고, 사람의 대기실로도 쓰이며, 서당은 신의 자리에 쓰이는 각종의 물건들이 보관되는 곳이다’ 라는 기록과 연결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차별성은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능산리사지 강당유구를 중심으로 한 건축군을 다른 건축물들과 시기를 달리하여 보기도 한다.

즉 건물지 기단의 축조기법, 건물지의 구조, 초석의 형태와 축조기법, 출토 고구려계 유물, 와당 등을 분석하여 강당지, 불명건물지 I·II, 공방지 I·II로 구성된 1차건축군이 사비천도(538년) 직전까지는 건립되어 천도 후에는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본 견해가 제시되었는데,(김길식, 2008) 이는 나머지 금당지, 목탑지, 동서남 회랑지 및 중문지 등으로 구성된 사찰과 관련된 건축군을 557년경에 시축되어 567년경까지 10여년에 걸쳐 완성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즉 1차 건축군은 성왕대에 조영되었고 2차 사찰건축군은 그로부터 약 20여년 후 그의 아들인 위덕왕대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개별 건축물들의 영조적을 비교하여 능산리사지에는 2개의 시기로 건축군이 대별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신광섭, 2006) 출토 와당을 통해 강당지, 목탑지, 불명건물지II 등이 1차로 건립되었고 금당지와 중문지, 회랑지 등은 2차에 건립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병호, 2008)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모두 능산리사지 강당유구가 고구려 건축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강당 좌우에는 각각 공방지와 불명건물지로 명명된 건축물이 종방향으로 붙어 있다.

우선 강당지 서측 기단 밖에 있는 남향 건물로서 기단은 10cm~25cm 규모의 잡석을 2~3단 쌓아 조성하였는데, 전면 15.28m, 측면 11.59m 이다. 줄기초로 벽체를 구성하였고 전후에 퇴칸을 두었다. 본체는 강당과 마찬가지로 복도형의 좁은 통로를 두어 두 개의 방으로 나누었다. 복도를 사이에 둔 두 방의 벽을 따라 온돌유구가 있었다. 이 건물지 앞마당과 강당의 앞마당 그리고 서회랑 복단은 서로 통해 있다.

한편 강당지 동쪽에 서측 건물지와 마찬가지로 대청 위치의 남향 건물지가 있는데, 달리 파괴 유실이 심하여 유적의 전모가 분명하지 않다. 그 규모도 동서 13.5m, 남북 9.9m로 서측 건물지보다 작다. 이러

한 두 건물지는 구조적으로 볼 때 강당에 부속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이를 각각 西翼舎와 東翼舎로 이해하기도 하였다.(신광섭, 2006)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건축군은 바로 서고성의 제2호 궁전과 그 배전, 그리고 상경성 제4호 궁전과 그 배전과 동일한 배치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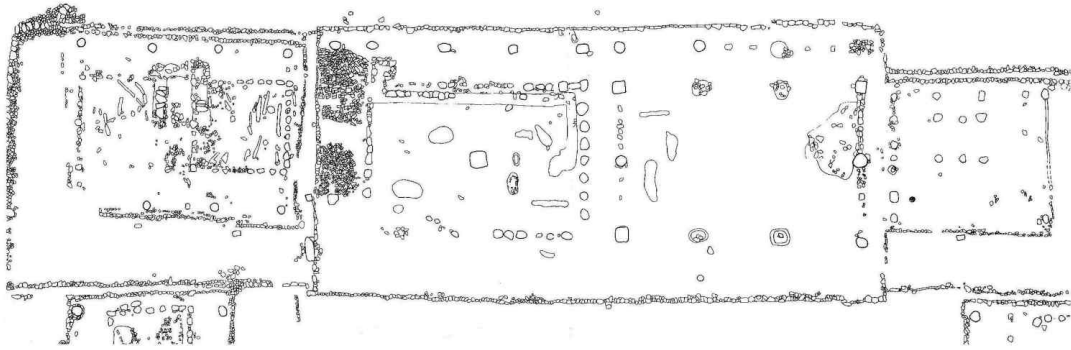


그림 7 백제 능산리 강당지 및 동서 익사 평면도

즉 이러한 형태의 건축군은 모두 구조에 있어서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고구려 동대자유적, 백제 능산리사지 강당지, 그리고 서고성 제2호 궁전과 그 배전, 상경성 제4호 궁전과 그 배전에 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유적명	중심유구명	규모	부속유구명	규모
동대자유적	I 실	35×15		
능산리사지	강당	37×15	익사	동:13.5×9.9 서:15.3×11.6
서고성	2호궁전	27.5×15.5	배전	동:22×14 서:22.5×13.5
상경성	4호궁전	28×17.4	배전	동:14.6×12.6 서:14.6×12.3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심유구에서 모두 2개의 방과 온돌시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그리고 동대자유적의 경우 주변에서 부속건물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명확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건물지의 구조는 부속건물을 포함할 때 고구려 안학궁에서부터 확인되는 소위 ‘객사형건축양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해 당시 여전히 고구려 건축의 요소가 궁궐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보고서에서 단순히 중국의 전통적인 궁궐건축양식인 前朝後寢을 따르고 있는 예로 보았지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대자유적과 능산리사지의 강당을 통해 볼 때 이들 서고성 2호 궁전이나 상경성 4호 궁전을 단순히 寢殿으로 보기에에는 보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서고성 보고서에서 제기하였던 서고성의 1호, 2호 궁전을 상경성

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궁궐의 궁전으로 사용하다가 당의 영향을 받아 상경성의 1호, 2호 궁전이 만들어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渤海 5京制에서 西古城의 位階

발해 상경성의 제1호 궁전은 이미 고구려 안학궁 남궁 제1호 궁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함이 밝혀져 있다. 우선 상경성 제1궁전과 안학궁 제1호 궁전은 각기 동서 56m, 남북 24.24m의 규모와 동서 57.1m, 남북 27.3m 규모의 장방형으로 그 평면에 있어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건축의 외형을 좌우하는 초석자리의 수 역시 정면 11칸×측면 4칸으로 동일하다. 궁궐배치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건물은 모두 좌우로 익랑을 통해 동서의 회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안학궁 남궁 제1호 궁전의 익랑과 상경성 제1호 궁전의 익랑은 기단의 고층화로 인하여 약간의 차별성이 있을 뿐이다. 즉 안학궁과 상경성의 각각의 제1궁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는 동서당의 유무와 기단의 고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구려 안학궁과 상경성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차이와 그로 인해 생겨난 당시 발해 지배층의 권위 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필자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太極殿形 正殿’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양정석, 2008)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견해도 제기되었다. (張鐵寧, 1994) 여기서는 상경성 궁전구역의 남북성벽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서남북 네 각의 대각선 교차점이 제2궁전이 있는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제1궁전보다 더 중요한 건물로 이해하였다. 그 규모에 있어서도 75.9m에 이르는 당 장안성 대명궁의 함원전 상층기단과 유사한 점을 들어 숭元殿을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궁전의 기단도 현재 남아 있는 높이가 2.9m 였고, 제1궁전의 기단높이가 2.7m라는 점을 참고하여 이보다 높게 3.23m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는 제1궁전이 제2궁전보다 작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당과의 관계에서 찾았는데, 당시 발해는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당 대명궁이나 태극궁과는 달리 당 등 외국사신을 접견하였던 제1궁전이 內朝大殿인 제2궁전에 비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경성 2호궁전에 대한 재발굴조사를 통해 기존의 80m로 이해한 정면이 93.5m로 확인되었고, 반면 측면은 기존의 30m에서 22.4m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리고 기단의 높이는 3m 이상이 아닌 2.16m로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정면 19칸, 측면 4칸의 거대한 건물로 복원하여 단일 건물로서는 가장 장대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복원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상경성 2호 궁전은 단일 건축이 아닌 복합건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심건물 정면 9칸, 좌우의 배전이 각각 정면 5칸의 건축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복원할 경우 상경성의 제2호 궁전은 고구려 안학궁 중궁 제1호 궁전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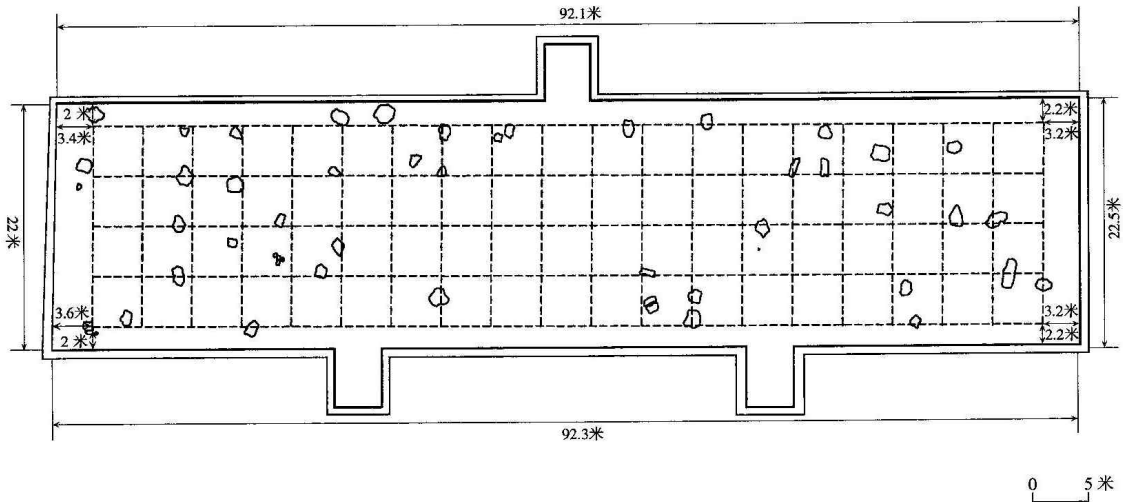


그림 8 상경성 제2호궁전 평면 복원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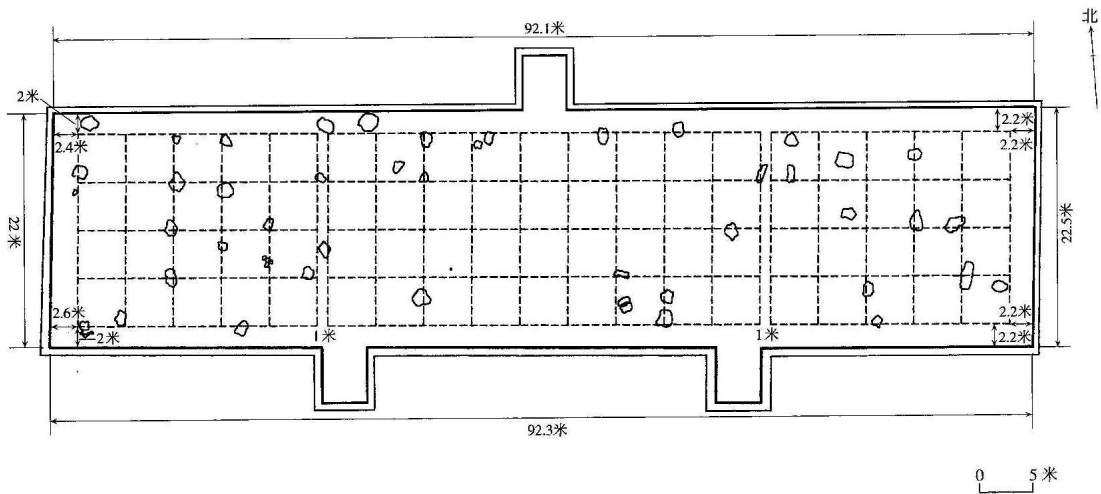


그림 9 상경성 제2호궁전 평면 복원 2안

고구려 안학궁 중궁에 조영된 제1호 궁전은 그 위치로 보아 중궁의 중심건물이며 동시에 안학궁 전체의 건축구성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의 규모에 있어서는 제일 크며 평면구조도 다른 궁전에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궁전은 땅을 30cm정도 높이 터를 닦고 지었다. 집터 주위에는 돌을 쌓아올려서 무너지는 것을 막았으며 그 위에는 화강암을 판석으로 다듬어서 섬돌로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궁전은 큰 앞채와 작은 뒤채로 되어 있는데 두 건물은 중심부에서 짧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궁전터는 앞면 길이 90.5m, 옆면길이 33m되는 매우 큰 집터이며 여기에 140개의 기둥자리가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궁전 앞채는 앞면에 20개의 기둥이 섰고 옆면에 5개의 기둥이 섰던 19칸집인데 이집도 가운데는 기본 건물이 있고 그 양쪽에 나래채가 있는 안학궁에 고유한 건축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궁전에서는 앞채가 기본건물이며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몸채가 중심이다. 이 궁전의 중심건물인 앞채의 몸채는 앞면 7칸, 측면 5칸으로서 그 앞면 길이가 32m이고 옆면이 16.6m이다. 또한 그 양쪽 나래채

는 각각 앞면이 6칸, 옆면 4칸으로서 그 길이는 앞면 23m, 측면 11.5m이다. 물론 이 부분을 몸채와 나래채를 각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았을 경우 나래채는 각각 정면 5칸이 된다. 이는 객사형의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이렇게 볼 경우 상경성 보고서에서 새롭게 제시한 복원안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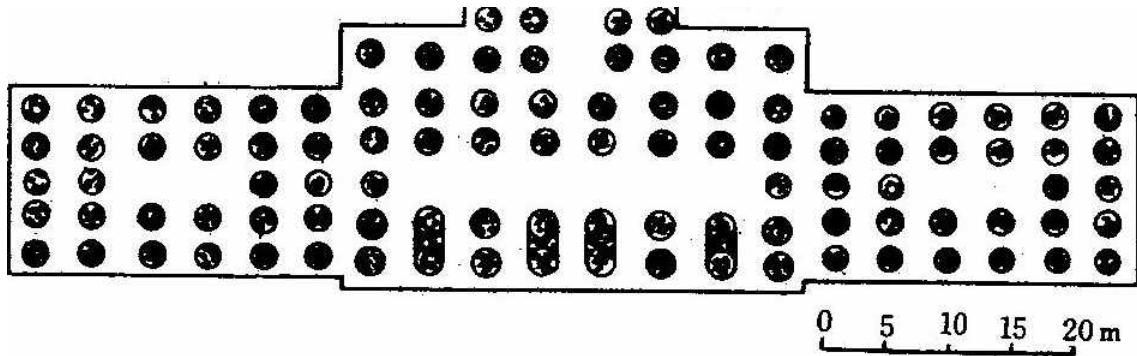


그림 10 안학궁 중궁 제1궁전 평면도

이를 통해 볼 때 상경성의 1호 궁전에 이어 2호 궁전도 안학궁의 궁전과 동일한 평면구조계획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안학궁과 상경성의 배치구조가 유사함을 강조하였던 것과 동일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에서 서고성과 상경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제기되었던 상경성 1호 궁전과 2호 궁전이 상경성 1차 조성 이후 추가적으로 당의 궁궐제도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다고 하는 견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상경성과 서고성의 유사한 건축군이 존재하는 것을 서고성의 것을 원형으로 상경성의 것을 서고성의 복제, 그리고 이에 기반을 한 당의 궁궐양식의 추가 확대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궁궐의 건축구조를 계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고성과 상경성의 관계는 보고서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발해 유적의 가장 상부이다. 유구의 보호를 위해 바닥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서고성 궁궐유적은 발해의 5경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시기의 마지막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상경성에 존재하는 당시 발해의 최고 권위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1호 궁전과 2호 궁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 서고성의 위계가 상경성보다는 한단계 아래의 位階임도 알 수 있다. 이는 발해 5경제에서 서고성이 차지하는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 도성의 변화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이다.

V. 맺음말

“渤海 西古城 宮殿遺構에 대한 檢討” 토론문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잘 알려져 있듯이, 발해는 구국-중경-상경-동경-상경의 순서로 수도를 옮기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경의 서고성과 상경의 발해진 상경성 그리고 동경의 팔련성에서는 발해의 궁전 건물터들이 조사되었고, 그 중 서고성과 상경성의 궁전지 발굴조사 내용이 보고서로 간행되어 발해의 도성과 궁전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에 양정석 선생님은 상경성 3, 4호 궁전이 원래 발해의 궁전 인식하에 만들어진 초기 모습이고, 1, 2호 궁전은 당의 영향을 받아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는 중국학계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장 큰 논의 중의 하나는 서고성 2호 궁전과 상경성 4호 궁전의 평면 구조를 고구려의 동대자유적 및 백제의 능산리사지 강당지와 비교하여 서고성 2호 궁전과 상경성 4호 궁전이 前朝後寢의 예를 따르고 있는 寢殿이 맞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필자는 서고성 2호 궁전과 상경성 4호 궁전을 백제 사비기 능산리사지의 강당지와 그 평면 구조가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는데, 토론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토론자 역시 능산리사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해의 궁전 건물들이 능산리사지 건물들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필자가 지적한 대로 주전이 중앙의 통로를 통해 2개의 실로 나뉘는 점과 좌우에 각각 배전이 위치하는 점은 능산리사지 강당지와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내부에 쪽구들이 시설되어 있는 점도 동일합니다. 다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굴뚝이 서고성과 상경성의 경우에는 건물 밖에 위치하고, 능산리사지 강당지에서는 퇴칸 초석 안쪽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능산리사지와 발해 궁전 건물들과의 보다 깊이있는 비교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직’ 혹은 ‘국사’로 이해되는 동대자유적과 ‘신궁’, ‘제당’, ‘사당’, ‘빈전’ 등으로 해석되는 능산리사지 강당지는 궁전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물들이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건물들을 비교하여 쪽구들이 있는 서고성 2호 궁전과 상경성 4호 궁전을 침전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로 볼 수 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용도였다면 가능한 용도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국학자들은 상경성 1, 2호 궁전이 당의 영향을 받아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토론자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중국학자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고성의 1호 궁전지 기단부가 6층의 사질점토층과 5층의 자갈층이 번갈아 조성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 기단부 조성 방법이 고구려 혹은 당과 일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단부를 점토와 강돌을 교대로 쌓아 조성한 예가 경주의 사천왕사지 금당지에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서고성 1호 궁전지의 기단부는 직접 실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북국시대에 북쪽과 남쪽에 동일한 기단부 조성 예가 보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해 도성건설과 중경 서고성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현황검토
- III. 서고성 발굴과정과 궁전구조
- IV. 도성제 변화에 대한 비판
- 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년 동안 중국에서는 “統一的多民族國家論”에 기초한 東北工程으로 고구려 및 발해를 포함한 한국 고대사 역사왜곡이 진행되었다. 발해고고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발해 도성지에 대한 발굴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의 발해유적 발굴은 발해사의 “中國史化”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발해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중국측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공정이 종결된 이후 고구려문화연구중심을 통화사범대학에, 발해문화연구기지를 연변대학에 설치함으로써¹⁾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왜곡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遼寧省社會科學院 邊疆研究所에는 高句麗研究中心·臺灣研究中心, 요령성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領導小組辦公室 등이 설치되었고, 『遼寧邊疆與周邊』이라는 간행물을 통해 남북한·일본·러시아·몽고 및 대만 사회·경제·역사문제 및 변강문제에 관한 수백편의 논문 및 조사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더욱이 요령성사회과학원에서는 요령성의 변강역사와 현상문제, 즉 일본·한국·북한·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국제관계문제를 다루는 歷史邊疆與現狀學科를 중점학과로 선정하여 발전시킨다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다.²⁾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취해진 중국측의 조치로서, 발해사를 포함한 한국고대사에 대한 역사왜곡의 저변이 기층단위까지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해 9월에 발간된 『서고성』 발굴보고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판되었다. 발해는 229년간 4번에 걸쳐 도읍을 옮긴 것으로 유명한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문왕대에 집중적으로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³⁾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천도배경과 원인을 구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발해

1) 新华网吉林频道 2007-09-28 来源：吉林日报
http://www.jl.xinhuanet.com/jlzw/2007-09/28/content_11277487.htm
 “吉林省五个研究基地通过专家评审”.

2) 中国社会科学院 2008-05-13
<http://www.cass.net.cn/file/20080513122439.html>.
 “辽宁：科研方向明确学科优势凸显”.

3) 천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孫玉良, 「渤海遷都淺義」, 『北方文物』3, 北方文物雜誌社; 林相先, 1988,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何光岳, 1990, 「渤海大氏の來源和遷都」, 『求索』2; 방학봉, 1992, 「발해 중경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한국사학논총』상, 수둔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방학봉, 1992, 「발해는 무엇 때문에 네 차례나 수도를 옮겼는가」, 『白山學報』39, 백산학회; 宋基豪, 1994, 「발해의 초기 도읍지와 천도과정」, 『우강권대원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김기섭·김진광, 2007, 「

시기에 이루어진 천도가 문왕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주지하듯이 발해사연구의 최대 난점은 바로 사료의 부족이다. 그래서 발굴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검토는 발해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며, 당시를 재현하는데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발해 도성에 대한 발굴은 서고성이 처음은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시기에 이미 上京城·西古城·八連城이 발굴되었고,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관한 충분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서고성』 발굴 보고서의 발간은 더욱 학계에서 주목하는 것이며, 동북공정이 진행된 이후 발해고고학의 최대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고성을 발굴한 지난 5년간 성과의 발간은 발해의 도성체제와 도성간의 연구를 위한 토대, 즉 발해 도성의 구조적 특징·도성간의 영향관계·중원도성과의 관계·도성지의 성격 등을 구명하는데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그동안 논의되었던 서고성 관련 연구 현황, 즉 중경위치비정에 대한 기존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고성의 구조를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상경성 등 다른 도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서고성의 구조적 특징과 그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II. 연구현황검토

발해국 도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청나라 말부터 이루어졌다. 청나라시기의 『만주원류고』 『동삼성여지도설』 『동북여지석략』 등은 현재 흑룡강성 영안시 동경성지를 발해국도성고지로 주목하고 고증한 첫 번째 성과이다.⁴⁾ 발해국 도성의 본격적인 확인은 고고학 발굴로 시작되었다.

1930년대부터 일본인들이 차례로 黑龍江省 寧安市 上京城터,⁵⁾ 길림성 琿春市 八連城터,⁶⁾ 길림성 和龍市 西古城터⁷⁾를 발굴하고 간행한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의發掘報告』는 고고학자료를 이용하여 동경성지를 발해국 상경용천부지로 인정하였다. 청나라 말기 유배온 학자들의 추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발해 상경성의 확인·도시의 조영·출토유물은 발해 도성판단의 척도가 되었다.

그 후 鳥山喜一은 서고성터에서 얻은 자료를 上京城·八連城 자료와 비교하여, 1944년 『渤海中京考』라는 논문에서, 西古城터가 발해 中京顯德府터라는 견해를 주장하였으며, 八連城터 발굴에 참여했던 齋藤優도 1942년 서고성터를 현지·조사하고, 내성 4호 궁전지를 발굴한 후 서고성은 발해 중경현터부터 라고 하였다. 1960년대에는 다시 中朝聯合考古隊가 서고성터⁸⁾와 상경성지를 발굴하였고, 2002~2005년까지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가 서고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⁹⁾ 서고성=중경설이 정설화되어 있다.

중경 소재지에 대해서는 鳥田好가 처음으로 주장한 요양설,¹⁰⁾ 丁若鏞·津田左右吉·池内宏 등의 견해인 敦化市 敖東城, 즉 구국설,¹¹⁾ 曹廷杰과 松井等の 주장인 樺甸縣 蘇密城, 즉 나단불륜성설,¹²⁾ 齋藤優

발해의 상경 건설과 천도, 『韓國古代史研究』45, 한국고대사학회 ; 김진광, 2007,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4) 劉曉東, 2006, 『渤海文化研究-以考古學爲視覺』, 黑龍江人民出版社.

5) 東亞考古學會, 1939, 『東京城-渤海國上京龍泉府址의發掘報告』, 東方考古學叢刊, 甲種第五典.

6) 齋藤優, 1942, 『半拉城-渤海遺迹의調查』, (琿春公署)綜合報告書.

7) 鳥山喜一·藤田亮策, 1942, 『間島省古迹調査報告』; 鳥山喜一, 1944, 『渤海中京考』 『考古學雜誌』34-1, 日本考古學會.

8) 화룡시박물관당안자료.

9) 『西古城』

10) 鳥田好, 「渤海中京顯德府即遼陽說」, 『滿洲學報』2책.

11) 丁若鏞, 『大韓疆域考』 권5, 渤海考 ; 津田左右吉·陳清泉, 1939, 『渤海史考』, 商貿印書館, 119쪽 ; 池内宏, 『滿洲史研究』 중세 제1책, 59쪽.

12) 曹廷杰, 『東三省輿地圖說』 「渤海建國地方考」 ; 見裴麗遠·趙鳴岐 편, 1985, 『曹廷杰集』, 中華서국, 168쪽 ; 松井等, 『滿鮮歷史地理』 권1, 「발해국의강역」, 409~411쪽.

· 鳥山喜一·和田清 등의 견해인 吉林省 安圖縣 大甸子城터,¹³⁾ 孫進己·풍영겸 등이 제기한 西狼河古城에 있다.¹⁴⁾

서고성이 중경현덕부의 顯州인지 아니면 盧州인지에 대해서도 학계의 견해차가 매우 크다.¹⁵⁾ 鳥山喜一은 중경현덕부의 치소는 초기에 顯州에 있다가 후에 盧州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¹⁶⁾ 駒井和愛는 최초의 중경현덕부는 顯州에 있었다가 盧州로 옮겨갔으나, 노주로 옮겨간 이후에도 여전히 옛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중경현덕부라고 주장하였다.¹⁷⁾ 孫進己는 비록 和龍 西古城에서 웅장한 건축유지들과 貞孝公主墓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해 후기의 中京 및 盧州의 소재지일뿐 顯州 소재지는 아니라고 하였다.¹⁸⁾ 朴龍淵도 발해 중경현덕부의 치소는 顯州일 수 없으며, 盧州는 서고성인데, 이는 서고성이 위치한 해란강유역의 두도평원이 예로부터 좋은 쌀 생산지로서 “노주의 벼”라는 기록에 서로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¹⁹⁾ 이에 반해서 李健才·陳相偉는 비교적 일찍 顯州와 中京顯德府가 동일한 곳이라고 주장한 학자들로, 그들은 고고자료에 힘입고 서고성터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 貞孝公主墓를 포함한 중요한 발해유적을 결합하여 서고성이 발해 中京顯德府라는 학설의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大甸子城터를 요즘시기 고성으로 확정하고 이 성이 顯州라는 추론을 부정하였으며, 문헌을 인용하여 顯州가 中京顯德府와 동일지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²⁰⁾ 魏國忠·朱國忱·郝慶云도 서고성이 발해 후기의 중경 및 노주라는 견해에 대해서 중경·상경·동경의 도성을 비교하여 동일시기에 축조된 것이지 후기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²¹⁾ 田村晃一은 지금 발견된 기와를 보면, 서고성이 분명 상경으로 천도하기 전의 현주로 볼 수 없다²²⁾고 한 반면에, 宋玉彬의 서고성 발굴보고서에서는 발해상경성터의 도시건설발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건축유지의 층위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출토된 기와를 근거로 도출한 유형학적인 편년은 신뢰할 없다고 하였다.²³⁾

또 하나 주목해 볼만한 견해는 바로 중경의 치소는 해란강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하남둔고성, 즉 허래성이며, 후기에 중경이 강북의 서고성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사료에 현주에 앞서 노주가 수주로 기록되었다는 주장²⁴⁾이다. 문헌에 기록된 오경 가운데 顯州는 중경의 관할에 속한다. 발해는 일찍이 한번 顯州에 도읍을 했었는데 일반적인 제도에 따르면, 顯州는 당연히 중경의 首州이어야 하나, 문헌에 기록된 중경이 관할하는 주 가운데 盧州가 중경의 수주로 되어 있으며, 顯州는 盧州의 다음인 두 번째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중경이 처음부터 서고성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어디인가에서 옮겨왔고, 그 유력한 후보지는 海蘭江 남쪽의 河南屯古城이라는 견해이다.

서고성에 대한 연구는 청나라 말에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네 단계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논쟁의 중점

13) 齋藤優, 1954, 「問島省海蘭平原の渤海遺蹟」, 『考古學雜誌』40-1, 日本考古學會 ; 2007,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17쪽 ; 鳥山喜一, 1948, 「渤海中京考」, 『考古學雜誌』34-1, 日本考古學會 ; 和田清, 1954, 「渤海國地理考」, 『東洋學報』36-4 ; 楊雨舒·蔣戎, 2008, 『唐代渤海國五京研究』번역본, 香港亞洲出版社 69~70쪽.

14) 孫進己, 馮永謙 主編, 『北方歷史地理』(제2권), 黑龍江人民出版社, 1989, 371~372쪽.

15) 이에 대한 논의는 楊雨舒·蔣戎, 2008, 『唐代渤海國五京研究』, 香港亞洲出版社 70~71쪽 ; 楊雨舒, 2009, 「近30年代唐代渤海國五京研究綜述」, 『社會科學戰線』2, 133~134쪽.

16) 鳥山喜一, 『발해사상의제문제』, 139~140쪽.

17) 駒井和愛, 1979, 『中國都城·渤海研究』 ; 方紅象 역, 1993, 「渤海文化史上的兩個問題」, 『黑龍江文物叢刊』3, 109쪽.

18) 孫進己, 1994, 「渤海國的疆域與都城」, 『高句麗渤海研究集成』5, 中州古籍出版社, 341쪽.

19) 朴龍淵, 1983, 「關於渤海中京問題的商榷」, 『延邊文物資料匯編』, 107쪽.

20) 李健才·陳相偉, 1982, 「渤海的中京和朝貢道」, 『北方論叢』1, 75쪽.

21) 魏國忠·朱國忱·郝慶云, 2006, 『渤海國史』, 109~110쪽.

22) 田村晃一, 2001, 「渤海瓦當文樣における若干考察」, 『青山史學』 ; 田村晃一, 2002, 「渤海瓦當論再考」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第47輯 第4分冊 ; 2003, 『歷史與考古信息-東北亞』2期(中譯文)

23) 宋玉彬 主編, 2007,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17쪽.

24) 임상선, 2006, 「발해의都城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學報』24, 한국사학회, 305쪽.

은 바로 중경도성의 소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중경 도성소재지 위치비정문제는 다시 몇가지 설로 대별되는데, 우선은 중경이 현재 길림성 화룡시에 위치한 서고성인가에 대한 논의이고, 다음으로는 중경소재지가 서고성이라고 인정할 경우 중경의 수주가 현주인가 노주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경 서고성이 현주인가 노주인가에 대한 논의는 1)현주→노주로 옮겨졌다는 설, 2)현주→노주로 이전했지만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설, 3)중경서고성은 현주가 아닌 노주라는 설, 4)중경 서고성은 현주라는 설, 5)노주는 河南屯古城이라는 설 등으로 나뉜다. 이상의 논의는 서고성이 顯州이든 廬州이든 간에 어떤 성에서 西古城으로 옮겨왔거나, 서고성에서 하남둔고성으로 옮겨갔다는 것으로, 그 위치가 옮겨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현재 보고된 발굴성과에 근거하면 서고성은 중원의 도성계획을 철저히 반영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 주변에서 이와 같이 계획적이거나 정제된 도성건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서고성에서 하남둔고성 등 다른 도성으로 옮겨갔다는 점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은 바로 이러한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Ⅲ. 서고성 발굴과정과 궁전구조

발해는 4번에 걸쳐 도읍을 옮겼다. 구국에서 중경으로,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중경으로, 그리고 다시 동경에서 상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도읍한 시간도 구국에서는 698~742년까지 44년간, 중경에서는 742~755년까지 14년간, 상경에서는 755~785년까지 30년간, 동경에서는 785~793년까지 8년간 도읍한 이후 다시 794년 상경으로 환도한 이후 멸망할 때까지 130년간을 더 도읍하였다.

발해 中京顯德府는 발해문왕이 천보년간에 도읍했던 곳이다. 발해가 건국한지 40여년이 흘러 구국에서 처음으로 옮긴 곳이 바로 이곳이다. 발해 중경지에 대해서는 하남둔고성설과 서고성설이 있지만, 1980 연변박물관에서 용두산에 위치한 발해 문왕의 넷째딸 정효공주묘를 발굴하면서 현재는 서고성설이 정설화되어 있다. 중경천도의 문헌근거는 『신당서』 「지리지」의 “……顯州 天寶中 王所都”라는 기록과 『武經總要』의 “……顯州 渤海國 按皇華四達記 唐天寶以前 王所都”라는 기록이고, 고고학적인 근거는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址田野考古報告』이다.

서고성 발굴은 1923년 鳥山喜一에 의해 시작된 이후, 10여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러함에도 발굴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성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이었다. 서고성 발굴은 길림성 “10차 5개년계획” 고고계획의 “길림성 경내 발해도성지연구”과제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文物處·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市博物館으로 구성된 연합고고대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되었다. 이것은 1923년 서고성이 처음 발굴된 이후 80여년이 흐른 뒤이다. 10차 5개년 계획기간 길림성 중점고고사업으로 진행된 서고성 발굴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04~2005년에 다시 대유지보호계획의 일환으로 발굴되었다. 5년간 이루어진 「발굴상황」과 「서고성 구조현황」²⁵⁾은 다음과 같다.

25) 서고성 구조에 대한 아래의 설명은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址田野考古報告』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표 1> “10차 5개년계획기간” 서고성 발굴현황

발굴장소	발굴년도	발굴일시	발굴기관	발굴자
외성 남문지	2000	9/13~11/2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연변자치주문화국 문물처 연변자치주박물관 화동시박물관	宋玉彬, 李强, 朴潤武, 劉戰學, 朴鐘鎬, 李明宏, 崔永日, 尹仁九
1호 공전지 서쪽 회랑	2001	5/11~11/18		宋玉彬, 王志剛, 李强, 朴潤武, 全仁學, 劉戰學, 朴鐘鎬, 趙昕, 王麗, 張譽, 潘晶琳, 谷德平, 崔永日, 李明宏, 張玉春
1호 공전지 동쪽회랑 2호 공전지 3호 공전지 내성 동벽	2002	5/23~11/20		宋玉彬, 王志剛, 全仁學, 朴潤武, 劉戰學, 朴鐘鎬, 趙昕, 李明宏, 谷德平, 張玉春, 張小輝, 趙明星
외성 남문지 서벽구멍		8월		朴潤武, 王志剛, 朴鐘鎬
4호 공전지	2004	7/25~10/25		宋玉彬, 王志剛, 全仁學, 朴鐘鎬, 朴潤武, 張玉春, 谷德平, 張立新, 賈瑩, 劉洋
5호 공전지 4호 공전지 서쪽우물 내성북부 동서향 격벽	2005 2005	5/19~10/10		宋玉彬, 王志剛, 全仁學, 朴鐘鎬, 朴潤武, 谷德平, 任蕾, 張玉春, 王新勝, 李丹, 張立新, 劉洋, 李明宏
발굴자료정리		10/11~12/10		

<표 3> 발굴된 서고성 구조현황

발굴장소	발굴규모 (동서×남북×높이(m))	면적 (㎡)	탐색경수 (10×10m)	층 위 (cm)	조사 방법	축조 기법	특징
외성 남문지	동서 42.3	543	4개	1층 표토층 20 2층 교란층 판축벽 강자갈층 10 지하기초층 3층 발해시기 지면	절개	판축	
1호 공전지	41×22.5~25.5×0.7~1.05	3600	30개	1층 퇴적층 2층 퇴적층 3층 발해시기 지면		판축	탐색경 확정(3개) 포함 판축층 6층과 강자갈층 5층 교대축조 홍갈색, 흑갈색, 황갈색토로 판축 산수(散水) 및 토진석(土衬石) 유존
서쪽회랑	12.6~12.9×61×12~45cm	1200	5개	1층 강자갈층 2층 판축층		판축	기단 14열, 세로 3열의 건축구조 강자갈층으로 이루어진 원형기초 존재 배수구유적 존재
동쪽회랑	12.5×63×10~40cm					판축	기단 14열, 세로 3열의 건축구조 기단 가장자리에 강자갈층 유존 배수유적 존재
2호 공전지	27~27.5×15~15.5×0.15~0.3			2층의 교란층 발해시기 지면		판축	흑갈색 사양토층과 강자갈층 교대축조 황장방향 구조 기단부분에 기단층 존재
동쪽배전	22.5×13.5×0.21			홍갈색판축층 강자갈층		판축	황장방향 구조 판축층과 강자갈층 교대축조하였으나 현재 두 층만 잔존 9개의 암주초석 흔적이 남아있음
서쪽배전	22×14×0.2			1층 홍갈색판축층 2층 강자갈층 3층 흑갈색사양토 판축층 4층 강자갈층		판축	황장방향의 측면 2칸 건축물 토진석(土衬石) 유존
12호 공전지 남도	서쪽 폭 6.2, 최고높이 0.4 북쪽 길이 12					판축	토진석(土衬石) 유존
3호 공전지	27.8×18×0.15~0.52			2층의 퇴적층 발해시기 지면			외랑>주실>내랑의 건축구조
내성 동벽	기단 너비 2.65 잔고 0.52~0.58	24	8×3 1개	1층 갈색점토층 3~8 2층 짙은 갈색점토층 15~17 3층 흑갈색토층 2~4 4층 갈색토층 3~10 5층 흑갈색토층 2~5 6층 갈색토층 5~10 7층 흑갈색토층 2~5 8층 회갈색토층 3~8 9층 흑갈색모래층 3~17	절개	판축	기초층>강자갈층과 판축층 교대축조
외성 남문지 서벽 구멍	동서 22		4개				판축성벽/성문흔적 미발견
4호 공전지	26.7×18.2×0.1~0.4			1층 기와벽돌퇴적층 2층 기단층 3층 발해시기 지면		판축	외랑>주실의 측면 2칸 구조 두 줄의 연도말린 난방시설 발견
서쪽우물		49㎡	11×4 1개	1층 흑갈색농토층 2층 점토층			서쪽으로 1m 확대 방형+타원형 구조(지름 4.2m)

							3층 정자봉괴퇴적층 4층 발해시기 지면		우물층위는 내성 건물터와 동일 성서성 인유현의 인수궁 우물유적 참조	
5호	궁전지	46.7×24.5×0.35~0.45					기와 벽돌퇴적층 기단층 기단판축층 지갈층 황갈색판축층 지갈층 갈색판축층	판축	장방형의 건축구조 판축층과 강자갈층 교대축조 전면 11칸, 측면 5칸 구조	
내성	격벽		128	2개			발해시기 지면 1층 흑갈색경도층 2층 교란층 3층 퇴적층 4층 발해시기 지면	15~20 0~25 0~50 0~0.35 0~0.45 3~20	절개 판축	탐색갱 확장(1개) 포함 판축→문지→격벽

서고성터는 내성·외성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성·외성은 동일하게 남북 중축선에 위치한다. 두 성의 평면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내성은 외성 북반부 중앙에 위치한다. 성터는 남쪽에서 동쪽으로 약 10° 기울어져 있다. 외성 북벽은 길이 632m, 남벽은 길이 628.2m, 동벽은 길이 734.2m, 서벽은 길이 725.7m이며, 둘레 길이는 2720.1m이다. 내성 북벽은 길이 187m, 남벽은 길이 187.9m, 동벽은 길이 311.1m, 서벽은 길이 306.8m이며, 둘레 길이는 992.8m이다.²⁶⁾ 현재 지표면에서는 외성과 내성성벽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외성 남·동·북벽은 비교적 상태가 좋다. 잔고는 일반적으로 1.5~2.5m 정도이고, 가장 높은 곳은 4m에 이른다.

1호 궁전은 일종의 복합식 건축구조로 전체 배치는 1호 궁전지 중심건물과 그 동서 양쪽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회랑을 포함하고 있다. 기단 주체부가 횡장방형인 1호 궁전에는 북고남저의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기단은 북저남고의 형태를 띠며, 판축층과 자갈층을 교대로 쌓았다. 기단 남북 양쪽에는 판축층으로만 쌓은 문지가 있고, 기단 주변에는 바닥에 간 돌과 물받이 시설이 남아있다. 기단 양쪽에 위치한 회랑 역시 판축층과 강자갈층을 번갈아 쌓았다. 그러나 심하게 훼손되어 그 형태는 알 수 없다.

2호 궁전도 역시 복합식 구조로 중심건물과 동서 배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2호 궁전지는 1호 궁전지 북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뻗은 회랑을 통해서 1호 궁전지 북쪽과 연결된다. 평면이 역시 횡장방형을 이루는 기단 위에 축조된 2호 궁전지는 기단 아래에 보강시설이 있고 기단 남쪽에는 1호 궁전 북문과 통하는 문이 있으며, 기단 북쪽 가장자리 동서 두 모서리에 “ㄱ”시설이 있다. 파손상태가 심하여 축조시기를 알 수 없으나, 판축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호 궁전지도 1호 궁전지와 마찬가지로 판축층과 강자갈층을 교대로 축조하는 방식으로 쌓았다. 2호 궁전지 동서에 위치하고 있는 배전은 중심건물보다 기단의 높이는 낮다. 평면은 횡장방형을 이루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기단은 판축층과 강자갈층으로 교대로 축조하는 방식으로 띠고 있다. 기단 판축층 동쪽을 관찰한 결과 배전은 2호 궁전지와 동일시기에 축조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 건축물의 남쪽 선이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배전의 남쪽면이 주전보다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3호 궁전은 2호 궁전 동쪽에 동서일직선상에 위치한다. 1호 궁전구역의 동쪽 회랑이 그 북쪽에 독립된 북도로 3호 궁전과 이어진다. 3호 궁전도 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평면은 횡장방형이다. 지하에 기단 아래에 보강시설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역시 판축층과 자갈층을 교대로 쌓았다. 토친석이나 물받이시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단 위에 잔존하는 초석은 대체로 회자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기초 가운데 부분의 주초는 사자형태를 이룬다. 기초북쪽 끝에는 “ㄱ”이 있는데, 이는 3호 궁전이후에 만들

26) 이번에 발표한 서고성 내외 성벽 수치는 2005년 북경특종공정설계연구원에서 측정해서 얻은 data를 이용하였다.

어졌으나 성격은 알 수 없다.

4호 궁전은 2호 궁전터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호 궁전과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 배열되어 있다. 4호 궁전은 기단위에 축조되었으며, 기초는 횡장방형으로 판축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나 기초를 보강하는 자갈퇴적층이 발견되었다. 기단 북쪽 서편이 “ㄱ”이 있다. 대체로 기초위의 주초석 배열은 “回”자형태로 바깥쪽에는 □자형태 안쪽에는 “□□”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건축물은 사방을 회랑이 감싸고 있고 주실이 두 칸인 건축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4호 궁전 주실 내무 및 서북쪽 외랑 구역에서 난방시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다른 궁전기단과는 달리 4호 궁전 기단은 단순히 흙으로만 판축하였고, 2·3호 궁전의 규모와 비슷하지만, 건물의 구조·시설 등에서 두 주실이 하나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기초 북부에 “ㄱ”모양의 시설 등이 있으며, 1호 궁전에서 4호 궁전으로 통하는 방식과 1호 궁전에서 3호 궁전으로 통하는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정리 결과, 3호 궁전으로 통하는 초석은 다진 흙 기초 위에 있고, 4호 궁전 낭도로 통하는 초석은 당시의 지면 위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내성 북부 구역에 단독으로 자리 잡고 있는 5호 궁전지는 횡장방형의 평면이며 심하게 훼손되었다. 5호 궁전은 현존하는 흔적만으로는 정면 11칸, 측면 5칸 구조이다. 중앙부분에는 초석이 남아있지 않아 감주방식으로 지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서고성 궁전 건축중에 초석배열이 비교적 명확한 2호·3호·4호 궁전터 바깥쪽은 회랑이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 두 칸의 主室이 있다. 면적이 비교적 작아, 각각의 주실 방의 가로나 세로방향 폭이 모두 9m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5호 궁전 규모는 비교적 커서, 그 남북 폭이 12~12.5m에 달한다. 발굴 자료에 근거하면, 동시기의 중원지역에서는 이처럼 폭이 큰 궁전건축의 예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서고성터 5호 궁전터가 내성의 구조 속에 자리 잡은 위치는 발해 상경의 5호 궁전터 위치에 상응하고, 상경의 5호 궁전은 초석배열상태가 완전한, 정면 11칸, 측면 5칸 구조이다. 상경 5호 궁전터는 서고성 5호 궁전터의 구조를 복원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학자 張鐵寧은, 발해 상경의 5호 궁전이 연회를 위해 만들어진 궁전건축이라고 보았다²⁷⁾. 이러한 논조는 아직 중국 학술계에서 토론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학자 田村晃一은 그의 저술 속에서, 발해 상경의 5호 궁전에 있는 滿堂 기둥의 구조적 특징에 근거하여 장철녕의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 건축물이 『遼史』에서 말하는 ‘府庫’라고 보았다²⁸⁾.”

서고성 내성에 각 건물 유적에서는 화재로 인해 무너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궁전터에서는 간헐적으로 무너져 퇴적된 흔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각 건축물의 기초구역에서 모두 일상생활용 그릇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각종 흔적들은, 서고성 내성의 건축 유적이 자연 방치에 의해 수명을 다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고성은 남북중축선과 동서 중축선상에 위치한 “十”자형 구조이며, 그 중심에 2호 궁전이 위치하고 있어 내성은 2호 궁전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궁전기단간에는 축조법상에서 강자갈+판축층을 교대로 축조한 궁전, 즉 1호·2호·3호·5호 궁전이 있는가 하는 반면, 판축층만으로 축조한 4호 궁전이 있고, 1호 궁전에서 3호·4호로 연결된 회랑의 초석위치에서도 판축층위에 있는 동랑에 비해 서랑은 발해시기 지면에 직접놓여 있고, 2호·4호 궁전 기단 아래에는 다른 궁전지에서 보이지 않는 자갈층의 보강시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5호 궁전에서는 상경서 5호 궁전과는 달리 감주기법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서고성의 축조시기의 선후를 반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7) 張鐵寧, 1994, 「渤海上京龍泉府宮殿建築復原」, 『文物』, 1994년 제6기.

28) 田村晃一, 2005, 「渤海上京龍泉府址의考古學的檢討」, 『東アジア都城と渤海』, 재단법인 동양문고.

IV. 도성제 변화에 대한 비판

상술한 서고성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서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2중성이고, 외성 남문, 서고성 외성의 중심점인 내성 남문, 1·2·5호 궁전이 중축선상에 위치하며, 4·2·3호 궁전은 내성 동서중축선상에 위치한 “十”자형 배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1~4호 궁전과 5호 궁전이 내성 격벽에 의해서 나뉘며, 2호 궁전은 내성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서고성의 내성 궁전에서 중심점인 2호 궁전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4호 궁전, 동쪽에는 3호 궁전이 있으며, 각 궁전마다 배전이 딸려 있는 점도 주목된다. 건축기법상으로 보면 궁궐유적은 모두 관축층과 강자갈층을 번갈아 쌓았는데, 유독 4호 궁전만은 흙으로만 관축하였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일부 궁전기단에서는 기단 아래쪽에 자갈로 강화시설을 만들었던 흔적도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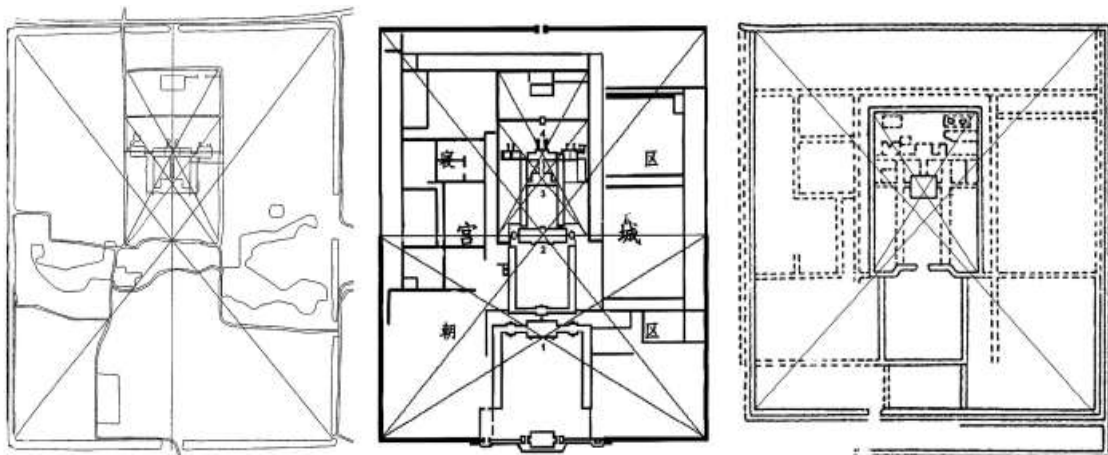
서고성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서고성』 발굴보고서에서는, 중국고대 도성은 정무를 보는 외조가 남쪽에 위치하고 생활하는 내정이 북쪽에 위치하며 정전이 남쪽에 위치하고 후궁이 북쪽에 위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원 漢 문화의 도성형식을 “모범으로 삼아서” 세운 계획도시로서, 중심선을 명확히 하고 대형건축물을 좌우대칭구조로 세우는 건축이념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²⁹⁾ 따라서 이성터의 도성건축 개념이 중원 한문화 도성 건축개념의 선진적 경험과 자양분을 흡수하여 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인식하였다.³⁰⁾ 이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서고성의 내성구역은 발해 상경용천부 궁성의 3호에서 5호 궁전터 구역의 건축구조, 건축형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상경성 궁성의 건축계획의 서고성 내성 구조의 복사품이며, 서고성 내성 건축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인식하였다.³¹⁾ 따라서 서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경성 등 제성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고성 발굴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서고성의 외형과 그 이후 천도가 이루어진 상경성, 그리고 동경성과 외형적인 유사성에 근거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서고성의 구조에 근거하여 상경성의 계기적 발전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바로 구국이후의 발해도성의 평면도이다.

<그림 16>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



29)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외, 2007, 『西古城 번역본』, 문물출판사, 451쪽.

30)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외, 2007, 『西古城』, 문물출판사, 340쪽 ; 번역본, 490쪽.

31)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외, 2007, 『西古城』, 문물출판사, 340쪽 ; 번역본, 490쪽.

서고성의 건축구조는 중축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내성에는 5기의 궁전이 “十”자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중에서 1·2·5호 궁전은 남북으로 차례로 중축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4·2·3호 궁전은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순서대로 교차한다. 내성 남문지는 전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궁전지의 내성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발해인들이 서고성을 축조할 당시의 이미 성숙한 도성조영관념을 지니고 있었고,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영되었음을 의미한다.³²⁾ 또한 팔련성의 경우도 대각선의 교차점이 남문과 1궁전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고성의 내성과 비교할 때 팔련성의 내성이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또한 팔련성의 내성 북쪽에는 격벽에 의해 구별된 서고성이나 상경성과는 달리 상경성 5호 궁전지 북쪽과 같은 단독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상기의 도면을 보면, 서고성은 내성에서 2호 궁전지가 중심이고, 격벽남쪽으로는 1호 궁전지가 중심이며, 외성 중심점에는 내성 남문지가 위치한다. 이에 비해서 상경성은 내성에서 4호 궁전지가 중심점에 위치하고 격벽 남쪽에서는 3호 궁전지가 중심점에 위치하며, 궁성 전체에서는 2호 궁전지가 중심에 있다. 팔련성은 내성에서 1호 궁전지가 중심점에 있고, 외성전체에서는 1호 궁전지 남쪽 중간에 그 중심에 위치한다. 상기의 도성이 서고성과 같은 계획에 의해서 조영된 것이라면 서고성의 2호·상경성의 4호·팔련성의 1호, 격벽 이남의 서고성 1호·상경성 3호는 동일한 관념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왕의 문치가 가장 성행했을 당시에 조영된 팔련성의 경우는 오히려 내성이 외성 중심점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고, 서고성의 내성은 외성 중축선에서 그 북쪽에 위치한다. 당 장안성이 중축선 배치와 내성이 중북부에 위치한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서고성에 비해 팔련성의 구조가 더욱 고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상경성과 비교할 때도 팔련성 내성 북쪽에 위치하는 독립된 공간은 상경성 5호 궁전지 북쪽의 독립된 공간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두 도성이 상호간에 승습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선후관계는 역시 도성의 조영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상경성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문헌기록에 근거하면, 발해가 서고성에서 상경성으로, 그리고 다시 팔련성으로 천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 세 도성은 같은 설계관념에 의해서 축조되었고, 상호간의 조영시기도 그다지 멀지 않다는 점에는 그다지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매우 주목되는 것은 바로 상경성 발굴결과 상경성의 1·2호 궁전과 2·3호 궁전 사이의 탐색개 단면에서 뚜렷한 시기적인 선후차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초석 배열상태도 1호 궁전이 3호 궁전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다³³⁾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상기의 도성의 평면도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상경성은 3~5호 궁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에서 1~2호 궁전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1~5호 궁전이 동일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상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해 상경성이 국력의 변화에 따라 “문왕이 상경으로 천도한 시기에 3호 궁전을 중심으로 한 3~5호 궁전지가 축조되었을 뿐이고, 동경에서 상경으로 환도한 성왕 강왕시기에 비로소 궁성과 황성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발해가 해동성국을 불리게 되는 선왕과 대이진 시기에 이르러서야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성건축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³⁴⁾라고 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발해 말기는 “문치”가 최대로 성행했던 시기이므로, 발해 중기에 조영된 상경성이 서고성보다는 크고 팔련성보다는 규모나 구조적인 면에서 작다는 전제하에, 상경성의 규모를 추정하였기 때문이다.³⁵⁾

만약 劉曉東의 경우 발해의 상경성의 완비시기는 10대 대인수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문왕 대 흠무시기와 성왕·강왕시기를 걸쳐 대인수시기에 제도적으로 완비되었고, 당나라 장안성에서 구현하고

32) 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建制研究」, 『北方文物』4기, 북방문화잡지사, 21쪽.

33) 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建制研究」, 『北方文物』4기, 북방문화잡지사, 21쪽.

34) 劉曉東·魏存成, 1987, 「渤海上京城營築時序與刑制淵源研究」, 『中國考古學會第6次年會文集』, 文物出版社, 570~577쪽 ; 劉曉東·魏存成, 1991, 「渤海上京城主體格局的演變—兼談主要宮殿建築的年代」, 『북방문화』1, 50쪽 ; 이종수, 2009, 「渤海 西古城 發掘現況과 그 意義」, 『고구려발해연구』34, 237쪽.

35) 劉曉東, 2006, 「발해문화연구-고고학상의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내부자료)」, 흑룡강인민출판사, 94쪽.

있는 도성의 원리가 체계화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해 도성제의 완비는 상경성이 3중성제를 이룬 9세기 중반에야 가능할 것이다. 발해 상경성의 구조 변화를 발해의 국력확장과 연계시킨 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발해가 상경으로 천도할 때 사전 계획없이 도성을 쌓았으며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지금과 같은 형태의 3중성으로서 완성되었다는 결론은 발해의 국력과 도시 건설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⁶⁾

발해도성을 장안성과의 관련성에서 검토할 때 입론의 근거는 바로 상경성의 3중성이다. 그런데 실제 서고성이나 팔련성의 경우는 3중성이 아님에도 3중성이라는 암묵 또는 상경성이 이중성에서 삼중성으로 확대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경성이 3중성제의 구조를 갖춘 9세기 중반에야 이르러 장안성과의 비교가 가능해지므로 상경성 조영의 완비 이전의 서고성과 팔련성의 도성체제를 장안성의 체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서고성의 축조기법은 매우 정교하다. 또한 서고성에는 궁성에서만 발견되는 녹유와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서고성의 경우는 외성에서 내성 남문지가 중심점이며, 내성에서는 2호 궁전지가 중심점이다. 그러나 상경성의 경우는 2호 궁전지가 중심점에 위치해 있고, 다시 3~5호 궁전지를 이루는 구역에서 3호 궁전지가 그 중심점에 있다. 팔련성의 경우는 1호·2호 궁전지가 있는 중성의 중심점은 1호 궁전 남쪽에 위치하고, 다시 중성내의 내성의 중심점은 1호 궁전에 위치한다. 그 유형의 유사점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서고성시기에 장안성 체도를 완벽하게 구사하였다면, 천보 중 또는 정원연간 도성이 되었던, 이후 다시 도성으로서의 위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고성과 팔련성은 그 형태나 구현방법에 있어서는 동일성이 엿보여야 한다. 그러나 팔련성의 경우는 이미 내성이 다시 중성과 두 개의 자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심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서고성과 차이를 보이므로 서고성의 발전과정은 동일시기의 조영과정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의 발굴과정을 거쳐서 서고성이나 상경성이 모두 어떤 청사진에 근거하여 조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록 상경성이 최초 천도당시에 외곽성까지 축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경성의 배치는 1·2·3·4호 궁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2호 궁전지가 전체 성의 중심에 위치하며, 1·2호 궁전과 2·3호 궁전사이에 뚜렷한 시기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경성의 도성건축이념의 완벽한 재현이라고 하겠다.³⁷⁾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유효동의 계기적 발전설은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경 궁성이 이루어진 시기에 이미 2·3·4호 궁전을 중심으로 한 3조제의 도입과 전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3호 궁전의 주초배열이 1호 궁전지의 것보다 약간 늦은 것은 이 궁전들이 모두 동일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상경성 궁성과 비교하여 서고성과 팔련성의 침전구역은 비교적 완벽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정대소사를 처리하는 구역은 간단한데 이것은 초기도성의 한계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미 두 도성시기에는 이미 기본 설계도를 근거로 공간구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궁성기단간의 축조기법의 차이는 서고성의 어느 특정시기에 완비된 것이 아닌 여러 시기를 거쳐서 조영된 것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용두산고분군의 최근 발굴자료가 주목된다.

서고성은 발해 문왕이 재위하고 난 후 5년만에 도읍한 첫 번째 도읍지이다. 위의 발굴보고서에 근거하면, 서고성은 중국의 도성관념을 당시로서는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평가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도성의 유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서고성의 조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시사하는데, 하나는 발해가 건국이후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중원의 당과의 관계개선의 영향으로 도성이념 체도에 대해서 매우 정통했다는 사실, 건축기술적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는 점 등은 발해의 도

36) 김기섭·김진광, 2007, 「발해의 상경 건설과 천도」, 『한국고대사연구』45, 한국고대사학회, 204쪽.

37) 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建制研究」, 『北方文物』4기, 북방문화잡지사, 21쪽.

성조영과정을 이해하고 서고성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발해가 어떻게 중원의 도성제도를 습득할 수 있었는가. 발해와 당과의 첫 번째 교류는 713년 당의 고왕 대조영에 대한 책봉이다. 이에 앞서 당 중종연간인 705년에 발해를 책봉하고자 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미 발해와 당과는 비공식적인 교류관계도 상정할 수는 있겠다. 이후 발해는 고왕과 무왕시기 영토확장에 매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발해와 당과의 마찰은 발해의 건국, 당의 흑수주 설치에 따른 발해와 당과의 전쟁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건국초기의 상황은 713년에 책봉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발해가 726년 흑수주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당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그 결과 732년 당과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발해와 당과의 정국운영은 냉전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726년 흑수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무예 등 당나라에서 숙위했던 주요 인사들이 흑수토벌에 참여하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을 통해 당나라의 중요한 제도가 발해로 전해졌음을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발해가 향후 국가의 기틀을 안정시키는데 안정화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에는 틀림없지만, 흑수토벌과정에서 대문예의 이탈이 의미하듯이 정국운영의 주류는 역시 건국집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왕은 당나라와의 전쟁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역을 확장하였고, 그 결과 동북의 오랑캐들이 모두 복종시켰다. 이것은 발해가 건국이후 추진한 영토확장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문왕 초기에도 어느 정도의 영토확장이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료가 없어 상고하기는 어렵다. 다만 문왕이 즉위하고 5년 만에 현주로 천도하였다는 것은 당시 이미 나라의 기반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그가 “문치”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발해는 외연적인 영토확장이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⁸⁾

『신당서』에서는 “처음에 그 왕이 제생을 경사의 태학으로 보내어 제도를 익히게 하였다고 하였고, 『옥해』에서도 당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된 다음 해인 개원 2년인 714년에 학생 6인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공부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책부원귀』에도 발해 왕자가 시장에 나아가 교역하고 예배할 수 있게 청하자 허락하였다”는 기록 등에 근거하면, 발해는 당나라의 선진문물과 사상 및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왕은 즉위 초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諸生을 京師의 太學에 보내어 고금의 제도를 익히게 하였고,³⁹⁾ 개원 27년인 738년에는 발해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당례』 『삼국지』 『진서』 『삼십육국춘추』를 필사해 왔다는 기록에 근거하면 문왕의 문치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다. 문왕은 재위 57년간 61회에 걸쳐 당나라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많을 때는 한해에 4~5회에 이르렀다.⁴⁰⁾ 이것은 발해가 건국이후에 지속적으로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서고성 천도가 천보중에 이루어졌다는 『구당서』의 기록과 문왕 재위 5년에 이루어진 중경천도를 결부시켜보면, 문왕대의 즉위와 동시에 도성조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

38) 김진광, 2007,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71쪽.

39) 『신당서』권219, 열전144, 발해전 : ……초기왕수전제생에경사태학 학습고금제도……. 이 기록에 대해서 김종복은 문왕 때도 유학생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료에서 발해의 학생파견이 확인되는 사례는 『구당서』 「발해말갈전」의 태화 7년조의 기록이 처음이라고 하였다(김종복, 2006, 「발해의 상경 건설과 천도」에 대한 토론문, 한국고대사학회, 12월 정기발표회). 그러나 발해와 당사이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된 다음 해인 개원 2년인 714년에 학생 6인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공부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옥해』 권153, 「조공」 외이래조 당발해견자임시조 : … 개원이년 령사도육인입학…). 그리고 발해의 왕자가 나아가 교역하고 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청한 일(『책부원귀』 권971, 「조공」4 : 말갈왕자래조 주왕 신칭취시교역 입시예배허지) 등과 결부시켜 본다면, 이후 발해는 당나라의 선진문물과 사상 및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0) 송기호, 1995, 『발해정치사연구』, 일조각, 107년. 그러나 浜田耕策은 『구당서』에 한해에 2~3번 발해사신이 왔다는 기록과 『신당서』 현종 재위 중에 29회, 대종의 대력년간에 25회의 견당사가 왔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문왕 재위기간의 견당사의 횟수를 54회로 계산하였다(浜田耕策, 1999, 「大欽茂(文王)時代-渤海の歴史的 성격-」, 『고구려연구-발해건국1300주년(698~1998)』6, 학연문화사, 72쪽).

움이 있다. 따라서 비록 문왕이 적극적으로 당의 문물제도를 취신하였다고 할지라도 중경 조영은 무왕 말부터 늦어도 문왕 즉위초에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이후 몇 차례 반복되는 천도와 문왕의 문치정책을 감안하면, 문왕의 정국운영 및 통치체제확립과정과 연관지어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⁴¹⁾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고성 발굴보고자들은 문왕시기의 첫 천도지인 서고성의 구조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조가 장안성을 모방하는데서 출발하였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실제로 서고성 자체의 분석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서고성-상경성-팔련성의 계기적인 발전에만 주목하여 서고성의 도성체제가 상경성 및 팔련성에 투영되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고, 그 결과 발해의 도성제도는 기존의 장안성의 형태를 모방하여 치밀하게 조영한 서고성의 경험이 9세기 중엽에야 완벽하게 장안성의 도성이념이 체현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바로 발해국의 역량과 문화적 수준이 당나라의 영향하에서 성장하였다는 영향론의 강조로 이해되나, 최근 용두산고분군에서 발견된 발해의 왕관과 삼채 및 각종유물에서 보듯이 발해는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공예수준만이 아니라 문화적 수준이 있었음을 능히 엿볼 수 있다. 또한 서고성에서 장안성의 도성이념을 철저히 체현했다고 한다면, 이미 문왕 즉위초년에 중국의 제도 및 도성이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선왕 대인수·대이진 시기로 특정하는 것은 논리상 납득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된 발해의 천도는 모두 문왕이 재위하던 57년간 이루어졌다. 천도의 목적이 안사의 난, 경제적 요구, 자국의 특수한 문제, 일본과의 대외교류의 목적 등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지라도 문왕이 6차례나 책봉을 받는 상황처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역동적이었고, 그것은 중원의 당나라에게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왕의 천도는 단순한 천도가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새로 복속된 지역으로의 통치력 확장 및 공고화라는 전제하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V. 맺음말

발해국은 네 번에 걸쳐 도읍을 옮겼다. 첫 번째는 천보중(742~756)에 현주로 천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천보말(755년 또는 756년)에 상경으로 천도한 것이며, 세 번째는 정원년간(785~804)에 동경으로 천도한 것이며, 문왕 대흠무가 사망한 이듬해 5대 성왕이 상경으로 환도한 것이 네 번째 천도이다. 그동안 발해국의 잦은 천도에 대해서는 도성조영과정과 관련지어 이해하였고, 또한 천도의 원인규명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계의 노력이 있었다.

발해 중경지의 구명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인 단계적 발전설이다. 위존성(魏存成)·유효동(劉曉東)은 일련의 저작을 통해서, 발해도성의 축조이념, 궁전배치발전의 변화과정의 관점에서 현주(顯州)와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가 동일하게 서고성(西古城)터라는 것을 고증하였다. 현주(顯州)는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와 동일하다는 학설은 학계에서 공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가 상대적으로 박약했기 때문이었다.

서고성터에는 두 줄의 중심선이 존재하며, 내성의 5개 궁전 건축은 “十”자 형태를 띤다. 그 중 제1·2·5호 궁전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순서대로 남북 중축선에 위치하고, 제4·2·3호 궁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서대로 내성의 동서 중축선에 위치한다. 내성 남문은 전체 성터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2호 궁전은 내성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제1·2호 궁전은 복합식 건축물로, 1호 궁전 좌우 양쪽에 동서 회랑이, 제2호 궁전 좌우 양쪽에는 동·서 配殿이 있다. 제3·4·5호 궁전은 단독 건축물에 속한다. 제1호 궁전을 중심으로 그 동·서 양쪽 회랑과 좌우 대청을 이루고 있다. 2호 궁전을 중심으로 보면, 그 동·서

41) 김진광, 2007,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75~76쪽.

양쪽의 배전도 좌우로 대칭을 이루며, 제3호와 제4호 궁전이 좌우로 대칭된다. 5개 궁전터의 기초는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파괴된 상태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각각의 흔적에 근거하면, 1호 궁전터의 기초가 가장 높고, 2호 궁전터가 그 다음이며, 3호와 4호, 그리고 5호 궁전 기초 높이는 서로 비슷하다. 그 축조방법도 자갈층과 판축층을 교대로 하여 쌓은 점은 서고성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정교하게 조영된 구조임을 알게 한다.

서고성의 건축구조는 중축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내성에는 5기의 궁전이 “十”자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중에서 1·2·5호 궁전은 남북으로 차례로 중축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4·2·3호 궁전은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순서대로 교차한다. 내성 남문지는 전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궁전지의 내성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발해인들이 서고성을 축조할 당시의 이미 성숙한 도성조영관념을 지니고 있었고,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팔련성의 경우도 대각선의 교차점이 남문과 1궁전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고성의 내성과 비교할 때 팔련성의 내성이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또한 팔련성의 내성 북쪽에는 격벽에 의해 구별된 서고성이나 상경성과는 달리 상경성 5호 궁전지 북쪽과 같은 단독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당 장안성이 중축선배치와 내성이 중북부에 위치한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내성이 외성 중북부에 위치한 서고성에 비해 외성 중심점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팔련성의 구조가 더욱 고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상경성과 비교할 때도 팔련성 내성 북쪽에 위치하는 독립된 공간은 상경성 5호 궁전지 북쪽의 독립된 공간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두 도성이 상호간에 승습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경성 발굴결과 상경성의 1·2호 궁전과 2·3호 궁전 사이의 탐색갱 단면에서 뚜렷한 시기적인 선후차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초석 배열상태도 1호 궁전이 3호 궁전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상기의 도성의 평면도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상경성은 3~5호 궁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에서 1~2호 궁전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1~5호 궁전이 동일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상정하게 한다. 그렇다면, 발해 상경성이 국력의 변화에 따라 “문왕이 상경으로 천도한 시기에 3호 궁전을 중심으로 한 3~5호 궁전지가 축조되었을 뿐이고, 동경에서 상경으로 환도한 성왕 강왕시기에 비로소 궁성과 황성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발해가 해동성국을 불리게 되는 선왕과 대이진 시기에 이르러서야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성건축구조를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한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발해 말기는 “문치”가 최대로 성행했던 시기이므로, 발해 중기에 조영된 상경성이 서고성보다는 크고 팔련성보다는 규모나 구조적인 면에서 작다는 전제하에, 상경성의 규모를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서고성은 건축기법상으로 보면 궁궐유적은 모두 판축층과 강자갈층을 번갈아 쌓았는데, 유독 4호 궁전만은 흙으로만 판축하였다는 점이라든가, 기단 하부에 보강시설을 하였든가, 동서회랑간의 초석위치에 차이가 보이는 점들은 서고성이 동일시기 동일한 관념에 의해 축조된 것이 아님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바로 서고성이 후대에도 여러차례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는 문왕이 천도했던 중경이 서고성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며, 설령 문왕이 도읍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 원형은 지금의 형태와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이번에 발간된 서고성발굴조사보고서는 2000~2002, 2004~2005년의 5년간에 걸친 고고발굴에서 얻은 자료를 수록한 진정한 의미의 고고성과이다. 보고서에서 언급하듯이 이번에 발표되는 기초적인 data는 학계의 西古城터에 대한 성격과 내적 의미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中京顯德府에 관한 학계의 연구시야를 확대할 수 있다. 서고성 발굴보고서가 발간됨으로서 발해도성에 대한 이해는 비로소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없이 진행된 성과들은 간보형태만으로 보고되었고, 일부 도성유적은 발굴조사를 거쳤음에도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도성연구는 구조적 모습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있는 상경성에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도 퍼즐맞추기 정도의 수준이었다. 서고성

에 대한 고고학적인 이해는 이 성터가 처음으로 발굴되었던 1923년 이후 80여년만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어 발해도성의 인식에 새로운 전환을 꾀하였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발해도성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앞으로 더욱 자세하고 세밀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발해 도성건설과 중경서고성” 토론편

김동우(국립중앙박물관)

발표자께서는 서고성 발굴과 보고서 발간은 발해 도성의 구조적 특징·도성간의 영향관계·중원도성과의 관계·도성지의 성격 등을 구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은 서고성 관련 연구현황 중 중경 위치비정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서고성의 구조를 파악, 상경성 등 다른 도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서고성의 구조적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경현덕부와 서고성의 관계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서고성을 중경현덕부라 비정한 것은 학계의 정설화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서고성을 顯州로 여길 것인지 廬州일 수도 있다는 학계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서고성 발굴이 현주인지 노주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성과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고성의 건립 시기와의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는 5경 제도의 성립 시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와 근거가 발표문에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대개 문왕 초기 또는 문왕 후기로 나누어져 있는 듯 한데요. 발굴보고자는 서고성-상경성-팔련성의 계기적인 발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경제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목한다면 5경의 궁전 건축(물론 도읍이 아니었던 서경의 것을 궁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계획도 또는 청사진을 바탕으로 되었다 함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5경제의 성립과 관련지어야 도성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해유적 정비현황과 문제점 - 건축유적을 중심으로 -

이병건*

-----<목 차>-----

- I. 머리말
 - II. 중국내 발해유적 현황 및 건축적 특징
 - III. 중국의 발해유적 조사 및 정비사업
 - IV. 정비에 따른 문제점 검토
-

I. 머리말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비롯한 만주지역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하기 위해 ‘東北工程’을 진행한바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古朝鮮史, 夫餘史, 高句麗史, 渤海史, 東北亞關係史, 民族問題 등에 관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역사의 틀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고구려발해학회’, ‘백산학회’를 비롯한 민간 연구 단체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만주지역 역사 가운데 발해에 관한 중국 입장은 지금의 중국영토에서 성립되었고, 패망하였으므로 당연히 자국 역사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集安과 桓因지역 고구려유적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최근에는 경제발전에 힘입어 발해유적을 대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역 경제발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적 정비는 우리입장에서 볼 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복원 방법에 있어 유네스코(UNESCO)에서 정한 유적의 진정성(眞正性, Genuineness)에 의심이 갈만큼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배제한 채, 중국 중원지역 문화만을 모델로 하고 있다. 유적의 조사 및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중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연구자들과의 공동 학술조사는커녕 접근조차 막고 있다.

중국은 발해유적 가운데 吉林省 和龍의 西古城과 貞孝公主墓, 敦化的 六頂山古墳群, 琿春的 八連城은 延邊博物館과 延邊文物管理所가 주관이 되어 발굴 및 유적정비 사업을 벌였으며, 長白의 靈光塔은 吉林省 정부에서, 黑龍江省 寧安市 上京城은 黑龍江省 考古學研究所와 黑龍江省 博物館이 각각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화룡 서고성과 영안 상경성에 관한 발굴조사보고서는 이미 출간되었고,¹⁾ 나머지 유적도 원고가 완성되어 곧 출간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해의 도성터를 비롯한 문화 유적과 유물은 여러 면에서 동북아시아의 普遍性도 가지고 있지만, 발해

* 동원대학 실내건축과 부교수

1)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발해 도성유적 발굴조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서고성과 상경성이 있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市博物館 編著,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報告書-, 文物出版社, 2009.

만의 特殊性도 있다. 또한 유형문화에 있어 중국 중원지역의 것을 채택 수용한 부분도 있지만 고구려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정비라면 올바른 복원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신중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이 자국 영토 안에 있는 발해유적을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한다면, 유적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남)북한은 당사자로서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볼 뿐 그 이상의 개입은 할 여지가 없다. 유네스코 기본정신이 교육, 과학, 문화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와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네스코 사업을 통해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 사안이 중국, 러시아, 남북한 관련 국가 사이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할 것이다.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유네스코 기본원칙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최근 2000년대 이후 중국내 발해유적 상태와 중국의 정비 현황이 어떠한지, 시기별로 변화되는 양상을 파악하여, 앞으로 어떠한 중국의 움직임이 예측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준비되었다. 과도한 경제적 논리로 유적의 원형 손상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발해유적이 정상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이번 발표를 통해 주장해 보고 싶다. 글의 전개순서는 발해의 건축유적을 중심으로 최근의 유적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적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본다. 이어 유적 정비사업을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비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마지막으로 정비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내 발해유적 현황 및 건축적 특징

1. 도성 및 궁전유적²⁾

발해는 698년 건국 이래 926년까지 수도를 네 번 옮기게 된다. 첫 번째는 구국(현 吉林省 敦化市 일대)에서 중경 현덕부(현 吉林省 和龍縣 西古城 일대)로 옮겼고, 두 번째는 755년에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현 黑龍江省 寧安市 渤海鎮 上京城 일대)로 옮겼고, 세 번째는 785년에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용원부(현 吉林省 琿春市 八連城 일대)로 옮겼고, 네 번째는 794년 동경 용원부에서 다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상경 용천부는 발해 역사 229년 중 150여 년 동안 도읍으로 이용되었다. 상경성은 당시 당나라의 장안성(長安城)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도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의 도성 유적 가운데 발굴을 통해 건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 구국(舊國) 오동성(敖東城)터와 영승유적(永勝遺跡)터를 비롯하여 중경 현덕부 서고성(西古城)터, 동경 용원부 팔련성(八連城)터, 서경 압록부 임강(臨江) 시가지성터, 남경 남해부 청해토성(靑海土城)터, 상경 용천부 상경성(上京城)터를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오동성터와 영승유적은 발해의 도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고성, 팔련성, 상경성은 발굴이 완료되어 한참 정비 중에 있다.

발해의 궁전 유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상경성 궁전터를 들 수 있다. 궁전은 상경성에서 가장 북쪽

2) 본 절은 다음 글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유적의 최근 변화양상까지 반영하여 글을 정리하였다. 이병건, 「발해의 건축문화」,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359~362쪽.

영역에 속하며, 중심 공간인 궁성 안에는 37개에 달하는 많은 건물터가 남아 있다. 상경성 궁성 공간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곳은 궁성의 중심 부분이다. 이 부분에는 궁성 남문과 북문을 잇는 일직선상에 5개의 궁전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다. 남문을 시작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며 제1궁전⇒제2궁전⇒제3궁전⇒제4궁전⇒제5궁전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건물들은 궁성 남쪽 벽에서 시작된 회랑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만 제4궁전터와 제5궁전터 사이에는 회랑이 없다. 즉, 제5궁전은 일반 궁전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모나 전통적인 도성 체계로 볼 때 제1궁전과 제2궁전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전(政殿) 공간이고, 제3궁전과 제4궁전은 편전(便殿) 및 침전(寢殿) 공간이었을 것이다. 제5궁전은 다른 궁전 건물과 달리 바닥에서 떠있는 누각식(樓閣式) 건물로 추정된다. 제1궁전터와 제2궁전터가 가장 크고 웅장하며, 제4궁전터에는 구들 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상경성은 현재 궁성 정문인 오봉루를 시작으로 제5궁전터까지와 외성 북문터를 기단부까지 복원해 놓은 상태이다.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제1궁전터까지이고 그 이후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인지 기단부 벽돌이나 먼석들이 훼손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발해의 궁전 건물들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회랑으로 이루어지는 안뜰의 폭과 길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즉, 심도(深度)를 더 깊게 하려는 의도이다. 건물 규모는 뒤로 가며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이 보편적인 반면 상경성 경우는 당시 동북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물 배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적인 도성 형태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보편적 제도를 채택하였지만, 각 건물의 배치에서는 발해만의 독특함을 가졌었다.

2. 사찰유적³⁾

발해 관할 지역에서는 사찰터, 탑터, 불상 등 불교 유적과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해의 사찰터로는 상경 용천부 지역에서 10곳, 구국 지역에서 1곳, 중경 현덕부 지역에서 17곳, 동경 용원부 지역에서 7곳, 연해주 지역에서 5곳, 남경 남해부 함경북도 지역에서 2곳, 그 외 지역에서 3곳 등 총 45개 이상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경성 내 제1사찰터와 제9사찰터가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알 수 있는 유물들도 많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형체를 볼 수가 없다.

발해의 사찰터 가운데 전체를 발굴한 곳이 없기 때문에 사찰의 배치 형식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조사된 사찰터 가운데 상경성 제6사찰터에서 보이는 배치 형식을 보면, 남쪽에 남문 자리가 있고 북쪽으로 가며 중정(中庭)을 지나 본채 자리가 있고, 본채 앞쪽 좌우로는 곁채(配殿)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있으며, 본채 뒤 54m 북쪽으로는 강당으로 추측되는 건물터가 있다. 현재 탑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동경 용원부 팔련성 동남사찰터(제1사찰터)에서와 같이 상경성 제6사찰터 앞에도 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북 일직선상에 남문, 탑, 금당, 강당을 배열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 방법은 그 시기 동북아시아의 보편적인 사찰 배치 방법을 발해에서도 그대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1사찰터와 제9사찰터에서와 같이 금당 좌우에 종루(鐘樓)와 경장(經藏)까지 한 건물 내에 결합시킨 것은 추운 겨울에 승려들 동선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구조 형식을 보면 기단 높이는 1~1.5m가 대부분으로 중원 지역 기단 축조 높이보다 훨씬 높다. 기단을 쌓은 방법은 생땅을 파고 잘 다진 다음 그 위에 흙, 모래, 돌을 번갈아 가며 다져 올리고 마감은 잘 다듬은 돌로 하였다. 기단 마감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하였고, 돌 표면은 그대로 놔둔 것도 있지만 회를 바른 것도 있었다. 주춧돌은 대부분 방형의 주춧돌에 원형의 주좌(柱座)가 1겹 혹은 2겹 새겨져 있으며,

3) 본 절은 다음 글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유적의 최근 변화양상까지 반영하여 글을 정리하였다. 이병건, 「발해의 건축문화」,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362~366쪽.

주춧돌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주좌만 한 것, 또는 바깥 기둥일 경우는 고막이를 새긴 것도 있다. 바깥쪽에 있는 주춧돌은 기둥에서 안솔림을 하기 위해 미리 약 2° 정도 안쪽으로 기울여 놓았으며, 중앙으로 가며 약간씩 안으로 들여놓아 안휘임을 하고 있다. 모서리에는 내부의 것보다 더 큰 주춧돌을 놓았는데, 이는 건물 무게가 모서리 기둥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크게 한 이유도 있지만, 귀솟음을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유적 가운데 기둥을 남기고 있는 것이 없어 정확한 기둥 형상은 알 수 없다. 다만 상경성 제2사찰터(현 興隆寺)에 남아있는 석등(石燈)으로 그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석등에서는 배흘림 형상을 볼 수 있다. 배흘림은 그리 심하지 않고, 흘림이 제일 강한 곳은 기둥 하부에서 2/5 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발해의 사찰 건물에도 배흘림 기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붕은 상경성 제1사찰터에서 발견된 2개의 치미(鷓尾)와 8개의 귀면(鬼面)으로 볼 때 사모지붕, 팔모지붕, 맞배지붕은 물론 고급의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살림집유적⁴⁾

지금까지 발해 시기 살림집터로 알려진 곳은 상경성 궁성터에 있는 서구살림집터, 궁성 내 제4궁전터와 그 옆 서쪽별채터, 궁성 남벽 3호문터 부근 집터, 훈춘(琿春)시 팔련성 제2궁전터, 훈춘시 량수진(凉水鎮) 정암산성(亭岩山城) 내 병영터, 훈춘시 훈춘평원의 영의성(英義城) 집터, 훈춘시 영안진(英安鎮) 솔만자촌(甩彎子村) 솔만자집터, 흑룡강성 영안시(寧安市) 단결촌(團結村) 단결 발해 촌락터, 훈강(渾江)시 송수향(松樹鄉) 영안촌(永安村) 영안 건축터, 소밀성(蘇密城) 내 집터, 통구령산성(通溝嶺山城) 내 집터, 함경북도 북청군 하오리 청해토성터 내 집터,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절골 발해 사찰터의 북쪽1호건물터와 금산건물터, 연해주에서 발견된 집터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살림집의 평면과 구조 형식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은 상경성 궁성 내 서구살림집터와 제4궁전터 그리고 서쪽에 있는 제4궁전 별채터이다.

발해의 살림집 유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적의 평면 구성은 3개의 방이 일렬로 늘어선 ‘—’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양쪽 침실에 가운데 다용도실을 겸한 부엌칸을 구성한 3칸 일자형 배치를 하였다. 지금도 만주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살림집들은 이러한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살림집들이 모두 남향을 하고 있다. 셋째, 기단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넷째, 본채 주위에 퇴칸을 부속시켰다. 이 지역은 겨울 기온이 영하 25℃까지 떨어지는 추운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퇴칸 구성은 필수적인 평면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ㄱ’ 평면의 긴 고래 구들을 놓고 큰 규모의 굴뚝을 설치했다.

온돌의 존재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모든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발해 건축의 특징이다. 집안(集安) 동대자(東台子) 고구려 살림집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고구려와 발해 살림집이 동일한 유형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돌의 존재, 온돌의 구조 방법, 온돌의 형태이다. 발해 살림집은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잘 결합된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러한 건축적 특징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경성 제4궁전터를 살펴보면 궁성 침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유적정비를 하면서 온돌 유적도 잘 정리 놓았다. 다만 이것도 오랜 시간이 흘러서인지 유돌 유구를 명확히는 볼 수 없었다. 그나마 원형을 갖추고 있으며, 집의 크기 또한 가능해 볼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4) 본 절은 다음 글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유적의 최근 변화양상까지 반영하여 글을 정리하였다. 이병건, 「발해의 건축문화」,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366~367쪽.

4. 24개돌유적⁵⁾

발해 관할 구역이었던 곳에서는 다른 지역은 물론 발해 전후 시대에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유적이 남아 있다. 유적은 1m 정도 높이의 돌이 1줄에 8개씩 3줄을 이루어 총 24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24개돌(二十四塊石)유적이라 한다. 발해의 24개돌유적으로 그 소재가 확인된 것은 총 12개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구국(舊國)에서 상경 용천부로 가는 길목 가운데 둔화시 부근에 4개(강동24개돌·관지24개돌·해청방24개돌·요전자24개돌)가 있고, 이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경박호 부근에 2개(경풍24개돌·만구24개돌) 등 6개가 있다. 또한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가는 길목인 가야하(嘎呀河) 연안 왕청현(汪清縣) 백초구진(百草溝鎮) 흥룡촌(興隆村)에 1개(흥룡24개돌), 두만강 연안 교통 요충지에 2개(마패24개돌·석건평24개돌), 그리고 함경도 동해안 일대에 3개(송평구역24개돌·회문리24개돌·동흥리24개돌)가 발견되었다.

이들 유적 가운데 강동24개돌유적과 해청방(林勝)24개돌유적이 최근 발굴조사가 있었다. 해청방 유적은 지표조사로 끝났지만 강동 유적은 전체적인 발굴이었다.⁶⁾ 앞 도로가 철길과 만나는 관계로 지하 도로를 내기위해 공사에 앞서 발굴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적 가까이에서 아궁이와 연도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요전자 유적은 기단부를 도로포장용 벽돌로 덮어 놓았으며, 압록강 변에 있는 마패 유적은 주변에 흩어져 있던 주춧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새로운 표시석을 세우기도 했다.

5. 석등과 탑 유적

발해는 당시의 건축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남아있는 건축 유적은 단지 몇몇 주춧돌과 기단 정도이다.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건물은 아니지만 발해의 석등(興隆寺 石燈)과 전탑(靈光塔)이 남아있어 이를 통해 발해의 건축 문화를 추정 할 수 있다.

석등은 유일하게 상경 용천부의 제2사찰터로 알려지고 있는 지금의 興隆寺(寧安市 渤海鎮)에 있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6m에 이르는 거대한 석등이다. 이 석등은 지금도 지대석(地臺石), 하대석(下臺石), 간석(竿石), 중대석(中臺石), 화사석(火舍石), 상륜(相輪)을 모두 갖추고 있다. 팔각형의 지대석 위로 연꽃(覆蓮) 모습의 원형 하대석이 있고, 그 위로 배흘림 형상의 간석이 있으며, 그 위로 연꽃(仰蓮) 모습의 원형 중대석이 있으며, 그 위로 8개의 화창(火窓)이 뚫린 화사석이 있다. 화창 사이에는 원형 주춧돌 위에 기둥이 묘사되어 있고, 기둥 머리에는 창방이 끼워져 있으며, 그 위에 주두가 있고, 그 위로는 공포가 배풀어져 있다. 처마는 각재의 서까래가 묘사되어 있는 흘처마이며, 각 지붕 끝에는 막새기와까지 표현되어 있다. 상륜은 보륜(寶輪)까지만 남아있다.

이렇듯 발해 석등에는 당시 건축물의 형상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발해의 건축은 잘 다듬은 주춧돌과 원형의 배흘림 기둥을 사용했으며, 처마를 길게 빼기 위한 잘 짜여진 공포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건축기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유적은 건물은 아니지만 발해의 건축 문화를 알게 해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발해 관할구역에서 탑이나 탑터가 발견된 유적으로는 영광탑, 정효공주무덤탑터, 마적달탑터의 3개 전탑을 비롯하여 총 1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탑으로 현존하는 발해 유적은 영광탑(靈光塔) 하나밖에 없

5) 본 절은 다음 글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유적의 최근 변화양상까지 반영하여 글을 정리하였다. 이병건, 「발해의 건축문화」,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368~370쪽.

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敦化市文物管理所, 「吉林敦化市江東, 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考古』 2009-6, 57~61쪽.

다. 영광탑은 길림성(吉林省) 장백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 내 탑산(塔山) 정상에 있다. 탑은 벽돌로 쌓은 조적식(造積式) 전탑(塼塔)으로 정면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 탑의 평면 형태는 한 변 길이가 3m 정도인 정방형의 5층탑이다. 탑이 있는 지표면 아래는 무덤통로(通道), 무덤길(甬道), 무덤칸(地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면에 노출된 부분에는 5개의 옥신부(塔身部)와 옥개부(屋蓋部)가 있고, 맨 꼭대기는 상륜부(上輪部)로 구성되어 있다.

탑은 위로 가며 점차적으로 면적을 작게 하였다. 각 층은 모두 안솔림과 체감법(體感法)이 채용되었다. 안솔림은 탑신부가 위로 올라가며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탑에 안정감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체감법 역시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탑신 높이가 위층으로 가며 점차 낮아지는 것이다. 영광탑은 안솔림과 체감법에 의거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춘 전탑이다.

영광탑은 지하에 무덤칸을 두었으며, 사리가 아닌 사람의 시신을 직접 안장했었다. 불교 수행자가 아닌 왕족 또는 귀족이 안장되었을 것으로 볼 때 당시 주변 국가의 전탑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성격의 전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탑신에서 보이는 안솔림과 옥개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처마곡선으로 볼 때 발해는 당시 주변 어떤 국가에서도 흉내 낼 수 없었던 전탑 축조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건축 장식7)

발해의 건축 장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지붕을 장식하는 기와들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기와로는 암키와, 수키와, 장식 기와인 귀면(鬼面)과 치미(鷓尾)를 들 수 있다. 이를 재료로 대별해 본다면 유약을 바르지 않은 회색 기와와 유약 바른 기와로 나눌 수 있다. 암키와는 모두 앞이 넓고 뒤가 좁다. 크기는 건물에 따라 여러 가지이며, 앞면에 무늬를 장식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수키와는 너비가 같으며 뒷부분에는 다음 수키와를 엮는 턱을 두었다. 앞부분에는 여러 형태의 문양을 넣은 막새기와들도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 등지에서 대량 발견되었다. 형태와 규모로 볼 때 중원 지역의 것과는 달리 고구려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발해의 대표적인 기와 문양은 연꽃무늬로 이 형상은 중국 중원 지역의 무늬와는 다르다.

장식 기와로 대표적인 것은 치미를 들 수 있다. 상경성 제1사찰터에서 출토된 치미는 길이가 97cm, 높이가 87cm, 너비가 39cm나 되는 큰 규모이다. 또한 상경성 제9사찰터에서 출토된 것은 길이가 91cm, 높이가 91.5cm, 너비가 36cm나 된다. 이러한 규모의 치미를 올려놓은 건물이라면 규모 또한 매우 크고 웅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면와(鬼面瓦)는 추녀마루를 장식하는 기와로 생김새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것보다 매우 입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부릅뜬 두 눈이 특 튀어나와 있고, 그 사이로 코가 우뚝 솟아 있으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규모에 있어서도 길이가 33~43cm, 높이가 23~27cm, 너비가 31~37cm로 매우 크다.

7. 발해건축의 독자성 : 전체

발해유적 발굴은 1930년대 일본이 시작한 이래, 발해 영토를 일부분씩 점유하게 된 중국, 북한, 러시아가 뒤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최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나마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발해유적에 관심을 가져왔던 각 나라들은 각기 그들의 입장에서만 발해유적을 해석하여, 발해의 독자적인 문화는 소외시키는 오류를 범해 왔다.

7) 본 절은 다음 글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유적의 최근 변화양상까지 반영하여 글을 정리하였다. 이병건, 「발해의 건축문화」,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368~370쪽.

건축 문화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후와 풍토를 포함하는 자연 환경이 최우선이며,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문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건축은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발해의 건축 유형은 위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형성되었고 발전되었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주변국들 입장은 해당 국가와의 동질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자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할 뿐 발해의 독자적인 건축 문화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발해가 가지고 있었던 건축적 특수성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된다. 상경성은 평지에 세워진 발해의 도성이었다. 평지성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반드시 산성을 겸비하고 있어,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토착 건축 문화를 더 포괄하고 있다. 또한 도성 전체 성곽 및 건물의 기단 부분은 현무암으로 쌓은 다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표면에 다시 석회를 발라 면을 마감하였다. 이러한 기단 축조는 중국 중원 지역의 특징이 아니다. 돌 표면에 석회를 바른 것은 현무암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마감하기 위한 발해 또 하나의 건축 표현 수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발해 유적에서 발견되는 주춧돌에는 기둥자리를 표시하는 주좌(柱座)를 새긴 것도 있지만, 주좌 없이 도기 제품의 기둥밑치레(柱圍) 장식을 제작하여 기둥 아래 부분을 덮었던 것도 있다. 이러한 장식은 중국 중원은 물론 한반도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발해만의 독특한 것이다. 그 이전시기 건물이 주로 평면적 장식 위주였던 것에서 발해 때에는 입체적 조각 장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단 아래 기초 부분에는 기단이 밀리지 않도록 기단 모서리에 'L' 모양의 멈추개돌을 박아 놓아 구조적 안정감을 증대하기도 하였다.

발해 건축 문화의 특수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난방 방식인 온돌의 존재이다. 북한에서는 발해의 고구려적 영향 요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온돌이다. 온돌의 사용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해 주민은 고구려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갈계도 있었다. 또한 지금도 만주 여러 지역에서는 난방 방법으로 쪽구들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온돌 문화는 고구려와 발해만의 고유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그 지역의 보편적인 건축 문화로 인정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해석일 것이다. 이렇듯 모든 건축 문화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병존하게 되며, 아무리 독자적인 것이라 해도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항상 존재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발해의 24개돌 유적과 동일한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한반도, 중국 중원, 일본 지역 어디에도 없다. 24개돌 유적은 발해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건축 유형이다. 전혀 새로운 건축 유형이 발해에 존재했다는 것은 발해 건축이 당시의 당이나 고구려와는 별개의 건축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해 자체의 특수한 건축 문화와 독자적인 건축 발전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물론 발해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고급의 건축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당조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건축 문화의 전파 패턴은 스스로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인접 국가의 선진 문화를 흡수하여 자신의 환경에 동화시켜 독자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올바른 발해 문화의 인식을 위해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문화의 양면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Ⅲ. 중국의 발해유적 조사 및 정비사업

1. 2000년대 이전⁸⁾

8) 이병진, 「考古學을 통해서 본 中國의 渤海文化 研究」, 『高句麗研究』 第24輯, 2006-6, 193~216쪽 내용을 주로

발해유적에 대해 중국이 고고 조사와 발굴을 시행한 것은 일본이 패망한 후부터이다. 1949년 8월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에서 渤海 文王 둘째 딸인 貞惠公主墓가 발굴되었다. 啓東中學과 延邊大學 歷史科가 중심이 되어 정혜공주묘와 고분 9기가 발굴되었고, 39기의 고묘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정혜공주묘에서는 당시까지 다른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묘비가 나와 발해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石雕獅子와 金銀銅鐵玉質器物 등도 수습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1953년과 1957년에도 吉林省 文物管理委員會와 吉林省 博物館 등에 의해 재차 조사되어 주변 돈화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되었다. 1957년 5월부터 8월사이에는 吉林省 文物管理委員會와 吉林省 博物館이 중심이 되고 王承禮, 蘇才, 蘇楠, 康家興, 劉紹全, 劉云和, 嚴長錄 등이 참여한 六頂山 고분에 대한 재조사와 돈화 주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⁹⁾

고분 이외 발해 건축문화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때는 해방 후인 1950년대 말부터이다. 1957년~6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吉林省 博物館, 吉林省 文物管理委員會, 敦化縣 文化課 등 세 단체가 연합하여 牡丹江 상류 발해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것이 고고학과 관련된 중국에서의 최초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조사내용은 敖東城과 城山子山城을 중심으로 한 牡丹江 상류에 위치해 있는 발해시기의 성터(산성과 평지성), 성보, 옥정산 발해무덤군 등을 조사한 것으로 1962년 王承禮는 『考古』에 이를 발표하였다.¹⁰⁾

그의 글은 대부분 발해유적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건축유적 관련 부분은 평지성 부근에 이를 보호하는 산성을 가까이 두었고, 수륙교통이 편리한 곳에 요새와 성보를 만들었으며, 24개돌유적(강동24개돌유적·관지24개돌유적·해정방24개돌유적·요전자24개돌유적)의 위치는 돈화(구국 오동성)에서 영안(상경성)으로 가는 도로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¹¹⁾

위의 발굴 결과를 계기로 1963년부터 1964년까지 중국은 북한과 ‘中朝聯合文物考古工作隊’를 결성하여 발해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사업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국어와 한국어 공동으로 출판하기로 했으나 북한에서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라는 보고서를 단독으로 먼저 출판하였고¹²⁾, 중국 측은 당시에 못하다가 30여년이 지난 1997년이 돼서야 『六頂山与渤海鎮』이란 제목으로 유적·유물 보고서를 출판하였다.¹³⁾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사회가 혼란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는 1997년에 출판된 『六頂山与渤海鎮』의 [編后記]를 통해 보고서의 출판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고서는 李殿福이 옥정산 무덤군을, 王仲殊가 상경용천부 유적 부분을, 謝端琚가 대주둔 무덤군을, 謝端琚·孫秉根·楊虎担이 옥정산과 상경 용천부에서 출토된 유물 부분을 집필했다. 보고서는 1965년 가을 초고가 완성되었는데 “十年動亂”(문화대혁명)으로 사업이 중단됨과 동시에 출판도 못하게 되었다. 1988년 9월 본 보고서가 ‘國家社會科學重點研究課題’로 선정되면서 孫秉根의 도움아래 王仲殊가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벌였다. 개정작업에서는 옥정산 고분군에 대해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첨가되었으며, 옥정산 고분군과 상경용천부에 관련된 도면들을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첨가했다고 한다.¹⁴⁾

옥정산 고분군의 경우는 제1묘역에서 5기, 제2묘역에서 15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다. 총 20개의 고분은 모두 8세기 발해시기 무덤으로 종류는 石室墓와 土壙墓이다. 고분의 부장품과 구조형식으로 볼 때 같은 시기의 귀족무덤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다.¹⁵⁾

참고.

- 9) 韓圭哲, 「現代 中國의 滿洲地域史研究」, 『中國問題研究』 9, 慶星大中國問題研究所, 2002, 6쪽.
- 10) 王承禮, 「吉林敦化牡丹江上游渤海遺址調查記」, 『考古』, 1962-11.
- 11) 王承禮, 「吉林敦化牡丹江上游渤海遺址調查記」, 『考古』, 1962-11, 575~580, 584쪽.
- 12)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 1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与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 1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与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125쪽.

상경 용천부의 경우는 유적·유물 조사와 발굴을 통해 외곽성과 궁성의 구조와 범위, 성 내부 거리와 시가 및 궁전, 관청, 사원 등 건축물의 분포를 분명히 했고, 나아가 발해 상경성의 전체적 규모와 구조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¹⁶⁾

1980년대 들어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살펴보면 1981년부터 1984년까지 黑龍江 省文物考古工作隊와 牡丹江地區 文物管理站 그리고 寧安縣 文物管理組成聯合考古隊가 연합하여 발해 상경성의 궁성 남문터, 제1궁전터와 그 회랑, 성벽터 등을 발굴하였다. 발굴을 통해 과거 일본인이 발굴한 내용 가운데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많은 유물을 수습하여 발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몇 편의 글을¹⁷⁾ 통해 발표되었지만 전체 발굴성과에 대한 전문적인 보고서는 당시까지 나오지 않았었다. 또한 이어서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상경성 유물박물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도 소규모로 관청터를 비롯한 발해유적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갔다.¹⁸⁾

198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각 省·市·縣 단위로 유적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文物志』로 연속해서 간행하였다. 吉林省 文物志編纂委員會에서는 내부 자료로 1982년부터 1988년 사이에 47개 市·縣의 문물지를 출판하였다.¹⁹⁾ 1991년에는 이를 종합하여 『吉林省志』 文物志編(吉林人民出版社, 1994)을 출판하였고, 1993년에는 國家文物局에서 『中國文物地圖集』 吉林分冊(中國地圖出版社, 1993)을 발간하여 자료의 종합화, 체계화를 꾀하였다. 이와 동일한 작업은 흑룡강성에서도 진행되었다.²⁰⁾ 『依蘭縣文物志』 같은 현 단위 문물지가²¹⁾ 간행되었고, 『黑龍江區域考古學』과 『牡丹江市文物保護單位保護區規劃』, 『黑龍江省志』(文物志) 등이²²⁾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흑룡강성은 길림성만큼은 많은 문물지가 나오지는 못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국 고고학 분야에서 발해문화를 연구하는 모범적인 성과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발해사 복원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990년대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살펴보면 1997년도를 기해 상경성과 그 주변에 대한 발굴을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1961년 중국 국무원에서는 상경성 발해유적을 ‘全國第一比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하였다. 黑龍江省 文物管理委員會에서는 지정된 문화유산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가 앞장서고 吉林大學 考古學系와 牡丹江市 文物管理站이 참가하는 ‘연합유적유물 조사단’을 조직해 1997년을 시작으로 상경성 궁성터를 위주로 각종 유물에 대한 탐사와 발굴을 진행하였다.

발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渤海上京龍泉府城址7年發掘規劃’을 제정하였다. 첫 단계의 발굴은 주로 9곳에서 진행되었다. ①외성 북쪽 성벽의 동쪽 부분에 위치한 外城第11号門址, ②내성 부근 동북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內城夾牆址, ③내성 밖 동쪽에 위치한 第8号路基址,²³⁾ ④상경성 내 白廟子村 동쪽 부근에서 발견된 舍利函,²⁴⁾ ⑤상경성 외성의 북쪽 중앙에 위치한 外城北垣中央門址,²⁵⁾ ⑥第2号宮殿

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与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42쪽.

1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六頂山与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124쪽.

17)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渤海上京宮城第 2, 3, 4號門址發掘簡報」, 『文物』, 1985-11; 趙虹光, 「渤海上京龍泉府址調查發掘工作的回顧」, 『北方文物』, 1988-2.

18) 李陈奇·趙虹光, 「渤海上京城考古的四个阶段」, 『北方文物』, 2004-2, 45~46쪽.

19) 각 市·縣의 文物志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韓圭哲, 「中國의 渤海 遺蹟-吉林省을 중심으로」, 『白山學報』48, 1997, 197~258쪽.

20) 黑龍江省的 渤海遺蹟 내용은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韓圭哲, 「中國 黑龍江省的 渤海 遺蹟」, 『汕頭史學』8, 高麗學術財團, 1998, 81~119쪽.

21) 黑龍江省文物志編修辦公室, 『依蘭縣文物志』, 1988.10.

22) 譚英杰·孫秀仁·趙虹光·干志耿, 『黑龍江區域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牡丹江市文物管理站·牡丹江市土地管理局, 『牡丹江市文物保護單位保護區規劃』, 1992.; 黑龍江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纂, 『黑龍江省志』(第53卷 文物志), 1994.

23) ①, ②, ③의 발굴결과는 다음 글에 실려 있다.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牡丹江市文物管理站, 「渤海上京龍泉府址1997年考古發掘收穫」, 『北方文物』, 1999-4.

址,²⁶⁾ ⑦第3号宮殿址,²⁷⁾ ⑧第4号宮殿址,²⁸⁾ ⑨第5号宮殿址²⁹⁾의 발굴이었다. 상경성 유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7개년발굴계획에 의거 발굴 및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정식 발굴보고서는 2009년에 출간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는 상경성 유적 개발 계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 9월 동경성진 정부의 위탁으로 哈爾濱工業大學 都市規劃設計研究院이 동경성진과 발해진의 전체 도시계획을 맡았다. 唐 시기의 건물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 중세의 옛 성터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개발계획의 목적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이에 주변 관광지역(경박호·현무호)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 둘째 목적이다.³⁰⁾ 즉, 보호성 개발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발해유적은 장기적인 고고발굴과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발해진 전 거주 인구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계획도 있어 개발에 앞서 중국도 인정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완벽한 준비가 따랐으면 한다.

2.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 기본적인 발굴이 완료된 유적은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들어갔다. 상경성 지역, 육정산 고분군과 성산자산성(동모산)을 비롯한 발해 초기유적, 화룡 서고성 지역, 훈춘 팔련성 지역, 영광탑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발해유적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각 기관들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유적에 대한 발굴 작업도 동시에 수반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발해유적에 관해 ‘중점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채 대대적인 유적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상경성의 경우는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가 주축이 되어 장기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화룡 서고성과 정효공주묘가 있는 용두산 발해무덤군, 돈화 육정산 고분군, 훈춘 팔련성 등은 延邊博物館과 延邊文物管理所가 맡아 하고 있으며, 장백현 영광탑은 길림성 정부 직접 관리 아래 발굴이 완료되어 각 유적별로 정비 및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화룡 서고성에 관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2007년 이미 출판되었으며, 2009년에는 상경성 발굴조사보고서가 출간되었으며, 나머지 유적에 대한 보고서도 올해 출판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부터 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에서는 ‘발해유적 발굴조사와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제안 했는데, 중국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금 지원에서 15년간 중대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이 센터는 15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와 연합하여 발해 초기 도읍지로 알려져 있는 돈화 일대의 발해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을 보면 발해 초기 도성으로 알려져 있는 오동성과 성산자산성 그리고 영승유지에 대해 1960년대와 1980년대에 이루어진 조사내용을 고찰한

24) 徐秀云, 「渤海故地再次发现舍利函」, 『北方文物』, 2008-2.

25) 외성 중앙 북문은 기단부분까지 복원되었다.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牡丹江市文物管理站, 「渤海上京龍泉府外城正北門址發掘簡報」, 『文物』, 2000-11.

26) 상경성 제2궁전터도 기단부분까지 복원이 완료되었다.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牡丹江市文物管理站, 「渤海國上京龍泉府宮城第2殿遺址發掘簡報」, 『文物』, 2000-11.

27) 상경성 제3궁전터도 기단부분까지 복원이 완료되었다.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牡丹江市文物管理站, 「渤海國上京龍泉府宮城第3殿遺址發掘簡報」, 『考古』, 2003-2.

28) 상경성 제4궁전터도 기단부분까지 복원이 완료되었다.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 「渤海國上京龍泉府宮城第4殿遺址發掘簡報」, 『考古』, 2006-9.

29) 상경성 제5궁전터의 경우 제1궁전~제4궁전까지의 건물 구조와는 다른 ‘滿堂柱礎’ 형식의 건물로 기단부분까지 복원이 완료되었다.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 「渤海國上京城第四階段發掘主要收穫」, 『文物』, 2009-6.

30) 郭思維·榮瑋芳, 「古渤海國上京城遺址保護性開發研究」, 『2004城市規劃年會論文集』(上), 2004.

후 2002년 다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오동성과 영승유적에서는 발해시기의 유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해의 초기 도읍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존 동모산을 성산자산성으로 비정하고 영승유지가 평지성이거나 아니면 오동성이 평지성이냐의 기존 주장들을 전혀 인정치 않은 것으로 차후 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에서는 2009년 7월 ‘1992~1995년도 발해묘지고고발굴보고’인 『寧安虹鱒魚場』과 1998~2007년도 고고발굴조사보고인 『渤海上京城』을 출간하였다. 이에 앞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하는 『考古』 2009년 6기에는 발해유적의 발굴성과를 특집으로 실었다. 게재된 글은 ①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와 敦化市文物管理所가 공동으로 조사 발굴한 「吉林敦化市六頂山墓群2004年發掘簡報」³²⁾ ②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와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이 공동으로 조사 발굴한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簡報」³³⁾ ③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와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이 공동으로 조사 발굴한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³⁴⁾, 吉林省吉文物考古研究所와 敦化市文物管理所가 공동으로 조사 발굴한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이 있다.³⁵⁾

또한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발간하는 『文物』 2009년 6월호에는 흑룡강성 문물고고연구소에서 발표한 글인 「渤海上京城第四階段考古發掘主要收穫」이 게재되었는데, 1998~2007년간 10년에 걸친 상경성의 고고학적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³⁶⁾ 그리고 이어서 2009년 7월에 『渤海上京城』이 정식으로 출간된 것이다. 이 발굴조사보고서는 상, 하 두 권과 도면이 실려 있는 별책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굴보고 원문이 666쪽에 달하며, 사진도판은 412쪽이나 된다.³⁷⁾

발굴을 통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①第2號宮殿基址(제2궁전터), ②第3, 4號宮殿建築群基址(제3, 4궁전터), ③第5號宮殿基址(제5궁전터), ④第50號宮殿基址(궁성 동남부 궁전건축), ⑤皇城南門基址(황성남문터), ⑥郭城正南門基址(외성남문터), ⑦郭城正北門基址(외성북문터), ⑧第1號街基址(제1호도로)이다.

서고성 발굴 경위 및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2000년~2002년 길림성 ‘10차 5개년계획’ 중 고고계획의 ‘길림성 경내 발해도성지연구’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국 박물관, 연변조선족자치주 박물관, 화룡시 박물관으로 구성된 연합고고대가 3년간 서고성을 발굴하였다. 2003년에는 ‘서고성터 대유지보호계획’ 실시를 위해 청화대학이 성터 도면을 작성하였다. 2004년~2005년 ‘서고성터 대유지보호계획’을 이전보다 잘 실시하기 위해 길림성 문물고고연구소 등에서 다시 2년에 걸쳐 성을 발굴하였다. 2005년 11월 서고성터 고고발굴이 마무리될 즈음 北京特種工程設計研究院에서 서고성터 도면을 작성하였다. 그 가운데 2001년도 발굴은 ‘2001년도 중국 중요 고고 발견’에 포함되었고, 2000년~2002년도 발굴은 ‘2002년도 전국 10대 고고 신발견’에 채택되었다. 이러한 5년에 걸친 조사결과는 2007년 『西古城』³⁹⁾이란 발굴조사보고서가 출간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발해유적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첫 결과로 추정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서고성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의 배치 및 평면형식, 구조형식,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하여 명확한

31) 王培新·傅佳欣, 「渤海早期都城遺址的考古學探索」,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3. 5月 第3期.

3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吉林敦化市六頂山墓群2004年發掘簡報」, 『考古』, 2009-6, 3~14쪽.

3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簡報」, 『考古』, 2009-6, 15~22쪽.

3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23~39쪽.

3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吉林敦化市江東,林勝“二十四塊石”遺跡的調查和發掘」, 『考古』, 2009-6, 57~61쪽.

36)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城第四階段考古發掘主要收穫」, 『文物』, 2009-6, 51~61쪽.

37) 黃勇, 「1998~2007년도 고고 발굴조사 보고 <발해상경성>」, 『東北亞歷史論叢』 27호, 2010년, 387~388쪽.

38) 이병진, 「화전 소밀성과 화룡 서고성의 건축형식 비교연구」, 『高句麗渤海研究』 第34輯, 2009, 260쪽.

3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市博物館 編著,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인식을 얻게 되었다. 2009년 5월 기준 서고성은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길림성 훈춘시 팔련성의 최근 발굴은 2004년에 지표조사를 하면서부터이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내·외성 성벽 및 내성 남문터 이외에 내성 북부 중앙에 남북으로 줄지어 서있었던 건축지 두 곳이다. 2004~2006년 발굴에서 이 두 건축 기반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1호 건물지와 2호 건물지로 이름을 붙였다. 이 중 1호 건물지 중심건물 및 그와 연결된 1, 2호 건물지 회랑은 2004년 7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으며, 2호 건물지 동·서전과 동서 양쪽 회랑 북부는 2005년 6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발굴하였다.⁴⁰⁾ 2009년 5월 기준 팔련성은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다.

IV. 정비에 따른 문제점 검토

2006년 길림성은 ‘十一五’(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2006~2010년)의 일환으로 성 자체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발해와 관련된 것으로는 돈화시 ‘발해 유정산명승지 종합개발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투입될 투자액은 12,000만 위안이다.⁴¹⁾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주정부의 경우 2020년까지 진행되는 관광산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관광상품으로는 지역적, 지리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민속관광, 국경관광, 빙설관광, 도시관광이 주요 관광상품으로, 휴가관광, 생태관광, 역사문화관광이 보조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⁴²⁾ 역사문화관광 부분에 발해유적 역시 포함될 것이다. 2006년 흑룡강성 ‘당(唐) 발해국 상경용천부유지(遺址) 보호조례’와 이와 관련된 사업, 최근 목단강변장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문제 등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에는 유적의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하면서 이론적 뒷받침을 꾸준히 다져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⁴³⁾ 발해유적의 개발과 활용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총체적인 관광 자원화 정책에 맞추어 앞으로 더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 과정에서 주시할 것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 문제와 중국 발해사 연구에서 들어나는 인식이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는 문제이다.

앞으로도 중국의 발해유적에 대한 연구 인식과 개발추진 방향은 쉽사리 바뀌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인식차를 극복하고 발해유적의 난개발을 막고, 올바른 역사적 위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접근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발해의 역사 귀속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양국 연구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요소들은 우선 배제하고 객관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한 후 발해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발해 자체의 성격규명을 위해 주변 지역과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구해 나간다면 역사귀속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발해유적 발굴 및 고고 조사는 학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중

4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 邊疆考古研究中心, 「吉林琿春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 2009-6, 15~22쪽.

41) 곽광의, 「중국의 한국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실태와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핫이슈, 2008.05.28일자.

42) 김은국, 「중국의 발해 역사유적 문화유산 활용 추이와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핫이슈, 2007.07.23일자

43) 郭思維·榮珥芳, 「古渤海國上京城遺址保護性開發研究」, 『2004城市規劃年會論文集』(上), 2004 ; 呂麗輝·王建中, 「唐代渤海國旅遊遺址規劃與環境保護-兼論如何更合理地開發利用唐旅遊文化,加強環保意識」, 『黑龍江環境通報』, 2005-2 ; 陶剛·申佐軍, 「大遺址保護若干問題的探討-就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保護而談」, 『北方文物』, 2006-1 ; 呂麗輝, 「渤海國歷史遺址探微-對渤海上京遺址景区旅遊規劃之思考」, 『學習與探索』, 2007-3 등.

국의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이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많은 발해유적이 명확한 보호대책 없이 훼손되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균등한 지역적 경제발전을 위해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문물 보호정책에 임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가 있듯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유적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거나 훼손된 예는 대단히 많다. 발전과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찌하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중국은 2004년 1년여라는 단시일의 준비기간을 통해 집안과 환인에 있는 고구려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바 있다. 이러한 선례가 발해유적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우리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며, 고구려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빠른 정비로 많은 유적들이 훼손된 반감지 않은 일도 겪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중국의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민간단체 또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가 고구려발해학회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고대사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를 한편으로 중국이 제공한 셈이다.

중국과 북한에 있는 고구려유적은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역사로 세계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발해유적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 측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발해유적을 신청한다면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 측에서 신청하여 세계문화유산이 된다 하더라도 발해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내 발해유적 현황과 유적 조사 및 정비사업 현황을 토대로 중국의 발해유적 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우리 연구 인력의 턱없는 부족과 중국 내 발해유적을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간헐적이거나 수년간 현장을 답사한 필자로서 보고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예로 들려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발굴 후 뒤늦은 유적 정비의 문제점

중국은 짧은 시간에 그것도 도심지가 아닌 지방 소도시나 농촌에서 유적 정비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벽찬 감이 있다.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흑룡강성 영안시 상경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상경성은 부분적으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도까지 상경성 전체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였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조사를 기초로 궁성 정문인 오봉루와 제1궁전터를 기단부까지 복원해 놓았다. 그리고 2007년까지 발굴조사된 것을 기초로 제2궁전터부터 제5궁전터까지와 외성 복문 등을 복원해 놓았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복원에 착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유적의 원형 훼손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만일 궁성만이라도 제대로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발굴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비가 끝난 후에는 주변부까지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사업이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2. 부실시공으로 인한 복원된 유적의 회손

상경성의 경우 각 궁전터 기단부까지 이미 복원되어 있다. 복원 후 유적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부실시공으로 기단 좌우에 있는 계단과 면석들은 벌써 훼손되어 마감돌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 것도 있었다. 이

러한 예는 제3궁전터, 제4궁전터, 제5궁전터도 같은 상황이었다. 외성의 북문터 또한 각 벽돌들이 떨어져나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어 새로 정비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3. 마스터플랜 없는 유적 정비사업

서고성은 발굴이 끝났고 발굴조사보고서도 이미 출간되었다. 그래서인지 2009년도 답사 때 멀리서나마 관찰된 유적의 풍경은 대단했다. 불도저로 밀어내서인지 외성 북벽은 간데없이 볼 수 없었다. 새롭고 깨끗하게 유적을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유적의 진정성에서는 이러한 것이 용납될지 의문이다. 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4. 철거에 따른 뒤늦은 대응으로 유적의 슬럼화

서고성의 경우 궁전터 내에 많은 살림집들이 들어차 있었다. 그래서 발굴 전 주민들을 그 앞 도로 건너편에 새로운 집단 거주지로 이주시켰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2008년도 까지만 해도 유적지 내에는 곳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리다 보니 유적지 내부가 슬럼화 되어갔고 폐건물 잔해들이 짙 들어차 있어 정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불도저로 평탄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주민들의 경작으로 인한 유적의 훼손

유적이 있는 곳 대부분이 농촌이다. 그러다보니 그곳 주민들은 경작을 계속하고 있었다. 화전 소밀성이 이에 해당되며, 서고성, 팔련성, 상경성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만일 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면 경작으로 인한 유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체의 경작은 금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6. 유적 근처까지 도시화 개발붐에 시달려 간다

2009년 돈화 오동성을 방문하였다. 작년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철길 하나로 유적 코앞까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가 한참 이었다. 유적 근처까지 도시화 개발붐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국이 재개발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도심지는 물론이고 농촌도 마찬가지였다. 도시화로 인한 개발도 좋지만 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된 곳이라면 일정 거리를 버퍼존(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돈화시 강동향에 있는 강동24개돌유적도 같은 상황이었다. 원래 유적은 도로와 같은 높이에 있었다. 그런데 전면도로를 철길과 만나는 지점을 지하화하기 위해 지금은 유적이 공중에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하늘에 솟아있다. 유적 가까이까지 옹벽처리를 위해 땅을 절개하여 유적 지층구조는 완벽하게 훼손되어 앞으로는 영영 유적의 원상태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발해유적 정비현황과 문제점” 토론편

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중국내 발해유적의 현황과 정비 현황을 시기별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발해유적 정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발표자는 그동안 중국 현지 발해유적 현장조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중국 내 발해유적의 현황과 문제점을 학계에 다양한 각도로 제시하여 주셨다.

이번 발표 역시, 그러한 발표자의 시각이 결집되어 정리된 것으로, 향후 발해사연구의 방향에 좋은 방향 제시가 될 것이다. 특히 발표문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중국학계의 발해사연구와 유적 조사와 정리, 보고서 발간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중국 중심적인 연구진행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동아시아 역사인식의 공유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발해사 연구의 국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한국의 발해사학계 역시, 이제는 북한, 러시아, 일본 등의 외국의 발해사 연구자와 기관과 보다 긴밀한 연계를 지녀갈 필요가 있다.

특히 발표자는 중국내 발해유적에 대한 중국의 정상적인 정비사업 계도 필요성을 주장해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역시 건축 유적을 포함한 중국내 발해유적의 전반적인 분포와 보존 현황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이라 본다. 유적 정비 현황의 파악과 정비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대응 전략을 갖출 시점에 와 있다. 발표문에서 제시된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본문에 의거하여 다음 몇가지 질문으로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1) 발표문의 제목으로부터 이 글의 중점적인 주제는 중국에서의 발해유적 정비현황과 현재 도출되는 문제점의 제기일 것이다. 따라서 발해유적 현황 및 건축적 특징은 내용을 간략히 하여 도표 등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여기에 건축 유적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지만, 여타 문물유적 역시 보완을 통해 개괄적으로나마 소개하여 주셨으면 한다.

2) 다음으로 발표문 내용과 연결한 질문 몇가지를 드리고자 한다.

제2장의 6절 <발해건국의 독자성>에서는 발해건축 성격 정리 속에서 발해 건축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북한에서 온돌유구가 발해건축의 고구려적 요소의 증거로 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비판하는 북한학계의 발해-고구려 계통설은, 지나친 고구려적 요소만의 강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는 그 비판으로서, “발해주민은 고구려 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갈계도 있었다”, 또 온돌문화는 “당시 그 지역의 보편적인 건축문화로 인정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해석일 것”이라 본다면, 결국 발해는 말갈계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중국학계의 전형적인 말갈계 인식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부탁한다.

3) 그리고 해당 절의 마지막 결론에서 발표자는 <24개돌> 유적을 통해 발해건축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당시 그 지역의 보편적인 건축문화로 인정하는 것이 더 객관적인 해석일 것”이라는 표현과 연결하여 보면, 24개돌의 보편적 성격은 전혀 상정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4) 이어서 제3장<중국의 발해유적 조사 및 정비사업> 역시 좀더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며, 결국 제4장이 발표의 핵심이라 평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추진한 중국 내 발해유적 조사는 피동적인 면이 강하다고 본다. 여러 제약이 가로막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이 지역 조사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발해유적 조사와 보존현황이 발표와 같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한다면, 이제 2010년대 이후 중국측 연구 추이에 대한 대응적 접근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5)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발해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국측의 움직임을 유네스코 등재절차라는 행정적 요소와 중국의 등재 의지 두 측면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 구체적으로 가장 가능성있는 등재 대상 후보 유적은 어디이며, 이에 대한 한국학계의 대응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설명을 구하고 싶다. ***

발해의 왕도 顯州와 西古城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 I. 머리말
- II. 발해의 王都 현주
- III. 中京의 치소 서고성
- IV. 맺음말

I. 머리말

발해 도성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1933~1934년의 동아고고학회발굴대에 의한 동경성 발굴로 대표되듯이 20세기 전반기는 일본인이 중심을 이루었고, 신중국 건국 이후에는 중국측이 주체가 되어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발굴 정비, 그리고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경의 치소라는 서고성에 대하여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0~2002년, 2004~2005년의 서고성에 대한 5년간에 걸친 발굴결과인 『서고성』 보고서에서는 서고성이 중경현덕부지이며, 동시에 “현주”로 비정하였다. 발해의 도성은 현재의 유적중 동경성, 팔련성, 서고성이라 하고, 이것이 상경, 동경, 중경이라 하고 있다. 아울러 용두산고분군에서도 문왕과 간왕의 왕비묘가 발굴되는 화룡지역의 발해 유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고성을 비롯한 화룡지역이 발해사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¹⁾ 이에 발해의 왕도였던 현주와 서고성의 관계를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제반 여건상 역측의 부분이 적지 않다. 향후 보완을 다짐하는 바이다.

II. 발해의 王都 현주

1) 천도시기

도성은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정치, 군사문화의 중심지이다. 발해의 도성으로서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국지인 舊國을 비롯하여 顯州, 上京, 그리고 東京이 있었다.

현주를 비롯한 발해의 도성에 관한 분명한 언급은 천도를 전하는 아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대조영이 東牟山에 근거하여 성을 쌓고 살았다. (『구당서』 「발해말갈전」)
- ② 顯州는 天寶 중에 왕이 도읍한 곳이다. (『新唐書』 권43下, 地理志)
- ③ 현주는 당 천보 이전 발해국이 도읍한 곳이다. (『무경총요』 「북번지리」)

1) 임상선, 「발해의 都城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學報』 제24호, 高麗史學會, 2006.

- ④ 천보 말 大欽茂가 上京으로 옮기니 舊國으로부터 곧장 300리이다. (『신당서』 권219, 渤海傳)
 ⑤ 貞元時 동남쪽 東京으로 옮겼다. 흠무가 죽으니 華璵가 왕이 되어 다시 상경으로 돌아왔다. (『신당서』 권219, 발해전)

발해가 현주에 도읍했다는 기사는 모두 당대 賈耽의 저술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변주입사이도리기」를 인용한 『신당서』 「지리지」이고, 두 번째는 「황화사달기」를 인용한 증공량이 지은 『무경총요』이다. 전자는 현주에 도읍한 시기를 당나라 천보 중이라 한정하였고, 후자는 천보 이전이라고 하였다.

현주로의 천도는 늘어난 영토의 효율적인 통치와 국력의 상승에 따른 것인데, 2) 『무경총요』의 기록을 발해가 흑수부를 정벌하고 당을 공격하였던 사건과 관련시켜, 무왕대에 현주로의 천도를 주장한 바 있으나, 3) 검토의 여지가 있다.

서고성 보고서 필자는 서고성의 유물이 옥정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며, 서고성 정도시기를 천보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4) 이것은 『무경총요』에 있는 천보 이전의 도읍이라는 기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옥정산 고분군에 고왕과 무왕의 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무왕대에 현주로의 천도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5) 그러나 서고성 보고서에서는 서고성을 천보중의 도성인 현주의 치소로 보는 전제하에서 나온 주장이나, 서고성이 그 뒤에 축조되었다고 한다면, 입론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현주의 위치

『서고성』 보고서에서는 서고성을 “현주”로 비정하고, 동시에 중경현덕부고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경으로 비정하는 서고성이 발해시기 도성이 있던 현주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용두산고분군에서 정효공주 이외에 문왕과 간왕의 왕비묘 등이 발굴되면서 서고성의 존재에 대하여 새로운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2) 林相先, 「渤海的 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5, 청계사학회, 1988.
 3) 丹化沙, 「발해역사지리연구정황술략」, 『흑룡강문물총간』1983-1 ; 최무장 편역, 「발해의 역사지리연구」, 『渤海的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1988, 134쪽.
 4) 宋玉彬, 「渤海都城故址研究」, 『考古』2009-6.
 5) 王承禮, 「吉林敦化牡丹江上游渤海遺址調查記」 『考古』1962-11 ; 崔茂藏 譯, 1982, 『高句麗-渤海文化』, 集文堂, 287쪽.

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전촌은 현주는 서고성, 팔련성보다 앞서서 상경성보다 앞서의 도성이므로,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주가 서고성이 아니라면 그 대상지는 어디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끄는 곳이 바로 하남둔고성이다. ‘허래성’이라고도 하는 하남둔고성은 북쪽으로 해란강을 건너 4km에 서고성이 있고, 서쪽 약 4km 정도에 팔가자 북대지 발해고묘군이 있다. 하남둔은 화룡현성 동북 약 25km, 북으로 해란강에 임하고, 그 나머지 3면은 하남둔고성이 에워싸고 있다. 고성의 북벽은 이미 해란강에 침식되어 파괴되었고, 현존 성벽은 대략 ‘U’형이고, 주변의 남아있는 길이는 약 2.5km이다. 성내에는 대량의 발해시대 磚瓦가 흩어져 있고, 암막새, 瓦當, 숫기와, 花紋磚과 ‘素’자 와편을 채집하였다. 성내 중부에서 조금 서남으로 치우쳐 아직 대략 方形에 가까운 담장 흔적이 있는데, 주위 길이 약 500m 정도이다.¹³⁾이 담장 남벽의 중부에 하나의 분명한 출구가 있는데 門址같다. 고묘는 이 담장의 정중앙에 있다.

조사시, 묘지는 이미 논이 되어 있었으나, 동서 병렬된 두기의 묘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시, 서편의 묘를 1호묘라 하고, 동편을 2호묘라고 하였다. 양묘는 모두 장방형 磚築이었고, 남북향이고, 형태는 대략 같아서, 길이 2.40m, 폭 1.40m, 벽 높이가 0.47m였다. 묘 바닥은 정방형 靑磚으로 깔았고, 4벽은 장방형 청전으로 겹쳐쌓았고, 백회로 발라 메웠다. 정방형 청전은 한변 길이 35cm, 두께 5cm, 장방형 청전은 길이 34.5cm, 폭 15.5cm, 두께 5cm였다. 두 묘간의 거리는 4.50m이다.

거주민에 의하면, 원래 두 묘의 위에는 8개의 큰 석판이 2층으로 나누어 봉우리를 덮고 있었다. 덮개돌의 위에 한무더기의 대형 흙무더기가 있었다. 흙무더기는 장방형으로 동서 28m, 남북 폭 20m이고, 위에 수개의 초석이 순서있게 배열되어 있었다. 이외, 묘 앞 약 1m 정도에 하나의 무너진 구덩이가 있었고, 구덩이 속에 벽화의 잔편, 철제 갈고리 잔편과 건축장식건 등이 쌓여 있었다. 1호묘에서는 작은 금제 버클 2건, 금제 용머리장식건 2건, 금제 팔찌 1건, 은제 팔찌 1건, 금제 귀걸이 1쌍, 그리고 2호묘에서는 금제 허리띠장식(금제 버클 등 포함), 허리묶음형 금제 버클 2건, 타원형 금제 버클 1건, 금제 칼장식 2건, 철칼 잔편, 숫돌, 금꽃장식 등이 출토하였다. 1호묘는 여자, 2호묘는 남자로서 두 묘의 구조가 서로 같고, 아울러 동일 봉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합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¹⁴⁾

지금까지 서고성에서는 발해 早期에 속하는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출토 유물이 中期 혹은 晩期에 속하고, 서고성 주변에 있는 유적 중에서는 하남둔고성에서만 조기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이것은 구국의 오동성에서 천도한 도성이 서고성보다는 하남둔고성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현주성의 유지는 서고성이 아니고 하남둔고성이고, 하남둔고성이 해란강에 침식됨에 따라 서고성이 축조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¹⁵⁾또한 하남둔고성은 王都로서의 역할을 마친 후, 서고성에 수반하는 陵園이 되었다고도 추정하기도 한다.¹⁶⁾

Ⅲ. 中京의 치소, 서고성

1) 현주와 중경의 관계

13) 酒寄雅志는 장방형을 띤 外城과 그 속에 주위 길이 500메타의 방형의 內城이 회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였다(酒寄雅志, 1998, 「渤海의王都と領域支配」 『古代文化』 50-9 ;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141쪽).

14) 郭文魁, 「和龍渤海古墓出土의幾件金飾」, 『文物』 1973-8.

15) 秋山進午, 「渤海“塔基”壁畫墓의發見と研究」 『大境』 10, 1986 ; 王培新, 1999, 「中國における渤海都城と交通路の研究」 『アジア遊學』 6, 28-29쪽.

16) 酒寄雅志, 1998, 「渤海의王都と領域支配」 『古代文化』 50-9 ;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157쪽.

현주가 서고성이 아니라 하남둔고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현주 시기에는 단지 府만 있었던 것이 아닐까. 부의 명칭은 발해가 건국 이후 주변지역을 점령하면서 새로이 발해의 행정체제에 편입된 지역에 붙인 명칭일 것이다. 기록에서는 부명에 앞서 그 지역을 모모고지라 하고 있다.

현재 서고성을 중경현덕부라고 직접 밝힌 문헌자료는 없고, 상경이나 동경과 함께 천도지로 거론된 것은 중경의 속주였던 현주이다. 중경의 수주는 노주이므로, 수주가 도성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현주가 도성이었을 때 중경이 있었을 리는 없고, 부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신당서』 발해전의 기재에 따르면, 발해는 오경을 설치하였는데, 상경룡천부, 중경현덕부, 동경룡원부, 남경남해부, 서경압록부이다. 현재 오경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문왕대 혹은 그 이후에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문왕대에 오경이 모두 설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의 견해가 참고가 된다. 17)

『신당서』 지리지에 인용된 賈耽의 道里記에서는 “自鴨淥江口舟行百余里，乃小舫溯流东北三十里至泊沟口，得渤海之境。又溯流五百里，至丸都县城，故高句丽王都。又东北溯流二百里，至神州。又陆行四百里，至显州，天宝中王所都。又正北如东六百里，至渤海王城”라고 하였다. 글에 나오는 것은 “渤海王城”이지, “上京”이 아니고 또한 “龙泉府”의 글자도 보이지 않고, 또한 “显州”, “天宝中王所都”은 있으나 “中京”이나 “显德府”의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료는 당시 발해에 오경제가 없었고, 또한 “중경”, “상경”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인용된 賈耽 『古今郡国志』에는 “渤海国南海，鸭绿，扶余，柵城四府并是高句丽旧地也。自新罗并泉郡至柵城府，凡三十九驿”라고 하였다. 여기서 南海府，柵城府라 하였지, “南京”，“东京”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남경”，“동경” 등의 오경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续日本纪』 광인천황 보구8년(777) 정월조에 “都蒙等发自弊邑南海府吐号浦”라고 한 사료에서도 또한 당시 발해에 “南海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남해부”가 “남경”이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신당서』 발해전에서 말하길 “贞元时，东南徙东京。钦茂死，私谥文王。子宏临早死，族弟元义立一岁，猜虐，国人杀之，推宏临子华璵为王，复还上京，改年中兴”이라 하였다. 여기에 확실히 “上京”，“东京”의 글자가 있지만, 이것은 『신당서』 작자가 오경 설치후의 명칭으로 발해 천도를 서술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단, 오경제의 하한은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발해 오경이 기록된 『신당서』는 张建章의 『渤海记』에서 많은 재료를 취하였는데, 장건장은 당 문종 대화7년(833) 발해에 가서, 대화9년(835)에 幽州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장건장이 발해에 갔을 때, 발해에 이미 오경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18)

결국, 발해에서는 府가 먼저 생기고, 京이 뒤에 생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알려진 부의 명칭은 방위적인 개념보다는 그곳의 과거의 명칭을 연용한 경우가 많고, 특히 경은 방위적인 개념이므로, 발해의 영역이 어느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정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동경, 서경, 남경, 중경, 상경의 명칭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경은 부에 비해서 뒤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천보중 구국에서 수도를 옮기면서 현주가 중경의 수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주를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경은 설치되지 않았고, 다만 현덕부만이 있었으며, 현주는 이때의 수주였을 것이다.

17) 晓辰, 「也谈渤海五京制的起始年代」, 『北方文物』2003-3, 80-81쪽.

18) 金毓黻은 발해 오경과 州府의 명칭이 완비된 연대를 『遼史』 지리지의 “唐元和中，渤海王大仁秀南定新罗，北略诸部，开置郡邑”을 근거로, 11대왕 선왕 때로 추정하였다.

부가 먼저 생기고 경이 생겼지만, 오경제는 장건장이 발해를 방문했을 때는 있었을 터이지만, 이것이 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에 모두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경제도가 설치되기 이전의 수도가 있던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칭이 있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령, 구국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국' '신도'의 명칭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두 번째의 수도인 현주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현주가 도읍이었을 때는 아직 오경이 없었기 때문에, 중경이라 하지 않고 『신당서』에서 현주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현주는 도읍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도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때 15봉의 하나인 현덕부의 치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19)

2) 서고성의 축조시기

그렇다면 이제 중경의 치소였던 서고성에 대하여, 최근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20) 서고성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서성진 성남촌에 자리잡고 있다. 서남쪽으로 화룡시와는 약 24km, 동북으로 연길시와는 42km 떨어져 있다.

외성은 남북 방향의 장방형이고, 남쪽에서 동쪽으로 10° 치우쳐 있다. 전체 면적은 약 0.46km²이다. 성벽은 흙을 다져서 쌓았다. 그중, 외성 북벽은 길이 632m, 남벽은 길이 628.2m, 동벽은 길이 734.2m, 서벽은 길이 725.7m로, 둘레는 2720.1m이다.

내성은 외성의 북반부 중앙에 위치한다. 외성과 마찬가지로 내성도 장방형이며 방향은 남쪽에서 동쪽으로 10° 치우쳐 있다. 면적은 약 5,800m²이다. 성벽은 다져서 쌓았다. 그 중에서 북벽 길이는 187m, 남벽 길이는 187.9m, 동벽의 길이는 311.1m, 서벽의 길이는 306.8m로, 둘레는 992.8m이다. (번 53)

唐代 도성과 邊城의 축성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1m 당 약 15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서고성의 외성과 내성벽의 축조에만 필요한 인원이 외성(2,720m)은 421,600명, 내성(992.8m)은 153,760명으로서 합하여 575,360명에 달한다. 21)

조사 결과, 서고성 내에 두 줄의 중심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내성의 5개 궁전 건축은 “十”자 형 구조를 보인다. 그 중 1, 2, 5호 궁전은 남에서 북으로 순서대로 성터의 남북방향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4, 2, 3호 궁전은 서에서 동으로 순서대로 내성의 동서방향 중심선상에 위치한다. 내성의 남문은 전체 성터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2호 궁전은 내성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

1호, 2호 궁전은 복합식 건축물로, 1호 궁전의 좌, 우 양측에 동, 서의 낭하가 배치되어 있고, 2호 궁전의 좌, 우 양측에도 동, 서의 配殿이 배치되어 있으며, 3, 4, 5호 궁전은 단독 건축물에 속한다. 1호 궁전을 기준으로 그 동서의 낭하는 좌우로 대칭되고, 2호 궁전을 기준으로 그 동서의 배전도 좌우로 대칭되며, 2호 궁전 지역을 기준으로, 3호와 4호 궁전이 좌우로 대칭된다.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 서고성의 내성 구역은 발해 상경용천부 궁성의 3호에서 5호 궁전 구역의 건축 구조, 건축 형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건설시기 면에서 양자 간에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발해 상경 궁성은 서고성 내성과 동일하다.

서고성의 축조시기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 팔련성과 상경성의 축조시기이다. 천보말 발해가 상경으로 천도하였는데, 이때 동경성의 도시계획과 규모는 서고성의 도성이념과 모델을 따르고 있었고,

19) 『大清一統志』에서도 현주가 곧 현덕부라 하고 있다.

2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등, 『西古城 - 2000~2005년도발해국 중경현덕부고지전야고고보고』, 문물출판사, 2007.

21) 임상선, 「발해 크라스키노성에 나타난 고구려 문화 요소」, 『2005년도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성 발굴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2006.

3중성제인 동경성은 대화여와 그 후대 발해 제왕들이 점차 완성한 것이다. 정원시기 발해는 동경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도성의 건설이념도 변화가 생겼을 것이나, 사용된 건축자재는 서고성에 있던 수공업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서고성의 시축연대가 동경성과 팔련성보다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서고성 보고서에 의하면 서고성의 출토유물은 팔련성과 시기적으로 근접하고, 상경성과 비교해서는 일부 시기가 늦기도 하다고 한다. 내성 궁전지의 경우에는 상경성 궁전지와 거의 일치함으로써 상경성보다도 시기가 이른 듯이 기술하였다. 요컨대, 서고성과 상경성 궁성간의 구조상으로는 서고성이 이른 듯 하지만, 와당을 대표로 하는 출토유물에서는 상경성이 이른 시기인 듯이 기술하였다. 여기서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까운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서고성이 상경 이후의 것이라면, 중경과 동경의 설치도 상경 이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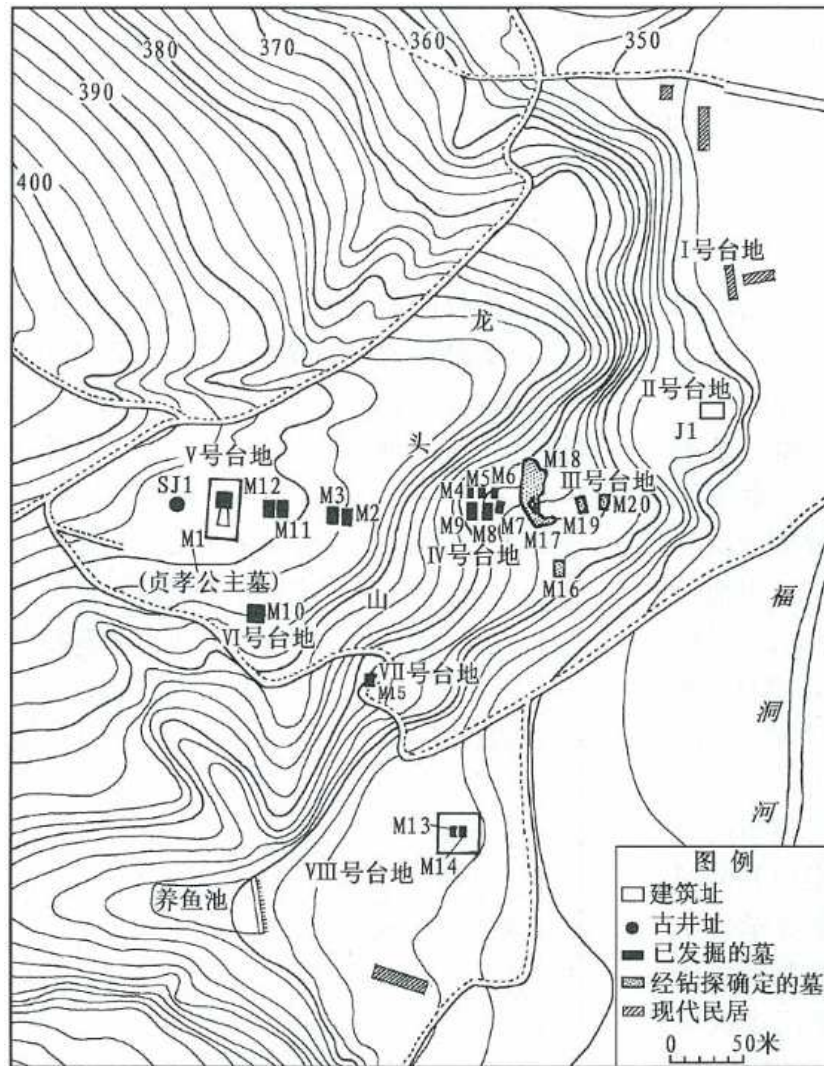
서고성 보고서는 서고성에서 출토된 와당을 소개하고 있는데, 6개의 유형중 D형 와당이 팔련성, 화룡 龍頭山高분군, 연길시 台巖 유적과 龍河 南山유적에서 보이고, Fa형 와당도 발해 상경성, 팔련성, 화룡시 용두산고분군, 연길시 용하 남산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중 D형은 8송이의 독립된 연화문 양이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와당이고, Fa형은 와당의 주 도안은 6송이의 측면으로 보이는 화초문양이다.
22)

특히 보고서에서 서고성과 유사한 와당이 출토한 유적으로 예시한 용해고분군은 서고성의 축조시기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용해고분군에서는 정효공주를 비롯한 유적의 절대편년을 알 수 있는 고분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소개된 자료에 의하면, 23) 용해고분군이 위치한 용두산의 전체 길이는 약 7.5km, 해발은 400m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석국고분군·용해고분군·용호고분구역으로 나뉜다. 고분군 동쪽에는 福洞河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며 용머리 부분에 이르러 해란강으로 유입된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리위원회관공실,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화룡시문물관리소 등의 연합발굴대가 2004년 7월 ~ 11월, 2005년 6월 ~ 11월에 걸쳐 19기(발굴 14기, 시추조사 5기)를 발굴, 조사하였다. 고분의 형태는 대(중)형 석실봉토묘·대형전실묘·대형전실탑묘 및 고분 위에 대형 건물을 지은 동봉이혈전곽묘가 있었다.

2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등, 『西古城 - 2000~2005년도발해국 중경현덕부고지전야고고보고』, 문물출판사, 2007

2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古墓葬發掘簡報」, 『考古』2009-6.



(龍海고분군 : 『考古』 2009-6)

용해고분군은 발해국 8세기 후반 ~ 9세기 전반기의 중요한 왕실고분이다. 1980년 용해고분군에서 정효공주묘가 발견된 이후 학계에서는 용해고분군을 발해왕실귀족묘지로 인식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제3대 문왕 효의황후묘(M12)·제9대 간왕 순목황후묘(M3) 및 M13과 M14에서 출토된 금관식·금판을 덧댄 옥대 등은 이곳이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 발해의 여러 왕실릉이 소재했던 곳임을 분명히 밝혀져주고 있다.

특히, 효의황후는 3대 문왕(文王, 재위 737~793)의 황후이고, 순목황후는 9대 간왕(簡王, 재위 818)의 황후이다. 순목황후는 태씨이고, 건흥 12년(829년) 7월 15일에 안장되었다고 하였다. 문왕과 간왕은 각 황후의 동쪽에 인접한 묘에 안장되고, 그 중 간왕의 능은 '□陵'(능의 명칭 불명확)이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⁴⁾

24) 다만, 금번 약보에는 많은 우려점도 보인다. 먼저, 당 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고구려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토유물중 가장 중요한 2개의 묘지에 대해서는 고찰중이라며 그 사진이나 비문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문왕의 황후에 대해서는 비문에서 '효의황후'라는 4자만이 공개되고, 그 이외의 비문의 형태, 글자수, 묘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문의 핵심인 묘주의 출신, 가족관계, 사망과 안장 등은 검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런데 용해고분군의 발굴된 묘역에서 정효공주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같은 높이에 문왕비와 간왕비가 있다. 고분의 일반적인 배치에서 가장 높은 곳이나 우월한 곳에 고분군의 선조자가 묻힌다고 한다면, 현재의 용해고분군에는 정효공주를 위시하여 그 이후의 왕족이 묻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분군의 편년은 8세기 말 이후가 되고, 수도는 환도한 후인 상경이었다.

용해고분군의 조영이 8세기말 이후라면, 이곳에 묻힌 왕족들이 거주하던 곳은 중경 서고성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당시의 수도가 상경임에도 왜 간왕 등이 이곳에 묻혔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사후세계인 고분이 생전 사람이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발해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상경이 수도였을 때, 문왕의 딸인 정혜공주는 구국인 육정산에 묻히고, 동경이 수도였을 때,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는 중경인 용두산에 묻힌다. 그리고 문왕의 왕비와 간왕의 왕비도 이곳에 묻혔다. 이 중 간왕은 강왕의 아들이다. 문왕의 손자인 康王 大嵩璘(재위 794~809) 사후, 그의 아들인 대원유대인의, 그리고 대명충이 계승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다. 강왕의 적장자로 생각되는 定王 大元瑜(재위 809~812)는 3년만에 사망하고, 동생인 僖王 大言義(재위 812~818)가 즉위하였지만, 그도 6년만에 사망하고, 이어서 즉위한 것이 簡王 大明忠(재위 818)이었다. 그는 희왕의 동생이었지만, 1년 뒤 사망하였다. 간왕의 사망 후 발해의 왕계는 대조영의 동생인 大野勃의 후손이라는 宣王 大仁秀(재위 818~830)에게로 넘어갔다.²⁵⁾

王系로 본다면 간왕은 승린계라고 할 수 있다. 승린은 문왕의 손자뻘이고, 대화여, 즉 성왕과는 형제뻘이다. 승린의 자식인 간왕이 정효공주와 문왕비의 묘역에 묻혔다는 것은 이들간에 혈연적인 유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문왕 이후 즉위한 성왕, 강왕, 그리고 그 두 아들인 정왕과 희왕의 능은 어디에 있을까. 간왕이 묘역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 나머지 부(승린)나 형들은 이곳에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간왕이 죽은 후 왕계가 선왕 대신수로 옮겨가고 있지만, 현재의 묘역으로 보면, 그 후손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해고분군의 고분이 8세기 말 이후에 축조되었으나, 서고성이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대략 9세기에 접어들어서 일 것으로 생각된다. 서고성 보고서에 소개한 용해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 와당은 약보에 의하면 M13, M14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⁶⁾ 두 지역의 와당은 사진 자료상으로 보아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M13, M14가 왕릉에 버금가는 규모임에도 용해고분내에서의 위치가 간왕에 비하여 낮은 지역인 것으로 미루어, 그 축조시기는 9세기 전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발해의 왕도였던 현주와 서고성의 관계를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구국에서 현주로의 천도는 늘어난 영토의 효율적인 통치와 국력의 상승에 따라 천보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고성이 발해시기 도성이 있던 현주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용두산고분군에서 정효공주 이외에 문왕과 간왕의 왕비묘 등이 발굴되면서 서고성의 존재에

25) 林相先,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2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古墓葬發掘簡報」, 『考古』2009-6, 35쪽.

대하여 새로운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서고성에서 발해 早期에 속하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유적 중에서는 하남둔고성에서만 초기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주성의 유지는 서고성이 아니고 하남둔고성이고, 이 성은 王都로서의 역할을 마친 후, 서고성에 수반하는 陵園이 되었다고도 추정하기도 한다.

현주가 서고성이 아니라 하남둔고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현주 시기에는 단지 府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에서는 府가 먼저 생기고, 京이 뒤에 생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알려진 부의 명칭은 방위적인 개념보다는 그곳의 과거의 명칭을 연용한 경우가 많고, 특히 경은 방위적인 개념이므로, 발해의 영역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정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동경, 서경, 남경, 중경, 상경의 명칭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경은 부에 비해서 뒤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고성의 축조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정효공주를 비롯한 유적의 절대편년을 알 수 있는 고분이 발굴된 용해고분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용해고분군에는 정효공주를 위시하여 그 이후의 왕족이 묻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 고분군의 편년은 8세기 말 이후가 되고, 서고성이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대략 9세기 전반 이후로 추정된다.

“발해의 왕도 顯州와 西古城” 토론문

김기섭(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관립추진단)

발표자(임상선)는 사명감이 충만하며 관련자료를 충실히 모아 세심히 분석·검토하는 발해사 연구자로서 특히 渤海王都와 관련해 많은 성과를 학계에 제출해왔다.

발표요지는 대체로 명쾌하다. 발해는 늘어난 영토의 효율적 통치와 국력 상승에 따라 天寶(742~756) 연간에 舊國에서 顯州로 천도하였는데, 이 무렵까지는 아직 京(5京)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현주는 단지 府(顯德府)의 首州에 불과했으며 그 유지는 지금의 河南屯古城이라고 한다. 天寶末(756)에 上京으로 다시 도읍을 옮긴 뒤 늦어도 9세기 전반기에는 5京制실시와 함께 中京이 설치되었으며, 이때의 중심은 지금의 西古城으로서 龍海古墳群과 함께 일종의 세트관계를 형성했다고 추론하였다.

발표자의 추론은 모두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토론자(김기섭)로서는 是非를 논하기보다 그저 배우고 곰곰이 생각해볼 뿐이다. 다만, 발표요지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 해소하고 싶다.

첫째, 발표자는 지금까지 발해 早期의 유물이 西古城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은 반면 河南屯古城에서만 출토되었으며, 內城의 건물구조가 거의 일치하는 西古城과 上京城을 비교할 때 건축구조는 西古城쪽이 이르고 출토유물은 上京城쪽이 이르다는 조사성과를 전하였다. 이는 고고자료의 분석·검토 결과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文王 때의 잦은 移都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곽의 축조·사용 시기차가 불과 반세기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해의 고고자료 편년에 대해서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西古城과 河南屯古城의 구조 및 축조방식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출토유물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이 궁금하다.

둘째, 『新唐書』 등의 기록에 따르면 문왕이 顯州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는 불과 10년정도이다. 그 사이 唐의 長安城을 본떠 上京城을 축조했다면 文王은 舊國을 떠날 때 이미 上京천도를 계획했을 수도 있다. 발표자도 지적했듯이 後代의 史家들이 후대의 용어인 京을 前代에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舊國→上京 천도과정에서 문왕이 지방지배 거점 확보를 위해 顯州(中京), 柵城(東京) 등에 잠시 머물렀던 것을 후대 사가들이 遷都로 誤認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

셋째, 발표자는 龍海古墳群을 왕족의 묘역으로서 8세기말 이후에 조성되었다고 추정하였다. 그렇다면 현주가 도읍이던 8세기 중엽의 왕실·귀족 묘역은 어디였는지 궁금하다. 마침 舊國인 敦化縣의 六頂山에 高王·武王 등의 묘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므로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顯州도읍기의 왕실 묘역을 멀리 떨어진 옛 도읍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용해고분군에서 정효공주, 문왕의 왕비, 간왕의 왕비 등 주로 여성들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발해의 혼인 및 매장풍습, 지방 지배체제 등과 연계 해석할 수는 없을지 궁금하다.

넷째, 발표자는 구국에서 중경으로의 천도를 “늘어난 영토의 효율적인 통치”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도성의 규모가 달라졌다는 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분석이지만, 발해 전체의 영토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구국과 중경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편이어서 과연 지리적 편의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西古城에서 발견된 건축유구를 궁전 등으로 표현하였는데, 발굴보고서를 존중한 탓일 테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渤海 貞孝公主墓誌의 書體 研究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목 차>-----

- I. 서론
- II. 자형 분석과 판독
- III. 서체의 특징
- IV. 서체의 의의
- V. 결론

I. 서론

현재 전해지는 발해의 문자 유물로는 貞惠와 貞孝 두 공주의 묘지, 불상 명문, 비편, 기와 명문을 비롯하여 開心寺 출토 글쭉지, 전명, 靈光塔 명문, 도기와 철기의 명문, 인장과 동경의 명문, 청동부절의 명문 등이 있다.¹⁾ 그중 연대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文王의 둘째와 넷째 딸인 정혜와 정효공주의 묘지이다. 묘지는 발해 전기의 서사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그간 여러 이유로 인해 묘지 실물은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탁본 역시 전체 사진을 제외하면 거의 공개된 적이 없었다.²⁾ 정혜공주 묘지는 길림성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었고, 정효공주묘지는 출토 후 연변박물관에서 보관하였다. 필자가 1990년대 중후반 길림성박물관을 답사 하였을 때 정혜공주묘지를 직접 실견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묘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조명 상태 등이 좋지 않아 글자의 원모를 살펴볼 수 없었다. 출판된 길림성박물관 도록에 두 묘지의 탁본과 정혜공주묘지의 실물 사진이 실려 있기는 하지만, 원형을 축소한 상태여서 자형을 살피기에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묘지 글자와 서체 등에 대한 연구는 발굴보고서와 발건 초기 판독에 참여하였던 연구자들이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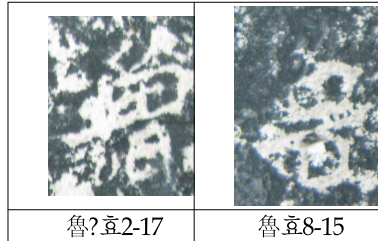
2008년, 우연히 정혜공주묘지의 탁본을 직접 대할 기회가 있었다.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이를 근거로 초보적인 검토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발해 문자 관련 논문이 몇 편 발표되어 참고가 된다.³⁾ 먼저 글자의 판독 내용을 살펴보고, 서체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자형의 분석과 판독

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서울 :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451~489쪽 참조.
 2) 정혜공주묘지는 길림성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고, 정효공주묘지는 출토 후 연변박물관에서 보관하였다. 길림성 박물관 도록에는 묘지의 실물 사진과 전체 탁본이 실려 있으나 자형을 살피기에는 부족하다.
 3) 李凌閣, 「渤海國書法藝術初探」, 『牡丹江師院學報』 3, 1987: 손환일, 「발해기와 명문의 서체」, 『고구려연구』 19, 고구려연구회, 2005: 지세화, 「渤海 貞孝公主墓誌의 예술성 고찰-文體的 特性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2, 2007, 263쪽: 정현숙, 「발해 정혜공주묘지와 정효공주묘지의 서풍」, 『서지학연구』, 서지학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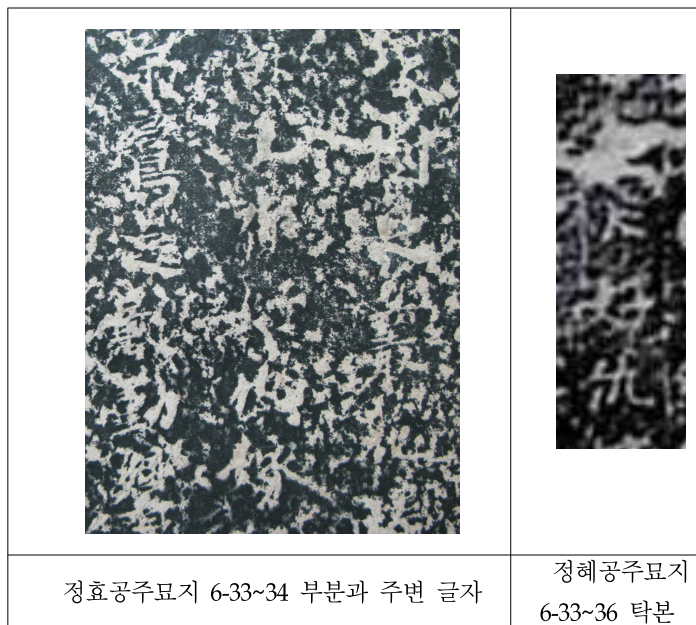
1. 자형 분석

▶ 2-17 : 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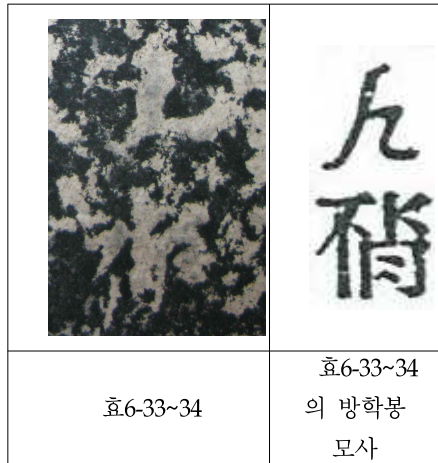
이 글자는 정혜공주묘지에서는 ‘曾’자로 판독하였으나⁴⁾, 정효공주묘지를 통해 ‘魯’자로 수정되었다. 특히 그 다음 글자와 연결하여 춘추시기 노나라 장공이 주나라 친자의 딸인 왕희의 혼례를 주관하기 위해 지었다는 ‘魯館’으로 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글자를 ‘魯’자로 보기에 ‘宀’의 필획이 분명하지 않다. 중간 부분에 가로획처럼 보이는 것의 일부가 좌측으로 돌출되어 ‘宀’를 ‘一’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田’의 마지막 가로획과 연결되어 독립된 필획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다. 한편 8-15는 내용상 ‘魯’자가 분명하다.⁵⁾ 여기서는 ‘田’과 ‘宀’의 필획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 서사자는 ‘魯’자의 서사에서 점획의 처리를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7은 인용된 전고⁶⁾로 본다면, ‘魯館’의 ‘魯’자일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일단 탁출된 자형결구만으로 본다면 ‘曾’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6-33~34 : 土?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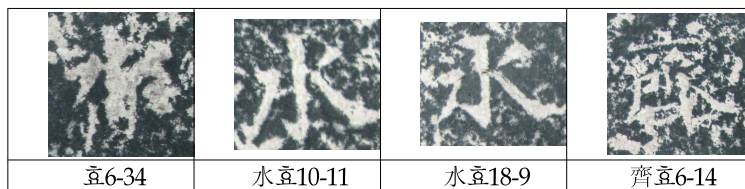


4) 閻萬章, 「渤海“貞惠公主墓碑”의 研究」, 『考古學報』, 1956年 2期.
 5) ‘魯元’은 漢 高祖의 딸 魯元公주로서 趙王 張敖에게 시집갔다. 사기 권89, 장이전 및 한서권32, 장이전 참조.- 송기호
 6) ‘館’은 손님을 접대하는 집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王姬의 혼례를 주최하기 위해 지은 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때문에 魯館은 魯庄公이 왕희를 위해 지은 집이다. 왕희는 주천자의 딸이다. 주나라 왕족의 성이 ‘姬’였으므로 왕희라고 불렀다. 『春秋庄公元』 기재에 의하면 “夏, 單伯送王姬. 秋, 築王姬之館于處”라고 하였다.- 방학봉

6-33과 6-34는 정효공주묘지 발견 초기 유일하게 판독되지 않은 글자이다.⁷⁾ 이후 방학봉은 필획을 모사하고 ‘之子’로 판독하였다.⁸⁾ 6-33을 ‘之’자로 읽은 것은 마지막 필획의 수필 부분을 파책의 형태로 본 듯하다. 6-34는 ‘不+水자의 우측부분+月’자로 구성된 자형결구로 파악하고(그림 참조) 이를 ‘子’자로 읽었다. 그러나 필획의 모사와 판독된 글자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먼저 탁본을 통해 자형결구를 파악해 보자. 6-33은 ‘L’자형 필획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필획이 다른 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굵다. 가로획 부분은 세로획과 만나는 부분에서 좌측으로 약간 돌출되고, 그 앞쪽으로 필획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형태이다. 가로획의 수필 부분에서는 우상향으로 점획이 가 필된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세로획의 중간 부분에 가로획과 같은 흔적이 있다. 일단 이상의 필획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이 글자는 일단 ‘土’자에 가까운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6-34는 제시된 탁본에서 보면, ‘水’자의 마지막 필획이 다소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형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학봉은 이 글자를 ‘不+水자의 우측부분+月’자로 구성된 자형결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不’자의 형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하부의 ‘月’은 원래의 자형과는 무관한 훼손의 흔적으로 보인다. 한편 정효공주묘지에서는 이 글자를 ‘人’자로 판독하였는데, 묘지의 탁본에는 ‘水’자의 우측 부분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일단 탁본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水’자로 읽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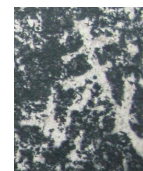
▶ 11-23 : 原?

7)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982年 1期; 王承禮,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博物館研究』, 1984年 2-3期, 1985年 1期.

8) 방학봉, 「발해정효공주묘지병서에 대한 고역」, 『발해사연구』 1, 1990, <판독문> 참조.

					
原? ㄹ11-23	原 北魏 元顯儁墓誌	原 唐 皇甫誕碑	泉 ㄹ13-15	泉 ㄹ18-32	泉 ㄹ14-17

▶ 16-11 : 相

				
相 ㄹ16-11	相 隋 龍華寺碑	相 唐 李思訓碑	成 ㄹ10-12	成 ㄹ13-9

이 글자는 정혜공주묘지에서 글자 부분이 훼손되어 엄만장 판독문에서 판독 불능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相’자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제기하기도 하였다.⁹⁾ 한편 정혜공주묘지가 발견된 이후에는 ‘成’자로 판독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읽혀지고 있다. 그러나 탁본에 나타난 결구 형태는 ‘相’자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전후 문맥상으로도 ‘鴛鴦相對’가 되어 자연스럽다.

▶ 18-1 : 迭

					
迭 ㄹ18-1	迭-晉-司馬芳 殘碑	迭-北魏-元悅 墓誌	迭-北魏-論經 書詩	迭-당-等慈寺 碑	送-당-道因法 師碑
					
逝 ㄹ10-10	逝-당-친남생 묘지	逝-모량치위 태비묘지			

9) 王健群, 「渤海貞惠公主墓碑考」, 『文物集刊』2, 文物出版社, 1980.

18-1은 정혜공주묘지와 정효공주묘지에서 모두 ‘逝’자로 판독하였다. 그러나 정효공주묘지에서 ‘逝’자가 확실한 10-10의 자형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자의 좌변은 ‘辵’이 분명하고, 우변은 ‘矢’, ‘失’에 가까운 형태이다. 탁본만으로 본다면 ‘矢’에 더욱 가깝게 보여 ‘送’자에 가깝다. ‘送’자라면 우변은 ‘失’자가 되어야 하지만, 위진남북조시대에 간혹 ‘矢’자로 쓰기도 하는 점으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다만 길림성박물관 도록에 소개된 정혜공주묘지의 사진과 탁본에서는 우변 상부에 두 점처럼 보이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측의 점이 실획이라면 ‘送’자가 될 것이다.¹⁰⁾

2. 판독문

—작성중—

10) 이 글자에 대해 ‘送’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지세화, 「渤海 貞孝公主墓誌의 예술성 고찰-文體의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2, 2007, 254쪽.)

III. 서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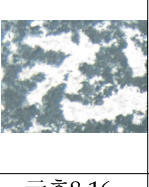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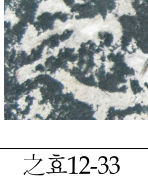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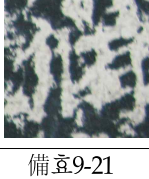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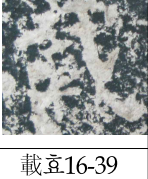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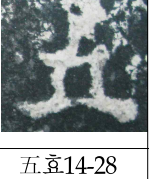

1. 초당 해서 필의

					
君 亥14-19	聞 亥5-25	公 亥11-3	嫁 亥6-37	德 亥2-27	都 亥7-12
					
郊 亥12-19	幾 亥18-22	感 亥3-19	密 亥7-1	敦 亥6-21	金 亥3-20
					
鳳 亥7-24	師 亥6-8	輪 亥3-21	序 亥1-8	巳 亥11-14	成 亥13-9
					
蒼 亥16-10	愛 亥17-18	譽 亥2-30	義 亥7-2	戎 亥3-41	卽 亥17-34
					
奄 亥14-13	柔 亥16-5	也 亥3-9	崇 亥12-30	易 亥10-16	乘 亥4-7
					
神 亥5-15	而 亥4-2	之 亥7-25	和 亥16-15	中 亥7-30	學 亥9-26
					
桑 亥17-15	慧 亥6-26	書 亥2-5	森 亥18-24	配 亥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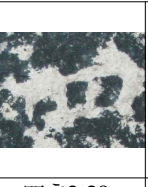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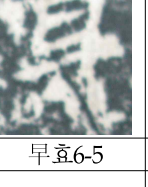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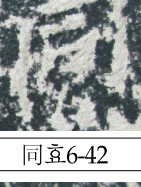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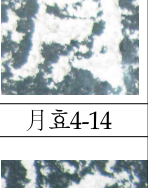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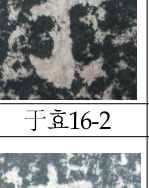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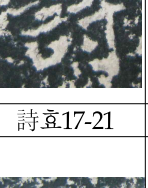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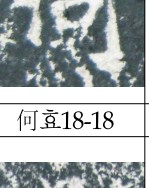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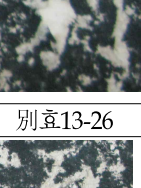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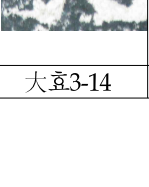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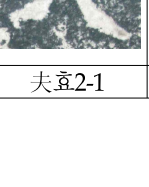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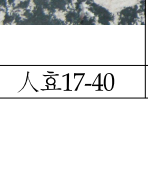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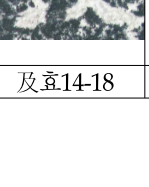

2. 행서 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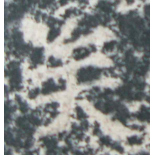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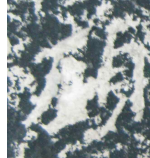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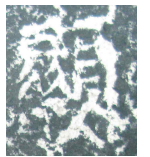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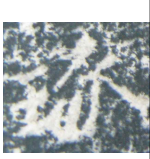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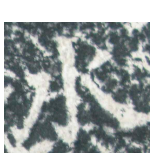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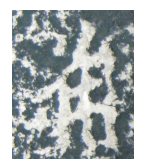

空 亥9-13	於 亥13-24	染 亥11-19	其 亥17-12	父 亥14-20	早 亥16-21
湯 亥4-38	態 亥15-39	平 亥12-34	稀 亥5-30	荒 亥18-20	孝 亥1-2
敬 亥8-9	斷 亥18-12	臺 亥18-17	視 亥15-9	覽 亥2-3	萬 亥13-31
姜 亥9-28	還 亥17-35	影 亥7-36	無 亥14-23	淚 亥9-11	功 亥14-5
相 亥16-11	邊 亥18-15	灑 亥9-10	陽 亥12-35	之 亥13-13	然 亥18-39
悅 亥6-23	烈 亥3-40	立 亥4-18	教 亥6-10	羽 亥15-12	

3. 顏體 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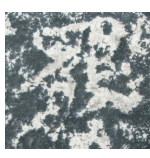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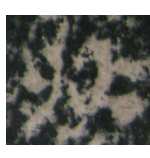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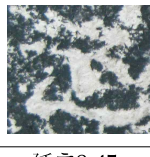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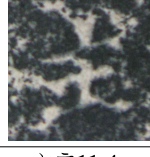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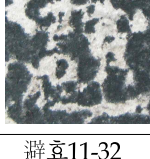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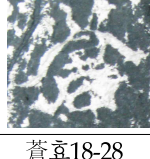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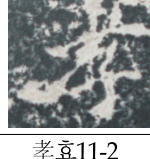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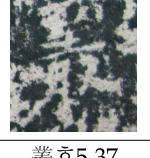


					
有 亥14-14	精 亥15-35	等 亥14-6	孝 亥3-18	박 亥15-6	가 亥13-6
					
不 亥14-1	時 亥4-8	榮 亥12-28	先 亥8-32	元 亥8-16	傳 亥2-16
					
之 亥12-33	備 亥9-21	門 亥8-19	載 亥16-39	五 亥14-28	儀 亥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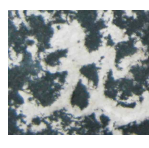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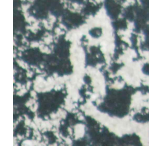
4. 南北朝 楷書 필의

					
曲 亥13-4	謂 亥3-8	里 亥8-13	四 亥3-28	증 亥2-17	魯 亥8-15
					
日 亥9-3	留 亥13-27	且 亥7-11	早 亥6-5	照 亥4-16	同 亥6-42
					
月 亥4-14	對 亥16-12	于 亥16-2	詩 亥17-21	何 亥18-18	別 亥13-26
					
尺 亥13-28	大 亥3-14	夫 亥2-1	人 亥17-40	及 亥14-18	夏 亥10-26

					
史 亥17-1	之 亥17-6	矣 亥12-3	美 亥15-1	殊 亥16-25	顯 亥12-18
					
厶 亥12-39	顯 亥15-21	顯 亥16-7	乃 亥4-6	得 亥4-1	貞 亥17-9
					
琢 亥8-4	水 亥10-11	雙 亥16-27	嬪 亥16-1	角 亥18-2	家 亥6-18

5. 隸書 필의

					
罷 亥11-28	逝 亥18-1	北 亥15-10	疾 亥17-28	所 亥3-37	琴 亥8-20
					
玄 亥17-22	祉 亥3-2	信 亥16-38	延 亥8-45	主 亥11-4	曆 亥3-17
					
避 亥11-32	和 亥8-23	且 亥17-10	蒼 亥18-28	筵 亥2-23	孝 亥11-2
					
谷 亥11-20	成 亥15-43	家 亥7-4	叢 亥5-37	臺 亥7-28	主 亥9-5

					
顏 8-21	誰 8-28	天 8-43	遇 5-31	是 9-24	

IV. 정효공주묘지 서체의 의의

1. 남북조 및 고구려 서체의 계승

발해는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는 문왕시기까지는 아직 전대의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고구려와 말갈 문화가 발해 문화의 기저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효공주묘지의 서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남북조(南北朝:420~589)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비나 묘지에서 鍾繇나 王羲之의 영향을 받은 해서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해서는 북조의 비와 묘지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魏碑體라고 하는데, 앞서 살펴본 정효공주묘지의 남북조 해서 필의가 있는 글자들 가운데 특히 규각이 강하고, 별날과 갈고리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남북조시대 중·후기에는 비나 묘지에서도 鍾王 해서의 풍격에 상당히 접근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 해서가 성숙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남북조의 분열을 통일한 隋(581~618년)는 서예에 있어서도 남조와 북조의 서풍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었다. 이전의 과도적인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필획에 있어서 원필과 방필이 혼합된 해서가 많다. 이러한 남북 서풍의 혼합은 이후 초당(初唐) 해서의 형성에 가교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효공주묘지의 초당 해서 필의가 있는 글자들 가운데 남북조 서풍에 가까운 형태들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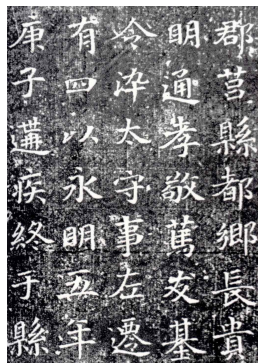


그림1 劉岱墓誌, 南齊,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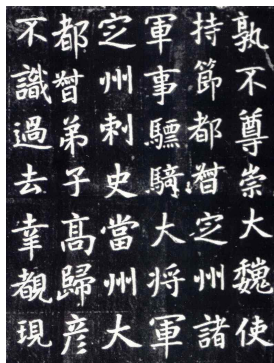


그림2 高歸彥造像記, 東魏,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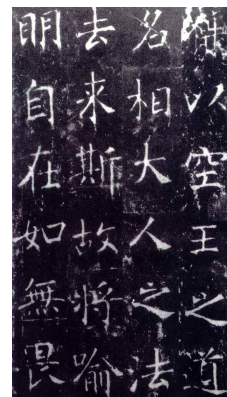


그림3 龍藏寺碑, 隋, 586

아울러 지배층을 이루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에 의한 서사문화가 발해 사회에 계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는 제2대 무왕(武王) 인안(仁安) 9년(727),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건국을 알리고 국가 관

계를 시작하는 첫 국서(國書)에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고 부여의 오랜 전통을 이어 받았다.”¹¹⁾고 밝히고 있다. 발해가 건국 초기부터 국제 사회에서 고구려의 계승자로 인식되었던 것은 민족 구성원들의 出自 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발해 사회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서사 문화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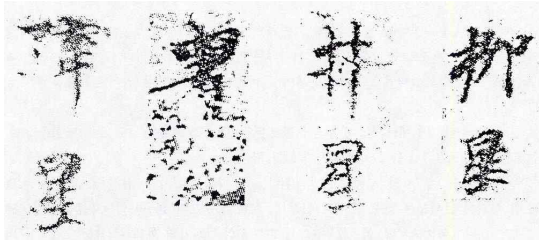


그림4 德花里2號墳 碣石 ‘辟星’, ‘胃口’, ‘井星’, ‘柳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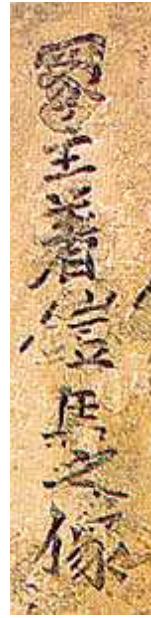


그림5 鎧馬塚 碣石 ‘冢主着鎧馬之像’



그림6 通溝四神塚 碣石 ‘噉肉不知足’

고구려에서 5세기 후반 碣石들의 필획과 결구는 전형적인 해서(海書)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狩獵塚과 덕화리 2호분 碣石의 체세는 과도적 요소가 감소하여 鍾·王의 해서 풍격에 가까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鎧馬塚의 碣石은 대부분 횡획이 우상향으로 처리되었으며, 기필과 수필 부분에서 海書의 전형적인 提法과 頓法이 보이고 있다. 撇의 처리가 다른 획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기필이 厚重한 느낌이 강하다. 횡획과 종획에서 강조된 갈고리가 출현하여 碣石의 전체적인 체세는 북위 碑誌에 나타나는 海書의 풍격과 유사하다.

그리고 6세기 이후의 通溝四神塚의 碣石은 횡획이 전반적으로 우하향을 하였고, 절필 부분의 각도가 예각을 이루어 전형적인 海書의 체세이다. 특히 횡획에서 기필과 수필 부분보다 중간 부분이 가늘어지는 현상은 성숙한 海書에서 나타나는 ‘馬蹄蠶頭’ 필획과 같다. 또한 撇과 捺의 운필이 매우 유려하고, 전체적인 결구가 단정하여 세련된 海書의 체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噉’자의 ‘女’의 서사법은 初唐에 海書의 완성작이라고 평가되는 <孔子廟堂碑>(626년)의 ‘教’자나 <皇甫誕碑>(643년)의 ‘故’자의 ‘女’의 결구와 비슷하고, ‘不’자는 <雁塔聖教序>(653년)의 ‘不’자와 필법이나 체세가 유사하여, 고구려에서 海書가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 『續日本紀』卷 10, 聖武天皇 神龜 5年 正月 甲寅.



그림7 오매리 절골 유적 금동판

한편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절골 유적에서 발견된 글자가 새겨진 금동판¹²⁾은 고구려 시대에 제작되어 발해까지 사용된 것이다. 명문의 글씨는 자형이 장방형을 취하고 가로획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해서의 체세를 갖추었다. 가로획의 중간 부분을 위로 볼록하게 운필하고 수필 부분에서 붓을 멈추어 마무리한 필법이나 折筆 부분에서 각도를 예각으로 좁히는 결구법, 그리고 세로획의 수필 부분에서 갈고리 필획이 다수 출현하는 점으로 보아 비교적 성숙된 해서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체세가 정효공주묘지와도 유사한 면이 있어 고구려의 문자 유물이 발해시대까지도 연용되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당해의 수용과 변용

건국 초기 발해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당의 태학에 보내 고금의 제도를 배우게 했다. 문왕 대흥 원년(737년)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한서』, 『삼국지』, 『진서』, 『십육국춘추』, 『당례』를 베껴오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의 서풍이 발해에 수용되었고, 정효공주묘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에 이르러 해서는 ‘初唐三大家’로 불리는 歐陽詢(557~641년), 虞世南(558~638년), 褚遂良(596~658년) 등에 의해 더욱 발전하고 규범을 갖추었으므로, 그 동안 진행되어온 서체의 연변이 완성되었다. 당 전기의 서예 발전에는 太宗이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서예와 직접 관련된 과거제도와 교육제도를 정비하였고, 왕희지를 배우고 숭상함으로써 이후 서단에서 왕희지 숭배의 전통을 확립시켰다.

1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1990), 앞의 책, 281쪽. 명문의 말미에 ‘△和三年 歲次丙寅 二月 廿六日 △戊朔’이란 연호와 간지가 있어 금동판의 제작 년대를 추정해 보면, 장수왕 14년(426) 병술일, 장수왕 74년(486) 임술일, 양원왕 2년(546) 갑술일, 영양왕 17년(606) 병술일, 보장왕 25년(666) 무술일 중에서 어느 한 해가 될 것이다. 조선유적유물도감에서는 546년으로 보았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해서(楷書)는 적어도 6세기 이후에나 비교적 성숙한 형태들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금동판은 적어도 6세기 이후의 유물일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건흥오년’명 금동 광배보다 세련된 해서의 체세를 띠고 있어 그 년대가 7세기 이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8 孔子廟堂碑,
唐, 虞世南, 626



그림9 九成宮禮泉銘,
唐, 歐陽詢, 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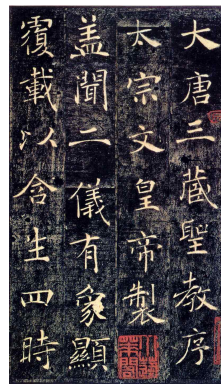


그림10 雁塔聖教序,
唐, 褚遂良, 653



그림11 顏氏家廟碑, 唐,
顏真卿, 780

당 중기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문화 전반에 걸쳐 최고의 절정에 이른 시기이다. 이러한 성당의 기상과 맞물려 서예가 번영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해서나 행서 및 초서는 물론이고 예서와 전서에서도 뛰어난 작가들이 배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괄목한 말한 성과는 顏眞卿(709~785)의 출현이다. 안진경은 고법에서 장점을 취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심미적 각도에서 재해석하여, 이전과는 다른 자신만의 새로운 서풍을 창안함으로써 왕희지 이래 서예사의 흐름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정효공주묘지의 서예에 대해 李凌閣은 “晉唐 서풍을 계승하고, 魏晉의 풍모를 갖추었으며, 또 隋唐 이래의 名家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妍美한 왕희지와 險勁한 구양순의 用筆과 심지어 유공권의 剛健함 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魏碑의 필법이 융합되어 필획이 峻厚하고, 특히 뛰어난 점은 서사자가 대가들의 장점을 모아 자신의 글씨로 만들었다는 점이다”고 하고 있다.¹³⁾ 이상은 말 그대로 정효공주묘지의 서체가 중국의 진당 서풍의 장점을 수용하여 발해식으로 변용한 것으로 서법 예술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묘지는 당대의 묘지문 양식으로 문체는 변려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정효공주묘지의 문체적 특성에 대해 지세화는 “변체와 산체의 적절한 혼용, 4자 구식, 다양한 전고의 활용 등 당의 변려문과 매우 흡사한 형태와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우에서 다소 정교함이 떨어지기는 하나 그 밖에는 동시대 당의 묘지문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는 대단히 높은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¹⁴⁾고 하였다.

이상의 서체와 문체에 있어 예술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평가의 대상은 왕희지를 비롯하여 당대의 서법 명가들과 당대의 변려문에 초점을 맞춘 평가라 하겠다. 필자 또한 묘지에 대해 “駢儷文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명문의 서체 또한 완성된 형태의 楷書이다. 발해의 최고 신분인 공주의 묘지에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행한 변려문과 당나라 해서풍이 나타나는 것은 발해 귀족 사회에서 상용되었던 문장과 문자의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⁵⁾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문장과 서예의 보편 지향적 기준인 변려문과 당해가 발해 사회에서 체현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발해문화가 건국 초기 다소 정제적 국면을 탈피하고, 문물과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동아시아의 주류 문화에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

13) 李凌閣, 「渤海國書法藝術初探」, 『牧丹江師院學報』 3, 1987. 李凌閣 정효공주묘지의 평가에서 柳公權(778~865)의 서법에 비유한 것은 시기상 다소 적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顏眞卿에 비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효공주묘지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唐王朝의 서법예술 가운데 뛰어난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당 왕조의 작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14) 지세화, 「渤海 貞孝公主墓誌의 예술성 고찰-文體의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42, 2007, 263쪽.

15) 동북아역사재단편, 『발해의 역사와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7, 322~323쪽.

한다.

V. 결론-향후 보완

발해는 고구려, 靺鞨, 契丹, 奚, 室韋 등으로 구성된 다종족 사회이다. 발해 건국 초기에는 그 민족 구성만큼이나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고구려와 말갈의 문화가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당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당문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보편 지향적 주류 문화에 편입되었고, '해동성국'의 부흥을 실현하였다. 발해 시대의 문화적 전개 양상은 당시 서사문화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정효공주묘지는 그러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渤海 貞孝公主墓誌의 書體 研究” 토론문

정현숙(이천시립월전미술관)

발해의 문자 유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혜공주묘지와 정효공주묘지의 글씨 연구는 한국서예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광의 선생의 이번 연구는 발해서예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부족하나마 선생의 원고에 대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1. 먼저 크게 제목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질문이다. 정효공주묘지의 서체가 이미 해서체(오체 중 하나)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서 안에서 예서나 행서의 필의가 있다든지 북위풍, 초당풍, 안풍을 논한다면 “서체(type, 字體)”보다는 “서풍(style, 風格)”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이미 서예학계에서는 “서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해서체의 각기 다른 서풍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중왕 해서, 남북조 해서, 초당 해서, 안진경 해서의 특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는 독자가 필자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남북조 해서와 초당 해서 구분이 모호하다. 또한 필자가 말한 남북조 해서는 북조, 그 중에서도 필자가 10쪽에서 말한 “위비체”를 뜻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8쪽의 “4. 남북조 해서 필의”에서의 글자는 대부분 북위의 조상기나 묘지명 글씨의 결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필자가 “1. 초당 해서의 필의”라고 한 도표(6쪽)에는 어떤 필법이 초당 해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북위체의 자형과 필법을 지니고 있다; 자형에서 초당 해서는 장방형, 북위 해서는 정방형. 필법의 기필의 각도에서 초당 해서는 대략 45도 정도, 북위 해서는 수평에 가까움. 예를 들면 6쪽의 표에서 ‘也(5줄 3자), 崇(5줄 4자), 桑(7줄 1자), 森(7줄 4자) 등의 글자가 북위 해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8쪽 “4. 남북조 해서 필의”의 글자들의 자형이나 필법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3. 10쪽 “남북조(南北朝:420~589)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비나 묘지에서 鍾繇나 王羲之의 영향을 받은 해서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해서는 북조의 비와 묘지 등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魏碑體라고 하는데, 앞서 살펴본 정효공주묘지의 남북조 해서 필의가 있는 글자들 가운데 특히 규각이 강하고, 별날과 갈고리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에서

-종왕의 영향을 받은 해서가 위비체가 될 수 있는지. 종왕의 해서는 유려하고 전절이 원전(圓轉)인 것이 특징이라면 위비체는 필자가 말했듯이 규각이 강하고 별획(삐침)과 날획(파임 또는 파괘), 갈고리가 강조되고 전절이 방절(方折)인 것이 특징이다. 종왕과 위비 서풍은 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11쪽 “고구려에서 5세기 후반 목서들의 필획과 결구는 전형적인 해서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狩獵塚과 덕화리 2호분 목서의 체세는 과도적 요소가 감소하여 鍾王之 해서 풍격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에서

-“과도적 요소”는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과도적 요소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또한 “고구려 서풍의 계승”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연결성을 보여주는 맥락에서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할 듯하다.

5. 결론적으로 정효공주묘지의 서체는 북위풍의 해서인지, 초당풍의 해서인지, 안진경풍의 해서인지.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북위풍의 해서에 초당풍과 안풍, 또는 예기와 행기가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의 의견을 피력해 주기 바란다.

미완의 글을 받아 결론이 무엇일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선생의 옥고가 통일 신라서예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발해서예사 연구에 크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발해 '중경'의 의미

한규철(경성대학교 사학과)

-----<목 차>-----

- I. 머리말
- II. 발해 5경의 설치와 중경
- III. 자주적이었고 고구려계승적이었던 중경
- IV.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중경
- V. 중경지역 발굴성과를 보는 시각과 과제

I. 머리말

발해는 5경을 운영하였는데, 중경시대란 시간적인 면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중경이 발해국의 수도였던 시기에 대한 의미일 것이고, 둘째는 중경 전시기에 대한 것이다. 전자가 좁은 의미의 것이라면, 후자는 넓은 의미의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양자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발해 5경 중의 '중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거의 언급이 없었다. 단편적으로 중경의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근대적 발해사 연구가 시작되었던 독립운동기 즉 일제의 만주침략시기에는 5경의 위치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탐구주제였기에 중경 또한 이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舊國과 중경의 위치에 대해서 혼선을 빚을 정도였다는 것도 그러한 연구과정의 산물이다. 舊國을 蘇密城으로 보고 中京을 舊國으로 보는 敦化 지역에서 찾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¹⁾

이후 발해 中京 都城이 지금의 중국 和龍市 西古城터로 비정되고 난 이후의 쟁점은 앞에서 좀 소홀히 다루었던 5경의 설치시기문제와 천도과정 그리고 5경의 독자성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 않았는가 한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학계가 발해를 당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많은 글이 쏟아져 나오던 1980년대 이후는 발해와 당나라 도성과의 관계 등이 자주 언급되곤 하였다.

발해국은 그 수도를 4번 옮겼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첫 舊國에서 두 번째가 바로 중경이고, 다음으로 上京, 이후 동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上京이다. 중경이 수도였던 시기는 天寶年間(742~756)이었다고 하여 天寶初인 742년경에 설치되어 天寶末에 上京으로 천도하였다고 하였으니 길게는 14년간이었다.

2000년부터 실시되어 왔던 西古城 發掘과 2004년부터 실시된 龍頭山 古墳群의 발굴은 중경의 발해사적 위치를 보다 소상하게 알게 하였다. 기록과 최근 발굴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中京의 발해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²⁾

1) 松井浪八, 「渤海五京考[上,下]」, 『史學界』1-4,7, 1899. 森田鐵次, 「渤海の五京について」, 『渤海·金の歴史地理的考察』, 滿鐵教育研究所報10, 1937. 鳥山喜一, 「渤海中京考」, 『考古學雜誌』34-1, 1944. 鳥山喜一, 「渤海國の五京について—渤海史上の諸問題一節—」, 『東洋大學紀要』11, 社會科學篇, 1957.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和龍市博物館 編著,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2007.

II. 발해 5경의 설치와 '중경'

발해 5경은 중경, 동경, 서경, 남경, 상경을 의미한다. 5경의 이름이 東西南北의 방향에서 연유한다면 上京은 北京이었을 법하다. 上京은 北京을 수도로 한 뒤에 바꾸었을 수도 없지 않다고 본다. 다른 소경에 비해 上下의 개념이 개입된 것으로 首都의 의미가 강조되어 바뀐 것이 아닌가 한다.

5경에서 중경이 차지하는 위치는 말 그대로 중앙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 중심지이자 문화중심지로서의 의미도 포함하였을 수 있다. 때문에 첫 도읍지가 될 수 있었고 중경으로 명명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한편 최근 발굴성과를 보아서도 중경이 수도로 역할을 하였던 시기가 발해 역사 229년에서 얼마 안되는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중경이 갖는 역할은 발해국 전시기에 걸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5경 중의 가장 중심에 있는 名實相符한 '中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한다.

발해 5경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발해의 5京은 대체로 당나라의 4京제도가 완비되는 762년경부터 南海府의 이름이 등장하는 776년 사이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 그러나, 늦게는 그 시기를 발해가 '海東盛國'으로 불리는 제10대 宣王代나⁴⁾ 제11대 大彝震代,⁵⁾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고 보는 주장들도 있었다.

발해 5경이 당의 4경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견해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은 5京을 포함한 발해의 15府·62州가 당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였기에 당의 제도보다 먼저 일 수 없다는 것이다. 白鳥庫吉 등은 5京制 실시 시기의 上限을 당나라의 5都制가 완비되는 시점이자 발해가 당으로부터 '渤海國王'이라는 冊封을 받는 文王 大興 26년(762)으로 잡아, 당나라 제도의 영향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⁶⁾ 이 주장은 최근 중국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견해가 되었다. 즉, 王承禮, 孫玉良 등은 발해의 행정제도가 『新唐書』의 '처음에 그 나라의 왕이 자주 학생들을 京師의 太學에 보내와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혔다'는 기록에 근거해서 당나라의 것을 모범으로 삼고 있었다고 주장한다.⁷⁾ 孫玉良은 발해의 5京 설치 시기의 上限은 당나라의 5京 즉, 西京鳳翔府, 南京成都府, 中京京兆府, 東京河南府, 北京太原府가 완비되는 唐肅宗 至德2년(757) 이후였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⁸⁾ 이러한 생각들은 발해의 5京制는 적어도 당나라의 5京制보다 앞서서 설치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발해가 舊國에서 처음으로 도읍을 정하던 중경의 설치시기에 주목하여 이때에 이미 발해 5경이 체계를 갖추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⁹⁾ 발해가 수도를 옮겼던 사료의 대표적인 것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A. 鴨綠江 江口에서 100여 리를 큰 배로 가고 이어서 작은 배로 동북쪽을 향하여 30 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泊沔江에 이르러 발해의 국경에 들어가게 된다. 또 500 리를 올라가면 丸都縣城에 이르는데, 옛 고구려의 王都이다. 또 동북으로 200 리를 올라가면 神州에 도착하고, 육로로 400 리를 가면 顯州에 다다르니 天寶年間(742~

3) 津田左右吉, 『渤海考』, 1915. 白鳥庫吉, 『渤海史上の難問題に就いて』, 『史學雜誌』46-9, 1935. 森田鐵次, 『渤海の五京について』, 『渤海金の歴史地理的考察』, 1937. 王承禮, 『渤海簡史』, 黑龍江省人民出版社, 1984. 方學鳳, 『渤海의 5경(五京)에 대하여』, 『歷史教育』53, 1993. 魏國忠, 『唐代渤海五京制度』, 『東北民族史研究』(2), 中州古籍出版社, 1995. 宋基豪, 『渤海의 政治史 研究』, 一潮閣, 1995. 이상 韓圭哲, 『渤海의 西京鴨綠府 研究』, 『韓國古代史研究』14, 韓國古代史學會, 1998 참조.

4) 金毓黻, <地理考>, 《渤海國志長編》卷14, 1934.

5) 佟柱臣, 『《渤海記》著者 張建章“墓誌”考』, 『黑龍江文物叢刊』, 1981-1.

6) 白鳥庫吉, 『渤海史上の難問題に就いて』. 森田鐵次, 『渤海の五京について』, 20~25쪽.

7) 王承禮 著, 宋基豪 譯, 『발해의 역사』, 141쪽. 孫玉良, 『渤海遷都淺議』. 방학봉, 『발해의 강역과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185~188쪽.

8) 孫玉良, <渤海遷都淺議>.

9) 韓圭哲, 『渤海의 西京鴨綠府 研究』.

756)에 국왕이 都邑을 정했던 곳이다. 또한 正北에서 약간 동쪽으로 600 리를 가면 발해의 王城에 도달한다(『新唐書』卷43下, 地理志 第7下, 靺鞨州 登州)

- B. 天寶 末년에 欽茂가 도읍을 上京으로 옮기니 舊國에서 3백리 떨어진 忽汗河의 동쪽이다. [中略] 貞元(785~805) 때에 동남쪽 東京으로 도읍을 옮겼다. 欽茂가 죽으니, 사사로이 諡號를 文王이라 하였다. 아들 宏臨은 일찍 죽고 (4대) 族弟 元義가 1년간 왕위에 올랐으나, 의심이 많고 포학하여 國人들이 그를 죽이고 (5대) 宏臨의 아들 華璵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다시 上京으로 遷都하고 연호를 中興(794)이라 고쳤다(『新唐書』卷219, 北狄 渤海).

사료 A는 顯州 즉 중경이 천보년간에 수도가 되었던 사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료 B는 문왕이 중경에서 上京으로 천도하였다는 사실과 上京에서, 다시 東京으로 천도하였다가 또 다시 上京으로 遷都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사료 B는 舊國에서 顯州로의 도읍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주인 중경지역을 수도로 삼지 않고 바로 舊國에서 上京으로 도읍하였을 수도 있다고 오해를 빚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오해라면 顯州에 舊國이 세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사료A로 인해 구국에서 현주로 도읍하였다가 다시 上京으로 遷都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발해의 5京制를 顯州 즉 중경 수도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은 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文王代의 정치상황도 고려한 것이다. 발해는 이미 제2대 武王代에 '海東盛國'의 기반이 닦여졌다. 영토적으로는 越喜部를 비롯한 鐵利, 拂涅, 虞婁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발해의 영역으로 흡수되어, 발해는 이 때에 이미 '方 5,000里'의 땅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발해는 武王 仁安 14년(732)에 당나라를 공격할 정도로 힘이 커져 있었다.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제3대 文王은 內治에 힘을 쏟을 수 있었고, 首都도 顯州로 옮겨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여겼다. 요컨대 발해의 5京制는 문왕 후기가 아니라, 문왕 전기에 이미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물론 발해 5京제가 中京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성의 축조가 완비되는 것은 문왕 초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경시기는 행정체계를 갖추었을 뿐 이와 병행하여 도성이 완비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서서히 도성 축조를 완비해 나갔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발해 5京 설치시기에 대한 오해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중경성터와 상경성터 등은 초기 장소와 다르거나 후에 보수되거나 새로 건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되거나 새로 축조될 때의 도성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도 많다. 지금 발굴되고 있는 도성터를 중심으로 그 설치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역사적 실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무튼 발해 5京의 설치시기의 기점을 중경 설치시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발해가 자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五行思想은 물론이고 高句麗의 5部制의 전통과 新羅 5小京制도 목격하고 경험하였음도 고려되었다. 그렇다면 중경이 갖는 발해사적 위치에 대해서 보다 의미있게 보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 문왕은 중경을 도읍지로 생각하였을까 하는 점 등이다.

III. 자주적이었고 고구려계승적이었던 중경

발해사에 있어서 중경은 다른 4경에 비해 발해 왕실의 독자성이 가장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곳이 아니었던가 한다. 발해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지키고 있던 정치문화적 중심지였다는 것이다.

중경 도성인들의 古墓群이었을 가까운 곳의 眞孝公主墓에서 '皇上' 墓誌銘이 출토되었고, 최근 발굴되었다는 3대 문왕(재위 737~793년)의 皇后 孝懿皇后와 9대 簡王(在位 817~818년)의 皇后 順穆皇后의 墓誌들도 모두 '皇后'를 自稱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한다.¹⁰⁾ 안타깝게도 그 전모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吉林省 和龍市 龍海 古墳群에서 14기의 발해 왕실 고분이 발굴되었는데 그 가운데 順穆皇后 墓誌石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고분은 대형과 중형의 석실묘와 墓上 건축이 있는 대형 벽돌탑묘가 발굴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발해 중경인들은 발해의 독자성과 고구려문화를 잘 유지하려 노력하였지 않았는가 한다. 발해가 당의 군사적 공격을 물리치고 건국하던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舊國과 같은 곳을 거점으로 도읍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발전하던 문왕대에는 그에 걸맞는 수도를 상정하게 되었고 중경지역이 선정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문왕의 정치철학을 잘 실현할 수 있고 왕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곳으로 中京을 선택하여 천도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천도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문왕체제를 공고히 하고 발해 왕조의 자주성을 확립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왕조 재정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는 발해인들의 고구려적 전통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였지 않았을까 한다.

당나라에 대한 발해의 자주성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 보아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新唐書』는 당나라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年號와 諡號의 制定을 ‘사사로이’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당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조의 자주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年號와 諡號가 발해멸망기의 기록부재기를 제외한 전시기에 걸쳐 자주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은 신라 등 다른 왕조와도 구별되는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해의 자주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는 중경지역 출토의 墓誌銘을 통해서였다. 貞孝公主墓의 ‘皇上’이나 ‘孝懿皇后’, ‘順穆皇后’ 墓誌銘들이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중경지역에서 본격 출토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해가 첫 수도로 중경을 택하였던 것도 의미있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발해가 고구려적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컸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新唐書』는 高句麗 옛땅 지역에 세워졌다는 ‘高麗故地’는 西京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동북쪽의 舊國을 첫 建國터로 삼았던 고구려로서는 서경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우월성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나, 지리적으로 너무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발해의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경보다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평양수도시기의 서경지역은 이미 변방적 요소가 강하였다. 따라서 서경 못지 않게 고구려적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던 지역이 중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경지역은 고구려요소가 많은 이른바 ‘백산부(백산말갈)’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백산말갈로 불리어지는 고구려인들의 주거지는 지금의 둔화를 비롯한 간도일대 즉 지금의 중국 조선족자치주 지역을 망라한다. 물론 구국도 백산부 지역의 중심지로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고구려적 요소가 강했던 곳은 그보다 남쪽의 중경지역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경은 두만강 가까운 지역으로 보다 백두산문화적 요소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경은 뒤에 천도되는 상경에 비해서도 고구려적 요소가 강한 지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舊國과 같이 고구려적 요소가 강한 지역을 첫 수도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발해의 고구려계승의지가 강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서경 지역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수도 천도의 편리성 즉 구국과의 교통을 의식했을 것이고, 중경에 비해 상경은 낙후된 ‘肅愼故地’의 ‘말갈’ 지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나 생각된다.

서고성터가 대규모 발굴되면서 나온 연화문와당 또한 중경의 고구려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굴된 서고성터는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발해기와가 출토되었다. 기와들의 특징은 발해시기의 전형적인 손끝무늬 기와도 많이 나왔지만 고구려와의 계통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많

10) 李强,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年 第6期.

은 연화문 와당들도 대거 출토되었다.¹¹⁾ 또한 중경지역 발해 왕후 묘지에서 발굴된 鳥羽冠(새깃털을 꽂은 관)은 잘 알다시피 고구려인들의 전통으로 알려진 유물이다.

그리고 중경인들의 대규모 매장지였던 용두산 고분군의 석곽·석관묘도 고구려 지배층의 전형적인 고분 조영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묘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굴되고, 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벽돌무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돌을 많이 사용하는 유력자들의 무덤이 이곳에서 대규모로 출토되고 있는 것은 고구려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IV. 중요물 누릴 수 있었던 중경

중경지역은 넓은 평원을 갖고 있는 곡식창고로서 발해 왕조의 재정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해란강유역에서 가장 넓은 벌판을 갖고 있다.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海蘭江이 흐르고 北東河, 二道河, 대오도하, 팔도하 등의 지류가 해란강으로 합류한다. 이곳은 크고 작은 하천이 많고, 기후가 따뜻하고 넓은 들판과 땅이 비옥하여 벼농사에 적합한 곳이며 농산물이 풍부하였다.

발해의 특산물로 유명한 顯州의 包, 位城의 鐵, 廬州의 쌀 등이 중경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新唐書』가 전하고 있는 것도 발해가 첫 도읍으로 中京을 꼽았던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던가 한다. 수도로서는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龍頭山 古墳群에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묘를 비롯해서 발해국 3대 문왕의 皇后 孝懿王后와 9대 簡王(재위 817~818년)의 皇后 順穆皇后的 墓誌가 출토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고분군도 많은 노동력과 재력이 들어야 할 수 있는 토목공사이기도 하였다. 특히 9대 簡王 皇后墓가 있었다는 것은 중경이 수도 시절뿐만 아니라 상경 수도시대에 발해국 중심의 中京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닌가 한다.

또한 중경현덕부는 廬州·顯州·鐵州·湯州·榮州·興州 등 6주를 관할하였다고 하는데, 廬州, 顯州와 같이 農産物로 유명한 지역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位城의 鐵州에서는 鐵이 많이 나와 유명했다. 발해의 특산물로 소개되고 있는 대부분이 중경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도 중경의 풍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경의 경제력이 발해 발전을 이끄는 큰 동력이었다.

V. 중경지역 발굴성과를 보는 시각과 과제

최근 발굴되었다고 하는 墓誌銘 내용에서 ‘靺鞨’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주목하여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학계는 皇后銘 부분에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하여 언급하고 있다. 물론 공개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것은 중국학계가 발해를 당나라의 地方政權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해사에 보다 중요한 사실은 발해의 고구려계승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발해의 자주성은 이미 기록에서 年號와 諡號 사용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 등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바다. 문제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인지, 고구려와 다른 말갈을 계승한 왕조인지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발해사에 가장 큰 쟁점이자 발해사의 민족사적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등 編著, 『西古城』, 文物出版社, 2007.

중요한 유적을 발굴하고도 접근과 유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학계가 주장하는 발해사의 성격과 배치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하고 있다. ‘皇后’ 내용을 포함하는 자주성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발해국의 성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발해국의 고구려 계승문제 즉 발해의 말갈계승성에 대해서 중화인민공화국 학계가 줄곧 관심을 가져오던 바였기 때문이다.

墓誌銘은 被葬者의 공덕이 좀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인공의 출신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順穆皇后가 ‘泰氏’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예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다민족국가설을 주장하는 많은 이론들은 무엇보다 고구려와 다른 ‘靺鞨’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廣開土好太王碑에서는 靺鞨의 존재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당나라 중심의 기록들이 6세기 이후부터 靺鞨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長壽王代에 고구려도 靺鞨이란 종족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근거다. 卑稱으로서 6세기 이후 고구려에서도 사용되던 靺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이후의 말갈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崔忻 石刻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靺鞨’이라도 언급되고 被葬者나 발해 知性들도 말갈의 후예임을 자처할 법 한데 이러한 흔적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당나라와 같은 他人들이 불렀던 靺鞨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簡王 皇后銘이 高句麗든 靺鞨이든 어떤 내용이 언급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들의 출신이 너무 명확한 상식이었던 당시로선 후대인들의 쟁론을 예견하여 기록했을 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발해 ‘중경’의 의미” 토론문

김종복(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1. 이 발표는 한때 발해의 수도였으며, 발해 5경의 하나인 중경에 대해 1) 발해 5경의 설치, 2) 중경(시대)에 발해의 자주적이고 고구려 계승성이 두드러진 점, 3) 중경의 경제적 기반 등을 다각도로 고찰함으로써, 발해사의 이해를 심화시켰다.

2. 그런데 발표자는 발해의 수도로서의 중경보다 5경으로서의 중경에 더 주안점을 둬으로써 전자에 대해 다소 소략한 바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

1) 두 번째 수도의 명칭은 ‘中京’인가 ‘顯州’인가?

⇒사료 A에 의하면, 顯州가 천보 연간 발해의 수도이며, 그 당시에 中京이라고 불렀다고 보기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2) 5京制의 설치시기를 발표자는 문왕 전기로 보고 있는데, 위 사료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문왕 후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3) 보통 발해의 5경(제)를 당의 영향을 받은 것, 따라서 설치 시기는 문왕 후기로 보는 견해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표자는 전통적인 五行思想과 고구려의 5부제의 전통과 신라 5小京制를 목격한 것 등을 근거로 문왕 전기로 보고 있다.

⇒신라는 수도를 제외한 5소경, 발해는 수도를 포함한 5경이므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4) 顯州로의 천도 시기를 문왕 때로 보는 근거는? 『武經總要』에 인용된 「皇華四達記」에 의하면, ‘天寶以前에 발해국이 도읍’했다고 하므로, 천보 이전=개원 연간이라면, 무왕 때 현주로 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丹化沙, 송기호, 朱國忱·魏國忠, 김종복).

5) 문장 오류 부분 ; ‘발해가 첫 수도로 중경을 택하였던 것’, ‘동북쪽의 舊國을 첫 建國터로 삼았던 고구려’, ‘평양수도시기의 서경지역’, ‘발해가 첫 도읍으로 中京’